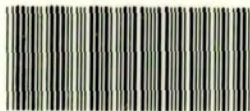


긴급구조 **119**

지금은 구조중! **S.O.S**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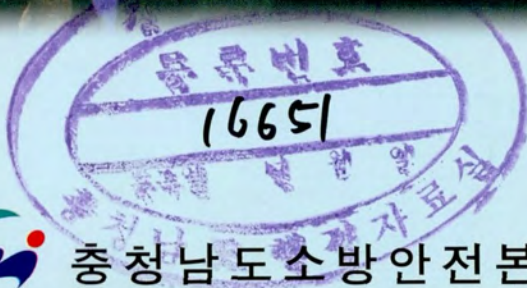
AM016651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긴급구조 119

지금은 구조중! S.O.S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 책을 펴내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중인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 생활주변에서의 사고발생은 그 요인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대형화되어짐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활동은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근래에 발생한 부천 LPG충전소 폭발 화재사고 등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온 가슴아픈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크고작은 사고현장마다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사태수습과 대형사고 확대 방지에 앞장서온 우리 소방공무원의 활약상은 소방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여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조직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한 바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현장에서는 단 한명의 귀중한 생명이란도 더 구하려다 아깝게도 자기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119대원들의 희생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남의 생명을 구하는일 그것은 살신성인 그 자체인 것이며, 오로지 고귀한 인명구조 활동에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사고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우리 대원이 항상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구급활동중 주요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니 현장활동시 교훈으로 삼아 도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소방행정을 펼쳐가는데 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대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어디선가 어둠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의 구조요청에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도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던 소방가족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소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령부  
인인인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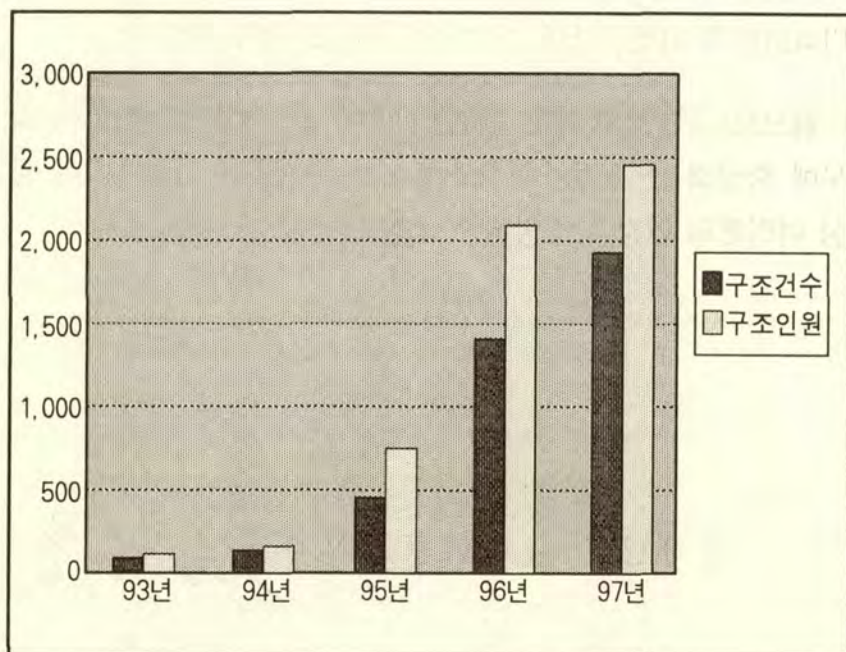
1998년 12월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 김철권

# 구조·구급활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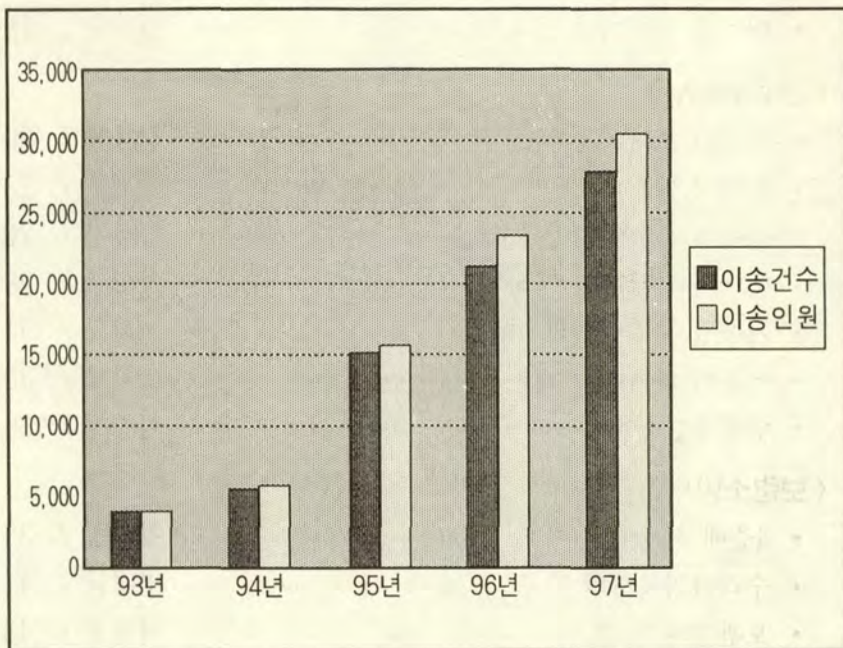
## ■ 구조활동

| 구분<br>연도 | 출동건수  | 구조건수  | 구조인원  | 일일평균<br>(명) | 연 평균<br>증가율(%) |
|----------|-------|-------|-------|-------------|----------------|
| '96. 10  | 2,259 | 1,146 | 1,773 | 6           |                |
| '97. 10  | 3,344 | 1,588 | 2,036 | 7           | 15             |
| '98. 10  | 3,359 | 1,098 | 2,427 | 8           | 19             |



# ■ 구급활동

| 구분<br>연도 | 출동건수   | 이송건수   | 이송인원   | 일일평균<br>(명) | 연 평균<br>증가율(%) |
|----------|--------|--------|--------|-------------|----------------|
| '96. 10  | 21,698 | 17,234 | 18,909 | 63          |                |
| '97. 10  | 28,656 | 23,049 | 25,213 | 84          | 33             |
| '98. 10  | 32,647 | 25,789 | 28,167 | 94          | 12             |



# 차 례

## 【구 조 사 례】

### 〈천안소방서〉

- 새해의 슬픔 ..... 박창순 / 3
- 황소가 날뛰고 있어요 ..... 박광석 / 5
- 최고 많이 취한 사람이 어른 ..... 이영식 / 7
- 옥수수밭의 비명 ..... 김형섭 / 9
- 어느 빗나간 사랑 ..... 이덕용 / 12
- 조용한 아침의 외침 ..... 주영규 / 15
- 더이상 들어가면 안돼요! ..... 임철수 / 18

### 〈공주소방서〉

- 두잔만 드시지 ..... 최강열 / 20
- 늑대와 양치기 소년 ..... 이성구 / 23
- 삼불봉에서의 산악구조 ..... 강석진 / 26
-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 ..... 강석진 / 28
- 겨울철 눈길산행의 아픔 ..... 조희광 / 31
- 여름이 앓아간 소녀 ..... 조희광 / 33
- 안전불감증 ..... 이종철 / 36

### 〈보령소방서〉

- 4층에 사람이 있어요 ..... 정도령 / 38
- 수리바위에서의 사투 ..... 변경근 / 41
- 토관속의 90분 ..... 이병호 / 43

|                      |          |
|----------------------|----------|
| • 급류속의 어린 생명 .....   | 이병호 / 46 |
| • 벌집 제거작전 .....      | 정도령 / 49 |
| • 지하탱크속의 사투 .....    | 나재무 / 52 |
| • 119가 이런것도 허나 ..... | 정도령 / 54 |

## 〈아산소방서〉

|                     |          |
|---------------------|----------|
| • 할머니와 아이들 .....    | 조은호 / 56 |
| • 엄마! 문 좀 열어줘 ..... | 이상은 / 59 |
| • 황소를 구출하라 .....    | 서정선 / 63 |
| • 저승낚시 .....        | 김윤희 / 66 |
| • 지름길이 황천길 .....    | 박현식 / 70 |
| • 잘린 장미송이 .....     | 조은호 / 73 |
| • 위험한 정원초과 .....    | 이은석 / 76 |

## 〈서산소방서〉

|                     |          |
|---------------------|----------|
| • 환 생 .....         | 염갑천 / 80 |
| • 재정이의 바캉스 일기 ..... | 정순조 / 82 |
| • 모래채취선 투원스호 .....  | 장남환 / 85 |
| • 죽음의 생강굴 .....     | 정상수 / 87 |
| • 엄마는 바빠 .....      | 신청순 / 89 |
| • 과 속 .....         | 장남환 / 91 |
| • 안타까운 죽음 .....     | 한홍수 / 93 |

## 〈논산소방서〉

|                      |           |
|----------------------|-----------|
| • 경험을 살려서 .....      | 김민규 / 95  |
| • 아저씨 팔 제가 뽐게요 ..... | 박연호 / 97  |
| • 한밤의 날벼락 .....      | 황은익 / 99  |
| • 낙화암의 절규 .....      | 이준표 / 101 |

## 【구 급 사 례】

### 〈천안소방서〉

- 십자가에 박혀 주는 꿈 ..... 강길준 / 107
- 어느 졸업식 날의 사고 ..... 정해근 / 110
- 지금 아기가 나와요 ..... 김인기 / 113
- 첫 경 험 ..... 도수의 / 117
- 이제 어떻게 해요 ..... 김명희 / 120
- 개천사 가는 길 ..... 윤홍선 / 122
- 두번째 만남 ..... 강길준 / 124
- 외로운 노년 ..... 이상민 / 127
- 한평생의 집 ..... 강태풍 / 129

### 〈공주소방서〉

- 어린 코스모스를 닮은 지훈 ..... 김경희 / 131
- 삶은 소중한데 ..... 최정순 / 135
- 어느 팔순노모의 내리사랑 ..... 김청환 / 139
- 배워서 남주나 ..... 김청환 / 141
- 한순간의 실수 ..... 김주갑 / 144
- 헬멧만 착용했더라면 ..... 김주갑 / 147
- 산길을 넘으며 ..... 강용우 / 150

### 〈보령소방서〉

- 진정한 봉사와 희생 ..... 박태영 / 153
- 짧은 인연의 고마움 ..... 정영찬 / 155
- 폭우속 작은 용기 ..... 정영찬 / 158
- 농약가루를 뒤집어 쓴 아낙네 ..... 복정수 / 161
- 보람이와 구급차 ..... 이병호 / 163

- 장 애 인 ..... 나현규 / 166
- 아가의 첫 울음소리 ..... 방미홍 / 168

### 〈아산소방서〉

- 우리 이웃 ..... 이창현 / 170
- 사랑해! 난 괜찮아 ..... 김영식 / 172
- 부부의 정 ..... 김선학 / 174
- 고마버요 ..... 김영식 / 176
- 아빠! 눈감으면 안돼 ..... 조영선 / 179
- 엄마의 의무 ..... 이상운 / 182
- 내 한입만 덜어도 ..... 김연실 / 185

### 〈서산소방서〉

- 붉은 하천 ..... 박철수 / 187
- 우리 어머니 ..... 이현무 / 189
- 짧은 만남 ..... 이찬수 / 191
- 미 소 ..... 박명숙 / 196
- 어떤 부부 ..... 이구용 / 199
- 죽음을 부른 음주운전 ..... 이상진 / 201
- 어린이날의 어른 ..... 한준우 / 203

### 〈논산소방서〉

- 아! 내 새끼손가락 ..... 원수자 / 205
- 술맛이 왜 이러지 ..... 안성규 / 208
- 심폐소생술의 위력 ..... 김성태 / 210
- 광란의 질주 ..... 김종현 / 213
- 소리없는 공포 ..... 이준표 / 216
- 영화속의 음독환자 ..... 박연호 / 218

## 【수혜자 감사편지】

-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 연 옥 / 223
- 119 구급대원분들께 ..... 이순옥 / 225
-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느껴지는 오빠, 언니께 ..... 경 미 / 227
-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119아저씨께 ..... 이경순 / 229
- 언제나 애쓰시는 구급대 모든 분께 ..... 임숙자 / 231
- 충청남도지사님께 ..... 한귀석 / 233
- 소방본부장님께 ..... 박병호 / 235
- 보령소방서장님께 ..... 이정환 / 236
- 최반장님께 인사드립니다 ..... 이만호 / 238
-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고지하 ..... 충청남도지사 / 240

긴급구조 **119**

## 구조사례모음





# 새해의 슬픔

천 안 소 방 서  
박 창 순

올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7. 1. 23. 14:51분경 천안시 안서동 단국대앞 저수지에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얼음치기도중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했다.

잠수기구등 수난구조장비를 신속히 구조차량에 적재하고 6~7분만에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수지 가운데에서는 얼음낚시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었다. 우리 구조대원들은 차를 세우고 신속히 얼음위에 구조장비를 가지고 사고지점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가운데 얼음이 얼지 않은 곳에 끈으로 어린아이의 옷을 매달아 잡고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물에 빠진지 십분도 채 안됐고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낚시꾼의 말에 실낱같은 희망에 허리에 로프를 잡아매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다음 물속으로 뛰어 들어 얼음밑에 걸려 있는 어린이를 들어올려 구조한 후 직할파출소 구급간호사와 곧바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금방이라도 숨이 터져 나올 것 같은 희망과 기대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원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솟아났다. 곧바로 119구급차로 인근병원으로 옮겨 응급실 전문의들과 구조구급

대원들의 1시간여의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사고 어린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사무실에 귀서후에도 원종일 내내 뒤숭숭한 하루가 가고 또 갔지만 자꾸만 그때의 아쉬움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끝내 살려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리라.

정축년 새해가 밝았다. 소의 해다.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는 우리 소방인, 구조·구급대원의 참모습의 자화상을 연상시켜 본다.

# 황소가 날뛰고 있어요!

천 안 소 방 서  
박 광 석

천안시 신방동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서정의(남, 40세)씨는 관내 정육점 등에 비육우를 주문 판매해 오던 중, '97. 12. 12. 시내의 강원정육점등에서 500~600kg정도의 비육우 2마리를 납품요청을 받고, 09:10경 천안시 구성동 소재의 교차로 주변의 가축계근소에서 계근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대형유조차량의 성급한 경음기 소리에 놀란 황소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계근대 기둥에 묶어두었던 고삐가 끊어져 주변의 교차로로 뛰쳐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차로로 뛰쳐나간 황소는 신호를 받고 통행하는 차량과 경음기 소리에 놀라 차량행렬의 사이 사이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좌충우돌 정신없이 날뛰는데..., 더욱이 눈까지 많이 내려 500~600kg정도의 육중한 황소가 이리 미끌, 저리 미끌, 지나 다니는 차량조차도 황소를 피해가기 급급하고...

이를 보다 못한 주민의 안종현씨가 119상황실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의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교차로 주변의 건축자재를 쌓아둔 공터로 황소를 몰아 포획하기로 결정한 후, 교차로상의 주변도로를 포위하여 극도로 흥분한 황소물이 작전에 돌입하여 통행하는 차량 사이사이로 숨박꼭질 도중

지나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승용차문짝등을 부순 후(승용차 운전자 아주머니는 황소가 포획된 뒤에도 한동안 차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정도로 잔뜩 겁에 질려 있었음) 간신히 공터로 황소를 몰아 넣는데 성공하였으나, 문제는 황소가 포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흥분된 상태로 황소 앞에 보이는 물체를 보면 받으려고 달려들고…,

구조대원들은 하강용 로프를 두겹으로 접어 소주인과 합동으로 로프를 소뿔에 걸기로 한 후, 건축자재 사이로 황소를 몰아 넣어 수차례 로프걸기를 시도하여 뿔에 로프를 거는데 성공하였으나, 로프를 주변의 철구조물에 묶는 과정에서 소주인 서정 의씨와 구조대원들이 흥분한 황소에 받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황소가 지친틈을 타 소차에 싣는데 성공하였으나, 구조대원들 또한 황소에 받친 휴유증으로 한동안 파스 신세를 져야만 했다.

# 최고 많이 취한 사람이 어른?

천 안 소 방 서  
이 영 식

경기도 ○○축협에 근무하는 박종호씨(남, 40세)는 직장상사 김계장과 축협 조합원인 천안시 성남면 소재의 이건설(남, 43세)씨가 신청한 양계장 자동먹이 공급장치(벌크) 설치건과 관련하여 건설씨가 운영하는 양계장 현지 조사차 천안시 성남면에 내려와 관련 업무를 마치고 셋이서 15:00경 점심식사 도중에 약간의 반주를 곁들였고, 건설씨는 오랜만에 만난 이들에게 식사후 자리를 옮겨 2차를 권했고 술이 약한 박종호씨는 두번째 술자리에서 만취되어 18:00경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천안시 안서동 소재의 건설씨가 평소에 단골로 다니는 찻집에 들러 술도 께끔 차를 마시고 귀가하기로 하였는데……,

찻집에서 차를 주문해 놓고 만취한 박종호씨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찻집에서 나간지 한시간이 자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이를 궁금히 여긴 건설씨가 찻집화장실로 종호씨를 찾아갔는데 화장실 문은 안으로 잠겨 있고 내부에 인기척이 없어 문틈으로 화장실 내부를 확인 안에 불이 꺼져 있는데 박종호씨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 곧바로 찻집 주인 윤현섭(남, 32세)에게 알리고, 119상황실에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닌가하여 신고한다”고 하였다.

한편 찻집주인은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화장실 문을 열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도끼 등을 이용 화장실문 잠금 장치를 부수었는데도 열리지 않고, 부서진 잠금 장치 구멍으로 내부를 확인한 바 손님이 화장실 양변기에 웅크리고 앉아 미동도 않고 있어 진짜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았나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즈음,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찻집 주인에게 화장실 문 구조가 주잠금장치 외에도 안쪽으로 한옥 대문의 잠금 장치 식으로 보조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동력절단기를 이용 부서진 문틈 사이로 보조잠금장치를 절단하여 화장실 문을 개방하고 양변기에 웅크리고 있는 박종호씨의 의식을 확인한 바,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구조대원이 흔들어 깨워 밖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아 직장 상사인 김계장에게 많은 꾸중을 듣고 “창피해서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종호씨를 구조대원들이 “술자리에 서는 그날 최고 많이 취한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달래어 찻집으로 데리고 가 커피 한잔씩 마시면서 상사에게 심한 꾸중을 들어 기가 죽어 있는 종호씨를 위로해 준 뒤 일행에게 인계하였다.

# 옥수수 밭의 비명

천 안 소 방 서

김 형 섭

올 여름은 무더운 여름이었다기 보다는 계속적인 폭우 및 비로 인해 눅눅하고, 칙칙하고, 때론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아까운 생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다준 이 비피해로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분통하고, 어이가 없어 멍하니 고개만 들어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탄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고개 숙여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구조에 나섰던 119구조구급대원들에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한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그 투지와 사명감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동료대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눅눅하고, 습하고, 더운 날씨는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 가을이 성큼 우리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98. 8. 26일 18:25분경 상황실로부터 안서동 ○○대병원으로 가서 의료진과 동승해서(직산면 양당리 저수지앞 옥수수밭에 옥수수대 분쇄기 기계에 사람 손이 말려 들어간 사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신속하게 출동하였다.

우리가 도착하기전 우리 119구조대와 구급차는 1차 도착해

서 구조 중이었고 의료진과 우리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구조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었다.

도착해서보니 왼쪽 팔이 옥수수대 분쇄기 칼날에 말려 들어가 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지친 모습이었고 비참해 보였다.

우리 구조대원과 구급대원, 주위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해체해 팔을 빼내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은 기계를 분리해서 구조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았지만 기계가 견고하고 워낙 단단해서 분리를 해서 해체를 한다는 것이 무리였다.

환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의료진이 진통제를 놓았지만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서둘러 구조를 해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우리구조대원, 구급대원, 주위 분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옥수수대 분쇄기 기계를 수동으로 역회전해서 구조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 구조대원과 주위 분들이 기계를 역회전으로 돌려서 끼어있던 팔이 빠져 나와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빠져 나온 팔을 보니까 팔목부분이 잘려졌고 팔목 윗부분도 심하게 손상을 입어 있었다.

우리 구급대원은 신속히 응급드레싱과 압박붕대, 거즈, 부목, 분리형들것을 이용 구급차에 안전하게 옮겼다.

구급대가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잘려 나간 손목부분과 손가락을 주민들이 기계에서 꺼내 황급히 저희들에게 달려오셨다.

약 2시간만에 구조해 가져온 손목 절단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의 손상을 줄이려고 신속하게 ○○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하지만 전문의료진과 우리 구조·구급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자는 영영 왼팔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119구급대원으로서 허탈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무실로 귀서 해서도 조금은 안타깝고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혼자 되뇌었다.

# 어느 빛나간 사랑

천 안 소 방 서  
이 덕 용

성탄절('97)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것을 축복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크리스마스 오후.

이 땅에 평화만이 공존하길 간절하게 기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출동대기하고 있을 때 다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임을 감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 직산면 수혈리 철도건널목 인근 도로상 교통사고 구조·구급 출동 소식에 우리 대원들은 신속한 동작으로 각 차량에 분승하여 출동 도중 하늘을 우러러보니 이 복된 날에 교통사고를 입은 요구조자를 떠올리며 이름지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진한 아쉬움이 생성됨은 어떤 이유인지 채 알기도 전에 현장에 도착.

곧바로 현장 상황을 직시한바 충남 34다 40XX 슈마 승용차가 전담 수로에 앞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탑승자 2명이 있음을 파악하고 신속한 동작으로 운전석 앞문을 개방하고 운전석에 있는 탑승자 임은영(여, 25)의 상태를 확인한바 외관상으로 특별한 징후가 없음을 알고 조심스런 행동으로 요구조자를 차 밖으로 탈출시키고 뒷자석의 요구조자인 임은영의 자당(김근

예, 56)을 확인한바 깨어진 차창파편 등으로 둘러 쌓여진 모양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경추 및 척추 손상이 의심되기에 경추 및 척추보호대를 대원들과 함께 착용시키고 사고 충격으로 뒷문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유압스프레다를 이용하여 개방시킴은 물론 승용차가 기울어져 있어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록카차를 이용 평지로 이동시켜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인근에 위치해 있는 구급차에 탑승시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시킴은 당연지사이고 현장 상황은 함께 작업하였던 경찰에게 인계하였다.

홍분된 사고 처리의 감각에서 벗어나 침착하고 차분한 평상시 마음으로 되돌아와 구급활동 일지를 작성하기 이전 교통사고 경유의 인지가 필요함을 느끼고 당시의 절박했던 순간들을 정리하면,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인 박종문(남, 28)과 임은영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어머니를 모시고 성탄절 미사를 끝마치고 천안시에 소재한 모 백화점에 들러 각종 선물꾸러미등을 구입하여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치레를 하기 위해 가는 도중 상기 장소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서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뒤따라오던 트럭(음주운전 추정)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아직도 씩씩레한 여운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손치면 아마도 특수상황에서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세태를 보는 것이었으리라.

우리 구조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었으면서도 특히, 운전자 본인은 용이하게 탈출이 가능했으면서 성혼까지 맹세했던 조수석쪽 탑승자인 약혼자의 자태가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구출해 주겠지 하는 의타심으로 수수방관 하였던 게 아니었나 생각되기에 더욱더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역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환자이기에 2차적 부상을 염려해서 그대로 방치하였던 까닭이었다고,

그러한 이유 같지 않는 이유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임은 최소한 아픈 부위라도 묶는 게 인지상정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차밖으로 유도라도 해야함이 당연시될텐데 우리 구조구급 대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구조장비없이 차 앞문을 개방하고 구조했던 기억을 반추해보니까 말이다.

사랑!

애뜻한 참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명명할텐데, 하물며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사랑이 이럴진대 그저 평범한 범인들의 풋사랑은 과연 무엇으로 이름 지을는지,

굳건한 믿음으로 뭉쳐진 종교인들의 아가페적 사랑!

서로간 신뢰의 구축을 통한 사랑의 보금자리인 결혼!

# 조용한 아침의 외침

천 안 소 방 서  
주 영 규

토종목장을 운영하는 모관희(남, 61세)씨는 '98. 1. 31. 06:00경 천안 시내 자택에서 부인에게 목장의 가축(사슴, 흑염소 등)들에게 아침을 주고 오겠다고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 목장에 도착해 먹이를 준비하기 위해 급수펌프를 작동하였으나 수돗물(지하수)이 나오질 않아 예전에도 몇 번인가 펌프진공실에 물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걸 경험했던 모관희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무생각없이 펌프실에 기어들어가 펌프의 급수구에 왼쪽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손쉽게 들어갔던 손가락은 급수구에서 빠질줄을 몰랐고, 시간이 흐를수록 손가락은 점점 더 부어 올라 고통만 심해질 뿐…….

인적이 거의 없는 산자락의 목장 한귀퉁이 펌프실에서의 사고 당사자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였다.

휴대폰은 소지하고 있었으나, 목장지역이 난청지역이라 통화는 안되고, 유일한 희망은 목장앞 한공장의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연락하는 것 뿐이었다.

모관희씨는 경비실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치며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다.

추위와 아픔속에서 그의 일생에서 가장 길었던 3~4시간을 지내야했던 모관희씨는 극도의 불안감이 가중되는데……,

한편 시내의 자택에서 부인 정옥(여, 60세)씨는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평소보다 늦어지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서 평소 목장을 운영하며 공장앞을 지나 다니며 알게된 공장경비실 직원 김규석씨에게 전화를 걸어 목장에 간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김규석씨 또한 이른 새벽에 모관희씨가 경비실앞에 모관희씨 소유의 화물봉고차량을 주차 시켜놓고 목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평소 보다 너무 늦게까지 안나오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고, 목장에 직접 가서 비닐하우스내 보온덮개로 둘러쳐진 펌프실에서의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119상황실에 신고를 한 후 모관희씨 부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119구조대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요구조자의 상태를 확인한 바, 요구조자는 취위에 떨어져 몹시 지쳐 있었지만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펌프의 구조를 상세히 구조대원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구조대원 1명이 개인 작업공구를 휴대하고 펌프실에 기어 들어가 펌프 진공실을 해체하여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 담요등으로 보온 조치후 세제를 이용 손가락을 빼낸 후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 여부를 물었으나 본인 및 가족들의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가 아닌지라 이송을 거부하였다.

이번 사고의 경우 가족들이 평소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기에

큰불행으로 이어질 뻔 했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후 안부전화로 사고 후의 근황을 물었더니, 사고 당시에는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 같아 병원에 안가도 될 것 같았으나,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서인지 사고 부위가 날씨가 흐리면 통증과 함께 너무 시려워 한의원에서 며칠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 더이상 들어가면 안돼요!

천 안 소 방 서  
임 철 수

'97. 3. 24 13:50분경. 오후의 따스한 햇볕아래 1/4분기 장비검열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출동지령이 청내에 울려 퍼졌다. “북면 ○○산업 위험물 탱크 1명 추락사고, 구조대출동!” 우리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장비를 차량에 적재하고 출동하며 일전 지하정화조 추락사고시 맨홀구조기구와 전신보호용 들것을 이용 구조한 사례를 떠올리며, 대원들과 현장 상황 대처방안을 논의하며 신계리 검문소에 이르렀을 즈음, 상황실 김인태 반장의 사고 현장과 유선으로 누구도 탱크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 관계자 2명이 더 들어가 이들마저 쓰러져 있다는 다급한 연락을 다시 받았다.

우리대원들은 아연 긴장되었고 구조방법도 질식된 요구조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했다.

우선 대원 2명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개인로프를 이용 2점고정매듭을 만들어 사고 현장에 도착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고 현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먼저 와 있던 고속도로 119구급차량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사고 현장 도착 즉시 2층 구조물 위에 탱크 상부에 올라가 진입구에 랜턴으로 탱크 내부를 살펴보니 탱크 내부의 좁은 공

간에(폭2M, 높이 3M) 3명이 포개져 엮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대원을 탱크 내부로 진입, 맨 위의 요구조자를 개인로프로 결착(최초 요구조자 의식 확인)하여 구조대원과 공장직원들이 힘을 모아 끌어올렸다. 같은 방법으로 모두 구조하는 한편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산소소생기 등을 이용 응급처치를 시도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을 실시하였다.

사고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수로 탱크 내에 추락한 것으로 진술을 하였지만, 구조 당시의 정황으로 볼때, 맨 마지막 요구조자의 구조 당시 모습은 탱크 맨 밑바닥 탱크모서리에 웅크린 채로 빗자루등 청소기구를 움켜진 채로 엮어져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청소를 하려고 내려간 흔적이 역력하였다.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3분 정도 걸렸지만, 긴장됐던 순간은 시간을 초월하고도 남았다. 애석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

항상 구조활동에 임하면서 완벽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또 사고 현장을 보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내 뇌리에서 한참동안 머물렀다.

# 두잔만 드시지.....

공 구 소 방 서  
최 강 열

신록의 푸르름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97년 4월의 어느날, 살랑거리는 바람은 완숙해진 봄내음을 한껏 풍기며 여름이 빨리 오기를 재촉하는 듯 했다. 아늑한 날씨 만큼이나 사고없는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급차를 둘러보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습관이 들어서인지 자정이 가까워지자 배속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고 직원들과 야식으로 찬밥을 볶아 먹자고 의견 일치를 한 후 막 주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때 요란하게 119벨이 울리는 것이었다. 직원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직감대로 교통사고였고 더구나 구조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었다. 서둘러 구급차에 올라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연기군 남면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들어오는 커브길이었다. 도로 우측 공터에 못미쳐 세워둔 덤프트럭 뒷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가 과감하게도 받아 버린 사고였다. 승용차에는 요구조자가 2명이나 있는 상황이었다. 출동한 경찰관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 어쩔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상태였다. 현장의 상황을 살핀 후 요구조자를 안심시킨 후 유압스프레다를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짝을 개방하면서 구조 작업은 점차 활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요구조자 1  
명은 우측 다리  
에 심한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의식을 확인  
후 드레싱을 하  
고 에어부목으  
로 고정시킨 후  
구급차로 이송  
하였고, 다시



또 한명의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처음 요  
구조자와는 달리 차안에 걸린 몸이 좀처럼 쉽사리 빠져나올 생각  
을 하지 않았다. 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있고, 의식이 희미했다.  
대원들의 마음은 조급해져 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가능하면  
빨리 구조되어야 환자에게 보다 더 나은 건데……,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했다. 이미 나와 대원들의 몸은 피투성  
이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2차 손상 방지를 머리속에 되뇌이며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에어부목으로 고정시키며 지혈을 하면서  
병원으로 구급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야간의 늦은 시간이라 구  
급차에 장착된 핸드폰으로 당직병원으로 의사를 대기시킬것을  
요청하면서 구급차의 질주는 계속되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  
자 들것을 뺄 겨를도 없이 의사의 응급처치가 시작되었고 X-  
ray촬영이 시작되었다. 잠시후 의사의 말에 의하면 먼저 구조  
한 환자는 우측다리 골절만 있고 뒤에 구조한 환자는 안면부  
열상이 심하고 흉골이 골절되었으며 척추에도 큰 손상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것 같다고 했다.

의사가 경찰관에게 혈액채취 여부를 묻자 경찰관은 다행이라면서 치료나 잘하라고 하면서 돌아설 때였다. 이때 환자 한명이 의식이 돌아오자 의사는 환자를 향해 물었다. “아저씨, 술 드셨죠? 얼마나 드셨어요?” 환자는 경찰관이 없는 줄 알았는지 너무도 당당한 자세로 “세잔 밖에 안먹었어요”라고 말하는데 돌아서던 경찰관이 “선생님 혈액 채취해 주세요”하는 것이었다. 당당하게 말하던 환자의 태도는 너무도 실망이었다. 생각보다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자신의 음주운전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었고, 그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일처럼 현장에서 애써 주시던 사람들의 수고가 조금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두잔만 드셨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뭐 하러 세잔씩이나 드셨어요?”하며 빈정대는 의사의 말소리를 귓전으로 흘리며 대원들은 병원을 나섰다. 입가에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그 아저씨 그 사고로 그정도 밖에 안 다쳤으면 천운인데 운이 끝까지 안 따라 주는 구만, 조금만 있다 깨어나도 음주운전 탄로 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루에도 몇십건씩 교통사고 현장을 나가보지만 그때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여러번 보곤한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음주운전이란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살인적 행위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언제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 늑대와 양치기 소년

공주소방서  
이성구

엘리뇨의 영향으로 때늦은 장마가 전국을 강타한 올 여름 우리 파출소 관내 여러 지역도 수마의 피해에 안전하지도 못했다. 휴가 기분을 내기도 전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이 시간이면 항상 어린이들의 장난 전화가 심하게 올때라 별 긴장감 없이 119전화를 수보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들의 장난 전화였다. 네번, 다섯번…… 방학기간중이라 그런지 부쩍 늘은 장난 전화와 계속되는 장마는 직원들을 짜증으로 몰고가고 있었다. 잠시후 또 울리는 벨소리에 짜증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도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너 이녀석, 자꾸 장난 전화 하면 혼난다.”하고 겁을 주고 있으려니, “아저씨 이거 장난 전화 아니예요. 아이가 방죽에 빠졌어요”하면서 울먹이는 것이었다. 그래도 직원의 의심이 풀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위치와 장소를 묻다보니 상황은 심각한 상태인것 같았다. 출동지령을 시킨후 다시 한번 장난 전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해보았더니 이번은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 익수사고였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요구조자가 어린아이라 1초를 다투는 촉박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현장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하나의 위안이였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제 겨우 서너살 정도 밖에 안되보이는 상협이가 방죽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었다. 즉시 구명의를 착용한 다음 구명환을 가지고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구조 작업은 의외로 쉽게 끝났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아이는 호흡, 맥박이 없었고 동공반사만이 희미하게 있을 뿐이었다.

곧바로 구조 호흡에 들어갔다. 평소 교육훈련을 통하여 익혀온 심폐소생술이었지만 막상 시도하려니 겁이 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은 이것저것 따질때가 아니었다. 병원에 도착할때까지 계속되는 구조 호흡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송도중 병원에 의사 대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도착하자마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 할 때까지 의식이 없는 상협이를 뒤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잠시후 병원으로 전화를 해보니 큰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할 뿐 상황은 도착 당시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다.

며칠이 지났을 까 상협이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환호를 질렀다. 상협이가 지금은 펄펄 뛰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선생님의 말이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가 상협이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다. 지겹게 내리던 비마저도 그날 따라 왜그렇게 이빠보이던지…….

그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찔하다. 만일 장난 전화라고 무시해 버렸다면, 아니 장난 전화의 가능성 때문에 조금만 더

늦게 출동했다라면 상협이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끔 119전화를 받다보면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누구라도 어려서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관한 동화책을 읽었거나 들은적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조금만이라도 되새겨 본다면 이번같이 위험 천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삼불봉에서의 산악구조

공주소방서  
강석진

'97. 8. 31. 09:20경 산악사고 구조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신고 내용은 계룡산 국립공원 삼불봉 근처 암벽에서 등산객이 실족으로 추락하여 심한 부상 상태로 구조 요청이었다. 우선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구조 공작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산악 지형에서 기동력이 우수한 무쏘자동차를 이용하기로 하고, 산악구조장비를 신속히 옮겨 신고 출동하였다.

출동중 상황실을 통하여 신고자의 휴대폰 번호를 접하고 즉시 통화를 시도하여 정확한 사고지점을 재 파악하는 등 현재의 환자 상태 및 현장 상황 파악하여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등을 부탁하고 곧바로 출동 차량의 기동력을 발휘하여 신흥암에 도착하였다.



들것 및 기타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신속히 사고 지점에 도착한 바 요구조자 박창수(남, 33세)가 15m 암벽 위에서 실족 추

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귀에서 피가 흐르는 등 오른쪽 팔이 골절된 상태로 주위의 등산객들이 나뭇가지 및 손수건으로 임시로 부목조치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에 대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즉시 머리부상 부위를 응급처치 하는 등 오른쪽팔 골절부위를 다시 확실하게 응급처치 실시한 후 산악용 들것에 요구조자를 편하게 눕혀 고정하고 주위 등산객과 국립공원내 감사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금잔디고개로 이동 도중 간호사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 상황실에 연락 즉시 금잔디고개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고 금잔디고개에 도착하는 순간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가 도착하여 요구조자 박창수를 헬기에 탑승시키고 헬기 기장으로부터 구조, 구급대원 2명이 환자와 동승 요청이 있어 동승하고 계룡산을 출발하여 대전 ○○병원으로 이송 중 기내에서 휴대폰을 이용 상황실로 헬기 착륙 즉시 구급차 대기 요청을 하고 헬기가 ○○의대 부속병원 운동장에 착륙하자 대전 서부소방서 문화파출소 구급대가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어 12:40경 환자 박창수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실로 이송 함으로써 장장 3시간 20여분의 산악 구조활동을 마칠수가 있었다.

대원들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힘든 구조활동이었지만 보람 또한 매우 컸다. 주변 등산객들 감사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구조활동 이어서인지 아직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정은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

공 주 소 방 서  
강 석 진

'98. 4. 8. 19:40분경 공주시 금성동 백제유물 발굴현장 야산 부근에서 20대 청년이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출동 지령을 받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차량에 몸을 실었다.

해는 벌써 등뒤로 가리워져 어둠을 드리우고 있었다.

신고지점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여서 빨리 사고자를 찾아 응급처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산 밑은 칠흑같은 어둠으로 대위들의 바쁜 발길을 잡았고,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땅이 매우 질어 사고자를 수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차량 조명탑을 가동하여 현장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손전등을 휴대하고 2개조로 편성하여 분산 수색을 실시하였다. 마을 뒷산 이지만 어둠속에서 사고자를 찾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 10여분을 수색해도 별 성과가 없자 우리 대원들은 다급한 나머지 초조해지기까지 했다. 마침 신고자의 휴대폰이 생각이나 직접 통화를 시도하였다. 신고자와 통화가 되어 정확한 위치를 청취하면서 찾은곳은 바로 옆 절벽이었다. 조명등을 비춰보니 30m 절벽아래 나뭇가지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굴러 떨어지면서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렸던 것이 아닌가. 불행중 다행이었다. 함께 있던 친구는 사고자에게 먼저 접근해 있는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로프를 이용하여 사고자에게 접근한 바 음주후 음독을 한 상태여서 의식이 혼미하고,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많은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주변에 음독물을 발견하고 보니 농약으로 확인되어 병원으로의 이송이 시급한 상태였다. 사고자를 절벽 위로 끌어 올리고 간호사가 위세척을 시도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였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는 돌이키지도 못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숨가뻐던 시간을 뒤로한 채 귀서하면서 우리들 모두는 한결같이 그 청년이 잘 회복이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 후 일주일의 지나고 그 청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공주의료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천안의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병원에서 마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더욱이 가슴 아픈 사실은 집안이 가난하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기에 퇴원시켜 의사가 내려준 처방대로 현재는 어머니가 간호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기적적으로 사고자는 회복이 되었고 정상인으로써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본인과 병원 관계자들도 포기했던 생명이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으로 기적적으로 소생한 것이다. 우리 대원들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뻐하고 사고자와 그의 친구는 수줍은 얼굴로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런저런 그때의 일을 되새기며 다시 태어난 듯한 청년은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야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으며, 새로운 삶

의 의욕과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는 각오를 들으면서 우리 대원 모두는 마음이 뿌듯하였다.

자살의 동기는 단순하였다. 고등학교 졸업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허망감, 좌절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증오가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까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쉬운 자살 결행 등이 요즘 젊은이들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 경제난과 함께 구직은 어려워지고 실업자만 늘어만 가고있는 요즘 현실에 이번 사고를 사회가 만들지 않았나 싶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의 어깨에서 아직도 근심과 무거운 짐이 메어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 겨울철 눈길산행의 아픔

공 주소 방 서  
조 희 광

'98. 2. 7. 12:35분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황에 산악사고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점심 식사후 약간의 식곤증으로 나른한 상태여서 짜증도 났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을 요구조자를 생각하니 구조대원의 사명감이 온몸에 살아남을 느꼈다. 신고 내용은 등산객이 산행 부주의로 계룡산국립공원 관음봉과 산불봉사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발목이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구조 요청을 한것이였다.

구조대원은 구조공작차로 신속히 출동하여 국립공원내 갑사까지 출동후 더이상 구조공작차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산악용들것(UT-2000), 카라비너, 로프, 피켓, 아이젠, 등 구조에 필요한 산악 장비를 휴대하고 민간 차량의 협조를 얻어 신흥암까지 이동하여 아이젠을 착용하고 사고 지점까지 이동하였다.

사고 지점까지 이동하는 도중의 등산로는 눈길 및 빙판길로 이어져서 이동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현장에 도착해서 요구조자 상황을 보니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함께 산행을 온 동료들이 임시 응급처치 및 보온조치를 한 상황이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재 실시하여 환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하고 보온조치를 실시한 후 산악용 들것에 옮겨 벨트로 고정 후 금잔디 고개까지 이송하였다. 헬기 지원요청을 실시하였으나 날씨 관계로 지원 불가능하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눈길빙판으로 인해 이송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환자의 안전상태를 고려하여

천천히 이동하여 구급차량이 대기중인 신흥암까지 이동하였다.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로 이송케 한 후 3시간 10분여간의 산악구조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산악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요구조자 김창훈(남, 28세)이 등산화가 아닌 단화를 착용하고 아이젠을 한쪽 신발에만 착용한채 등산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겨울철 등산을 할때는 아이젠 및 등산장비를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하여 등산을 실시하고, 특히 눈길 및 빙판길의 산악은 결빙이 녹지 않은 곳의 등산로가 많으므로 잘 고려하여 겨울 산행을 실시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구조대원들은 빙판길 및 눈길로 인해 힘든 구조작업이었지만, 119구조대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구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 여름이 앓아간 소녀

공 주 소 방 서  
조 회 광

7월 12일 13시 35분경, 7월의 무더위가 시작됨에 사람들이 물을 찾아 냇가나 바닷가를 찾아 피서를 할 무렵이었다. 더군다나 이날은 일요일이라 주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더욱 물가로 피서를 많이 떠났을 것이다. 사건 발생장소는 공주시 상왕동 상왕천이었다. 익수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날은 주말이라 근접대기 근무를 나가 있었고, 1명의 구조대원은 출장을 나가 있어서 4명의 구조대원 중에 2명의 구조대원이 사건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입장이었다.

다행한 것은 근접대기 근무를 서기 위해 통천포 유원지에 도착할 무렵에 통천포 유원지로 유선연락이 와서 나와 교통과출소 직원은 바로 수난장비 보트를 실은 차량을 돌려 사건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먼저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수색작업을 하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인근에 피서를 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익수지점을 쳐다보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직원에게 익수지점과 인적사항을 간단히 파악한 후 잠수장비를 착용 후 익수자 수색작업을 실시하였다. 하천 수심은 그렇게 깊게 느껴

지지는 않았다. 다행히 시야가 확보되어 수색을 실시하는데, 별로 문제점은 없었다.

익수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치는데,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익수자가 바로 눈 앞에서 나를 풀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살아 있기를 기원하면서 익수자를 안고 동료 구조대원과 함께 물 밖으로 익수자를 옮겼다.

대기중이던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변사람들과 우리 직원들 모두가 살아 있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하였으라는 우리의 바램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언제 도착했는지 가족들이 오열을 터트렸다. 지켜보는 우리들도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심폐소생술을 마친 후 구급차로 병원에 신속히 이송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여름이 한 목숨을 앗아갔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상왕천에서 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물놀이를 하던중 익사자가 동네 오빠한테 업혀서 건너편 바위로 접근하려던중 수심이 깊어짐에 등에 업고있던 익사자를 물 속에서 놓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학업에 열중한 나이에 이렇게 어이없이 생을 마감해야 하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물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이로움을 주지만 때론 이렇게 큰 아픔을 주기도 한다. 하천에서의 물놀이는 항상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깨우쳐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도 나의 머리 속에 생생히 남아 아쉬움과 함께 마음속에  
멤도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말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한다.



# 안 전 불 감 중

공 주 소 방 서  
이 종 철

평소와 같이 갑·을부 교대근무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중 요란한 119전화 벨소리와 동시 대원과 대화소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내 눈에 들어왔다.

구조출동!

장소는 전동면 노장리 철탑공사현장, 장소를 듣자마자 안전사고라는 것을 직감했다. 철탑공사 기초작업도중 깊이 5.5m 아래로 발을 잘못디더 추락한 사고라는 것을 무전기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추락과 동시에 착암기의 노미에 옆구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지령도 울려 퍼졌다.

출동하는 도중 착암기의 노미를 빼낼 경우 2차부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자와의 무선연락을 통해 요구조자를 빼내지 못하게 하고 안정을 시키라는 당부를 하면서 구급차는 마주오는 차들사이로 곡예 운전을 하면서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요구조자는 이미 밖으로 빠져 나와 있었으나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먼저 깊은 웅덩이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판단하고 들것과 로프, 구급함을 가지고 웅덩이로 진입해보니 환자의 장이 몸밖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멸균된 거즈로 밀폐한 다음 압박봉

대로 드레싱을 한 후 들것을 의자형식으로 고정한 후 요구조자를 로프를 이용해 지상으로 구조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외상과는 달리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지금은 퇴원 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대원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기쁜 한편으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삼풍사고가 그렇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등 무수한 사고들이 인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의 어설픈 안전장치는 더욱더 많은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을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무관심 한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4층에 사람이 있어요!

보령소방서  
정도령

'98. 1. 12. 13:40분경 출입문 개방 출동후 로프정리를 하고 구조활동일지를 작성중 다급한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왔다. 순각적으로 출동임을 직감한 우리 대원들은 다급히 구조차에 탑승하여 개인장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지령실의 출동지령을 받았다.

보령시 동대동소재 그린토마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평소 그 앞을 자주 지나던 터라 그 건물의 크기를 알 수 있었기에 우리 대원들은 혹여 요구조자가 있을 것 같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2층 건물에는 이미 화세가 거세게 일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시 상황파악에 나선 우리 대원들은 2층 또는 4층에 요구조자가 있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말을 들었고 대장님 지시하에 즉각 2개조로 편성하여 1조는 건물 계단을 통하여 진입, 2조는 굴절차를 이용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층의 화세가 거세어 진입이 어려웠기에 우선 2층에 굴절차 포관창 및 계단으로 가지고 간 일반관창을

이용 방수하여 화세를 어느정도 잡을수가 있었다.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 2층 내부로 진입한 우리는 인명검색을 하였으나 요구조자가 없었다. 각 층마다 수색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요구조자가 질식할 것을 고려한 대장님은 2조는 굴절차로 4층을 1조는 3층으로 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 1조는 다급히 3층으로 진입하여 가득찬 연기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며 수색하였으나 역시 없었다. 이 때 4층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2조 대원이 진입하기 위한 것임을 직감한 우리는 4층으로 이동하여 출입구에서 부터 수색에 들어갔다. 창문쪽에서 2조 대원들이 진입하는 것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각 방문과 의자밑 등을 수색한 우리 1조는 화장실쪽으로 이동, 문을 엮었고 그곳에서 의식없이 쓰러져 있는 1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태를 파악한 바, 의식이 없고 호흡도 멈춰있는 상황이었다.

즉시 보조마스크를 착용시키고 2인 운반법으로 그나마 연기가 적은 계단참으로 이동하여 즉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얼마후 요구조자가 약간의 호흡이 돌아왔다. 그때의 그 기분은 아마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는 알 수 없으리라.

잠시 후 구급대가 연기를 무릅쓰고 들 것을 가지고 올라왔고, 구급대를 도와 지상으로 요구조자를 운반, 구급차에 탑승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우리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마지막 인명검색을 마치고 나온 2조와 합세하여 화재를 완진후 귀대하였다.

비록 사람을 구하는 것이 직업이긴 하나, 그 어느 생명하나 소홀이 할 수 없음을 나는 이 곳에서 느꼈기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또한 구조대원이 되었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수리바위에서의 사투

보령소방서  
변경근

여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물가나 산 등을 찾아 피서를 떠난다. 나 역시 해수욕장으로 짐을 옮기고 그 곳에서 약 50여일 지낸다.

나는 한철이면 다른이들이 평생 떠날 피서를 지낸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어깨가 무거워 진다. 그건 피서가 아니라 119해변 구조대 구조요원이기에……

'98년도 8월초의 일이다.

몇일째 계속되는 비에 곳곳에서 물난리가나 우리대원들은 정신없이 출동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여군 외산면 수리바위에 피서객 20여명이 고립되었다는 지령을 받고 우리대원들은 즉시 출동을 하였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물살은 이미 거세어 질대로 거세어져 도저히 일반인들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대원들은 로프총을 발사하였으나 탄두가 요구조자가 있는 곳 까지는 날아가지 못하고 거센 물살속에서 떨어져 버렸다.

보유하고 있던 로프총 탄두가 다떨어지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도하를 시도하였다. 도하를 결심한 나는 로프를 허리에 감고 요구조자가 있는 곳에서 상류로 50M 더 위로 올라가 계곡을 가로질러 도하를 시작하였다.

계곡을 거의 건너가 약 2M정도를 남겨 놓고 물살의 흐름 때문에 계곡을 도하하지 못하고 밑으로 떠내려 오면서 허리에 묶은 로프는 점점 팽팽해지기 시작하였다. 로프가 팽팽해지는 순간 나는 로프를 놓으라고 소리쳤고 누군가 로프를 나무에 묶어 놓았는지 로프가 내몸무게와 물살의 흐름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았고 내허리는 끊어질 듯 조여왔으며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으며 발밑으로는 바위가 굴러가고 있을때 누군가 로프를 도끼로 끊었고 의식을 잃어가던 나는 다행히 물살에 의해 계곡가로 밀려나 왔으며 가까스로 우리구조대원에게 구조되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재 도하를 시도하여 무사히 도하 하였고 구조공작차의 견인 텍카와 하천 건너의 큰나무에 2차 고정로프를 설치하고 요구조자 20여명을 차례차례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유도로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나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했지만 이번 구조작업은 너무 위험했고 힘든작업이었다. 더욱이 불어난 물과 거센물살 또한 자신의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1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 구조되어 보람이 있었고 구조작업에 참여해준 동료대원들과 주민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토관 속의 90분

보령소방서  
이병호

'96년 3월 하순의 나른한 봄날 오후 긴장되는 119신고 전화에 “여기 광천읍 웅암리 양촌부락인데요. 사람이 토굴속에 있어요. 구해주세요.”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생가하기를 토굴속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장난하다가 다쳤구나 쉽게 생각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눈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특이한 사고를 접하게 된 것이다. 순간적인 당황함과 “어떻게 이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야 하나”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던 아득함이 공포처럼 밀려왔다.

철도레일이 지나는 뚝밀의 하수관 공사를 하던 인부가 약한 지반이 무너지면서 몸이 통채로 파묻혀 있고 바로 코밑까지 흙에 덮여있었으며 흙은 캄캄한 토관속 깊은 곳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좁디좁은 토관속은 손발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공포의 공간에서 어찌할바가 없었다. 계속 무너지는 흙속에 우리 구조대원도 같이 매몰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러나 계속 쏟아지고 있는 흙을 바라볼 수 만은 없는 공간에서 손가락이 헤지는 줄도 모른채 요구조자에 생명의 보루인

숨쉬는 기관만은 최소한도로 방어해야만 했다. 5cm만 더 흠으로 덮여도 요구조자의 생명은 끝나는 절박한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장비도 사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속에서 오직 손만으로 계속 머리만은 파묻히지 않게 계속 흠을 건어내야 하는 진전없는 일이 계속 되었고 밖에 있는 동료대원과 교대로 흠을 건어 내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런 와중에서 피가 얼어붙는 듯한 일이 생겼다. 기차가 멀리서 오고 있었다. 기차가 이곳을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무너져서 약해진 지반에 토관안에 있는 구조대원과 요구조자는 그대로 흠속에 매몰되어 최후를 마칠것이였다. 대원 한명이 런닝셔츠를 계속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었다.

기차가 사고지점 바로 앞에서 멈췄다. 위기 일발의 순간이였다.

철도역에 긴급히 연락하고 또 진전되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만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과감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철로뚝을 통채로 없애버리는 작업이였다. 즉시 중장비를 동원 요청하고 캄캄한 토관 안에서는 숨막히는 요구조자의 얼굴 보호 방어가 맨손으로 계속되였다. 위에서 “쿵쿵”하는 중장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계속된 작업속에 어둠의 공간에 한줄기 햇빛이 들어왔다. 이제 끝난 것이다. 기나간 90분이 끝난것이였다. 순간 맥이 풀리

면서 구조에 임했던 우리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흙을 맨손으로 파내면서 생긴 상처에서는 계속 출혈이 되고 있었고 쓰러린 통증이 계속 되어왔다.

구조에 임하면서는 왜 느끼지 못했을까……

그 쓰러린 손에 통증을…….



# 금류 속의 어린생명

보령소방서  
이병호

'95년 8월 24일 오전 당시에든 지금과 같은 폭우가 연일 계속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씁쓸한 빗줄기였다.

우리파출소 중심관내 광천읍 하천은 범람하여 읍민들의 생계 터전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천의 지류까지도 사람을 삼킬 정도의 거센물살이 요동치고 있었다. 전직원의 비상근무에 지하실 물퍼내기 등의 대민지원으로 눈코 뜰새 없는 사이에 사고는 어김없이 찾아들었다.

하천을 건너던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였으나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다. 포기해야될 상황인가? 그러나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저멀리 급류속에 까만점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것이 있었다. 주변에서 발을 구르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우리 구조대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같이 떠내려가던 나뭇가지나 여타의 집기류와는 잘 구별도 되지 않았는데 어린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구조대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든 것 같았다. 비장한 각오가 드는 순간이었다.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요구조자의 보일 듯 말듯한 머리는 점점 멀어져가고 물살은 사람을 금방이라고 집어 삼킬 듯이 사나웠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시점에서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했다.

대원 한명이 로프를 몸에 단단히 묶고 뛰어들었다.



그런데 급류 속에서 의도한대로 몸이 움직여주지를 않아 구조는 고사하고 구조대원마저 점점 위태로워져 갔다.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하는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보일 듯 말듯하던 요구조자의 머리와 가슴까지 수면위로 떠올랐고 손까지 허우적대고 있었다.

하천둑에서 로프를 조정하던 대원이 전속력으로 요구조자쪽으로 뛰면서 구명환을 던지기를 수십회, 드디어 어린이가 구명환을 움켜잡았다. 그 사이에 물속에 뛰어들었던 구조대원과 요구조자가 맞닥뜨리면서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된지 한참을 지난 뒤 건져올려진 두사람은 많은 물을 먹었고 탈진하여 빈사 상태였다. 또다른 문제의 시작이었다.

목숨을 담보로한 구조에서 가까스로 건져올려진 요구조자와 구조대원의 위태로움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고 전대원이 돌아가면서 인공호흡 등을 실시한 결과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고 두 번째 탄성이 주위에서 흘러나왔다.

지금은 그때일을 생각해보면 목숨을 담보로 뛰어들었던 구조대원의 살신성인의 정신과 주위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다은 것이라 생각한다. 실로 가능할 것 같지 않던 구조가 가능하게 된 그때의 일이 새삼스레 떠오르며 당시에 무사히 구조되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성복군은 오늘도 파출소앞을 등교하며 반갑게 인사한다. “119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쩌면 이세상에서 영원히 보지 못할뻔 했던 저 어린이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생각한다.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구했구나”라고.

# 벌집 제거작전

보령소방서  
정도령

'98년 9월 12일!

아직 가을이라 하기엔 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 오염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의 댓가일까?

아침부터 몸이 나른할 정도의 더위를 느끼며 우리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밀린 서류를 정리하느라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후 3시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커피를 나누던 우리에게 구조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집에 벌떼가 들어와 사람이 접근 못하고 있음”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접수한 우리대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구조장비중엔 벌을 제거할 만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대원들은 와! 하는 놀라움을 나타냈다.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 천장에 축구공 만한 벌집이 매달려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집주인 아저씨가 다가와 그 동안의 사정을 말했다.

“벌써 한달째 저 벌때문에 우리 식구 모두가 벌에 쏘이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좀 해주셔유”



아저씨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니 무슨 방법으로든 저 벌집을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방법을 상의한 끝에 방열복을 착용하고 삼을 이용 벌집을 천장에서 떼어 낸 뒤 포대에 담아 소각하기로 하였다.

방열복을 착용하고 벌집에 접근한 대원들은 삼을 이용 천장의 벌집을 떨어뜨리려 시도하였으나 예상 밖으로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화가난 벌떼가 사정없이 우리에게 달려 붙어 쏘기 시작했다. 다행히 벌의 침이 방열복을 뚫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벌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기를 20여분 드디어 벌집을 제거하고 포대에 담은 우리는 의기양양하여 집밖으로 나와 땀에 젖은 방열복을 벗었다.

그러나 방열복 틈에 끼어있던 벌 2마리가 나의 손목에 복수의 침을 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황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였지만 수고하셨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대원들은 보람을 느꼈다.

우리는 마무리 작업으로 벌집을 태우고 남아있던 벌들에게 살충제를 뿌려 제거하였다. 돌아오는 중에 병원에 들러 주사를 맞고 약을 받은 나는 걱정하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직업이 정말 천성에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그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중 조그마한 자리에 나의 이름이 올라있음을 감사히 느끼며 오늘도 우리는 또다른 출동을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 지하탱크속의 사투

보령소방서  
나재무

'96. 8. 20일 하늘은 구름한점 없이 쾌청한 날씨였다. 햇별은 막바지 열이라도 다 발산하고 싶은양 아침부터 이글거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즈음 119수보전화의 벨이 오늘 따라 요란스럽게 울린다.

여보세요? 거기 119조 환자가 있는데 빨리좀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였다.

구급차가 출동하고 평소처럼 별일이 없이 환자를 병원에 이송후 귀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다.

마을간이 상수도시설 탱그내에 가스가 차있고 청소하던 두명의 주민이 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져 있다는 내용과 공기호흡기 및 구조대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사고를 접보한 즉시 파출소장의 진압요원 4명이 소방차량을 이용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출동중 불길한 생각에 머리를 가로저으며 현장에 도착하니 오랫동안 방치해오던 마을간이상수도 탱크 지하5미터지점에 청소하러 들어갔던 주민 두명이 알수 없는 가스에 질식되어 물위에 쓰러져 있었다.

우리는 현장도착과 동시에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아 공기호흡기를 장착한 소방사 황석연과 소방사 이정훈 두 대원이 간이상

수도 지하탱크 속으로 투입되었고 밖에서는 로프를 이용하여 공기 호흡기 예비용기를 세 개씩 묶어 탱크내의 가스를 희석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가슴이 조이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탱크 밑으로 내려보냈던 로프에 요구조자의 구조신호가 온것이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 온몸이 축늘어져 있고 의식과 호흡을 감지할 수 없는 주민 한명이 물탱크 밖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을 때 또한명의 주민이 구조되어 올라왔다.

신속하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후 구급차로 옮겨 인근 병원으로 이송후 담당의사가 혼신의 힘을 다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였으나 두명의 요구조자는 끝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가족들의 통곡소리와 슬픔에 잠겨 목놓아 우는 자녀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최선을 다한 구조활동에서 생명을 되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귀소하는 길은 못내 아쉬움이 남아 어느 누구도 말이 없었다.

# 119가 이런것도 허나!

보령소방서  
정도령

'98년 6월 24일 출근후 이젠 낯설지 않은 구조복을 갈아입고 장비점검을 막마친 나에게 구조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오천면 소성리 마을 독거노인 집에 나무제거차 출동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대원들은 체인톱 및 로프를 준비하여 즉시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허름한 집에 노인 3명이 함께 모여 사는것을 마을 주민들이 돌봐주고 있었는데 집뒤의 100년생 느티나무와 아카시아 나무가 지반 침하로 자꾸만 집위로 기운다는 것이었다. 곧 여름장마도 다가오고하여 마을 청년들이 걱정하던 끝에 119로 전화하여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이미 나무가 집 위로 많이 기울은 상태여서 우리 대원들도 고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참 의견을 나누던 우리는 노인 3명을 피신시킨 뒤 굴절차를 이용

위에서부터 잘라내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길이 좁아 굴절차 진입도 무려 30분이나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굴절차를 진입시키고 탑에 탑승하여 위에서부터 조금씩 절단하는 작업으로 어느 정도는 잘랐으나 문제는 밀둥치였다.

우리 대원의 힘만으로는 어찌할수 없음을 느낄 때 마을 청년들이 톱과 줄을 챙겨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10여명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밀둥치와 중간 부분에 로프를 연결하였고 밀둥치를 자를 동안 마을 청년들은 줄을 잡아당겨 집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여 나무 두구루를 절단할 수 있었다.

4시간여의 작업이 끝났을 때 마을 이장이 고생하셨다며 음료수를 권하며 이런말을 했다.

“119가 이런일도 할줄은 몰랐었네. 맨날 TV에서 보았을 때는 멀리있는 남의 일갔더니 격고본게 아니구먼”

우리는 그 말을 들으니 피곤함도 잊을 정도의 가슴뿌듯함을 느낄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도왔다는 것의 보람이기보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서 느끼는 따뜻한 인간미 때문이었다.

다른 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걱정하며 해결하려는 그분들의 따뜻함에 조금 이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보람을 느낀것이다.

장비를 정리하고 구조차에 탑승한 우리에게 독거노인들과 마을 청년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 할머니와 아이들

아 산 소 방 서  
조 은 호

1997년 11월 27일 2시 10분경, 출동을 알리는 벨 소리가 나의 컷전을 울린다.

“화재출동”

“화재출동”

“아산시 모종동 청아단란주점”

“화재출동”

소방서에서 1km정도 떨어진 위치와 유흥음식점이라는 생각을 하니 약간 긴장은 되었지만 다른 동료대원들과 함께 흔들리는 차안에서 침착하고 일사불란하게 공기호흡기와 방호복을 착용하며 인명구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숨가쁘게 도착한 화재현장……

지하실에서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었고 전기가 차단되어 화재현장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이었다.

크고 작은 많은 화재를 경험한 대원들이었기에 침착성을 잃지 않고 당직관인 방호과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으로 진입하였다.

구조대원은 공기호흡기와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 손으로 인명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평소 소방검사 및 경방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을 알고 있던 진압부대는 연결 살수

설비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초기 진압을 실시하였다.

연결살수를 통하여 지하실로 분사되는 물로 인하여 대원들이 착용한 공기호흡의 면체에 닿아 앞은 더욱 더 보이지 않았으며 객실이 여러 곳이라 모든 객실에 대한 인명검색을 실시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지하실 인명검색을 끝나치고 나온 대원들은 당직관과 함께 1층 및 2층 인명검색을 실시하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1,2층 인명검색을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새벽 2시라 모든 문이 잠겨 있어 문을 열어 가며 인명검색을 실시하여야만 했다.

당직관과 대원들은 1,2층 인명검색을 끝나치고, 옥상에 대피하여 있을지 모르는 요구조자를 찾아 옥상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그 곳에서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곳에는 8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의 어린아이 2명이 옥상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면서 울고 있었다.

당직관과 함께 2명의 대원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방수복을 벗어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입혀 주는 한편 출동해 있던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옥상에 있던 사람들을 지상으로 구조하려 하였으나 건물 주변에는 많은 전선줄로 인하여 굴절사다리차를 전개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무전으로 들어왔다.

방호과장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눈을 감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한 뒤 대원들에게 다가와 공기호흡기 보조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구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원들은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를 사람들에게 착용시키고 한사람씩 안아 농연이 흩어진 계단을 통해 안전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오늘의 구조상황은 이것으로 종료되었고 진압대원들은 잔화 정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1층에서 영업하고 계시던 한 아주머니가 정말 고생하였다며 대원들에게 물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순간 모든 피로는 사라지는 것 같았고 뿌듯한 기분을 느낄수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하여 우리 소방관을 찾으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 엄마, 문 좀 열어줘!

아 산 소 방 서  
이 상 은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월요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다. 창 밖은 비가 내리고 있어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은 것만 같은 나른함이 몰려왔지만 내일부터 실내 수영장에서 있을 스킨스쿠버 교육 때문에 장비를 점검하고 손질하고 있었다.

갑자기 실내 마이크를 통하여 구조출동의 지령이 하달되었고 연이어 출동 벨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신창면 남성리 ○○아파트 문잠김 사고!”

“구조출동!”

“구조출동!”

황급히 구조차량에 탑승했지만 마음만은 급하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문잠김이 단순 보조키의 안전장치를 눌러 놓아 출입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장까지는 약 8km. 도착한 구조대원은 먼저 상황을 신고자로부터 청취하였다. 내용은 대강 이러하였다. 신고자 김경미(여, 31세 주부)씨가 잠시 윗층에 다녀온 사이 아들 방희승(남, 3세)이 현관문을 잠가 버렸던 것이다.

김경미씨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아들 희승이를 불러서 현관문을 열도록 해보았으나 뜻대로 안되어 신발장에 넣어 둔 현관

열쇠를 찾아 주도록 해 열쇠를 열려는 순간 아이가 보조키의 안전 잠금장치를 건드려 하는 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부르게 되었다. 도착한 열쇠 수리공도 보조키의 안전장치가 잠긴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사이 아이는 집안에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게 되었으며 방법을 찾던 중 119에 신고한 사항이었다.

먼저 구조대원은 12층 1205호에 양해를 구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11층 베란다 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건물 내부 창문은 철통같이 잠겨 있고 드라이버 하나 문틈 사이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리창을 깨면 간단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한 구조활동을 펴는 것이 아산소방서 구조대의 신념이기에 김경미씨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깨워 창문쪽으로 유도하여 창문의 시건장치를 제거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이 지친 어린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또다시 울기 시작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김경미씨는 몹시 마음이 조급해 졌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구조대원사이에 자신이 11층 베란다로 내려가 어린아이를 불러 보면 안되겠느냐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듣는 순간 구조대원은 정말 황당하였다.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미터가 넘는 12층에서 그것도 여자의 몸으

로 자신이 11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에 그 누가 귀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처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조대원은 “위험해서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부탁이 왔을때는 우리로서도 유리창을 깨는 일 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김경미씨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생각했다.

우선 안전벨트를 김경미씨에게 채운 후 카라비너로 안전하게 고리를 만들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로프를 1차 튼튼한 버팀목에 고정시키고 로프 두 가닥을 대원 두 사람이 잡고 김경미씨를 11층으로 하강시켰으며 11층에서는 이미 진입한 대원이 안전하게 받아 11층에 무사히 진입하였다.

처음에 망설였던 구조대원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한편으로 놀랐으며 또 한편으로는 깊은 모성애를 느꼈다. 아이가 울고 있고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12층에 매달린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어머니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 찡함이 느껴졌다.

다행히 김경미씨가 11층에 들어가 아이를 부르니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가 창문으로 다가왔고 아이는 엄마의 유도에 따라 창문의 시건장치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키가 닿지 않아 의자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시건장치를 풀어 주었다. 나이에 못지 않게 엄마의 말대로 따라 주는 아이 또한 대단했다.

그토록 철통같은 모든 문이 무사히 열렸고 방안을 통해 현관 문을 마지막 개방하면서 구조대원은 무엇인가 부족함은 느꼈

다. 결국 우리가 구조현장에서 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착각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는 요즘 사회 일각에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낮에도 꼭꼭 문을 걸어 잠그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서글픔도 있었다.

구조대원은 구조현장을 떠나오면서 자꾸만 김경미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머리에 떠올랐다. 「세상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실감했던 것이다.

# 황소를 구출하라!!!

아 산 소 방 서  
서 정 선

'97년 7월 1일 7시 40분경. 지난 밤의 바빴던 구급활동을 정리하고 금일 근무자와의 교대 준비에 한장일 때 보기도문 구조 요청전이 접수되었다. 삽교읍 평촌리 새말에 있는 수로(폭 3M, 높이 2M)에 황소 한 마리가 빠져 수로를 따라 떠내려 갔다는 것이다.

구조 신고를 한 김선열씨에 의하면 사고 발생 경위는 대략이러하였다. 새벽녘 많은 비로 인하여 외양간 지붕이 새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황소를 잠시 밖에 메어두고 외양간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밖에 메어두었던 소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 다니다가 수로 가까이 와서 흙탕물이 된 수로가 땅인줄 알고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황소주인은 소를 잡으려고 물속에 뛰어 들었지만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여서 황소와 함께 하류쪽으로 같이 떠내려 갔다는 것이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km지점 하류쪽에 도착하여 황소와 그 주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류쪽의 수심은 그리 깊지않아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로가 약 2M정도의 깊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미끄러운 관계로 황소를 수로 밖으로 끌

어 올리기란 쉽지가 않았다.

구조작업에 난감해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어떤 주민은 포크레인으로 황소를 퍼 올리면 어떻게냐는 등의 제안도 하였지만 황소의 몸부림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불가한 작업제안이었다.

다른 여러가지 구조방법을 모색하던중 구조로프를 이용하여 황소를 안전하게 결속시킨 후에 렉카차량을 사용하여 들어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평소 구조·구급훈련시 닦아둔 로프매듭법을 활용하여 황소를 가운데 두고 구조로프로 황소 앞다리 사이를 8자 형식으로 해서 황소등쪽에 매듭을 한번 하고, 황소 아랫배 쪽에서는 X자로 황소 등쪽에 매듭을 지었다.

또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구조로프로 등쪽에 아주 길게해서 붙잡고 있었고, 구난 쇠사슬을 이용하여 등쪽에 있는 매듭을 연결하고 쇠사슬을 걸어서 서서히 끌어 올리도록 하였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려웠던 상황에서 황소는 렉카차의 크레인에 의해 서서히 끌어올려지기 시작하였다. 황소가 수로밖 땅에 내려지는 순간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이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내 왔으며, 긴장상태로 굳어 있던 황소주인의 얼굴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났다. 커다란 눈만 꺾박이던 황소녀석도 자신의 안전구조를 기뻐하는지 힘차고 건강한 울음소리를 내어 주위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화답을 하여 주는 듯 하였다.

황소 주인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여 황소를 몰고 총총히 집으로 향하였다. 황소의 구출작전을 무사히 마치고 귀소하는 구급대원의 모습은 흠뻑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토록 농부에게는 소중한 황소를 안전하게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는 자부심에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 저 승 낚 시

아 산 소 방 서

김 윤 호

아침 일기예보가 2월 초순인 오늘은 예년에 비해 따듯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원들은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점검 및 개인용 장비점검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출동을 알리는 벨 소리가 여느때와 달리 힘차게 울렸다.

“구조출동!”

“구조출동!”

“선장면 선창리 연동저수지 익수사고”

참으로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익수사고는 사고발생 초기단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침착하게 고무보트 튜레라를 구조차 견인고리에 연결하고 구조현장으로 출동준비를 하였다. 그동안 지휘차량은 벌써 구조현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사고내용은 연동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강태공이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익수사고로 사고자가 깨어진 얼음의 가장자리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구조대원들은 구조차량에 탑승하여 출동하는데 지휘차량으로부터 긴급한 목소리의 방호과장의 지시가 하달했다. 본서 지령실에 구조현황의 인근면대기소 구급 및 소방

차량을 출동시켜 신속히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구조대원들은 현장상황을 무선으로 청취하면서 구조작전 상황을 머리속에 그려 보았다. 그리고 구조대장의 지시에 의해 차량안에서 잠수용 슈트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나아갔다.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현장에는 이미 인근 면대기소인 도고 구급차량 및 소방차량이 도착하여 익수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녹아있는 얼음으로 인하여 위험천만의 긴박한 상황이었다.

대원들은 방호과장의 지시에 따라 로프와 구멍의, 요구조자 벨트를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요구조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얇은 얼음은 조금만 움직여도 깨져 접근이 쉽지 않을 뿐더러 구멍보트를 활용하기에도 녹지 않은 얼음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얼음을 깨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바깥 날씨와는 달리 저수지 물의 온도는 몹시 차가웠다. 깨진 얼음은 구조대원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손은 땀땀 열었으며, 비록 잠수용 슈트를 입기는 하였으나 온몸으로 한기가 파고들고 있었다.

구조대장은 저수지 독에서 안전로프를 계속 풀어주며 두 대원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며, 방호과장은 현장의 원활한 구조를 위하여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휘와 격려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10여분의 사투 끝에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요구조자를 안심시키고 요구조자용 벨트를 구명환에 결속하여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하는 동안, 먼저 구조환을 요구조자에게 던져주기 위해 접근하던중 얼음이 깨져 물속에 빠져 있던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구명의를 착용시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요구조자에게 구명환을 2개씩이나 결색하였으나 요구조자가 옷과 낚시가방을 맨채로 익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부력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초에 요구조자의 낚시가방을 풀고서 구조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요구조자가 낚시가방에 대한 애착심으로 풀지 않으려 고집하였고, 요구조자의 몸이 굳어 있어 그대로 구조작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력상승이 되지 않아 요구조자를 설득하였고 어렵게 낚시가방을 몸으로부터 탈착 시킨 다음 낚시가방을 얼음위에 올려놓고서야 구조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구조작업 실시 30여분만에 요구조자는 얼음이 두꺼운 층에 이르러 얼음위에 극적으로 구조하게 되었고, 저수지 밖에서 구조현장을 애타게 지켜보던 주민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올렸다.

참으로 숨가쁜 긴 시간이었고 구조대원의 몸은 얼어 붙었지만 주민들의 박수와 함성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요구조자를 구조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요구조자는 탈진상태였으므로 담요로 요구조자를 보온조치하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구급차 사이렌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방호과장의 현장 철수 명령과 함께 현장 정리를 하는 구조대원들은 조금전 고생을 잊은 듯 얼굴엔 밝은 미소가 머금어졌다.

현장을 철수하여 귀서하는 구조차량에서의 구조대원들의 야무진 눈빛과 아직까지 시린 손끝에서는 또다시 예고없이 다가올 출동준비에 분주함이 어둠을 밝혀주는 한자루 촛불처럼 경건하게 느껴지기만 하였다.

구조대원은 인원장비 이상없이 본서로 귀대하였고, 또다른 출동을 위해 장비점검을 하고 있을 때, 요구조자와 동행하였던 동료가 찾아와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요구조자가 특별한 부상없이 건강하다고 전해주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으며 구조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보는 하루였다.

# 지름길이 황천길

아 산 소 방 서  
박 현 식

봄비가 제법 많이 내리던 4월의 초순 어느 날이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난사고시 구조요령에 대하여 구조대원들간 토론을 하고 있을 때 구조출동을 알리는 비상벨이 울리고 구조대원들은 민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실옥동 옥정교밑 세월교에 차량이 빠져 고립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속하게 사고지점에 도착하여 상황을 확인한 바, 우천으로 하천물이 범람하여 도로식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의 앞부분이 하천으로 빠져 요구조자 2명이 고립된 사고였다.

구조대원들은 요구조사를 우선 구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하천물살이 매우 빨라 구조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다. 제 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원간의 몸과 몸을 로프로 결속하고 사고차량으로 접근 고립된 요구조자 2명을 안전한 장소로 구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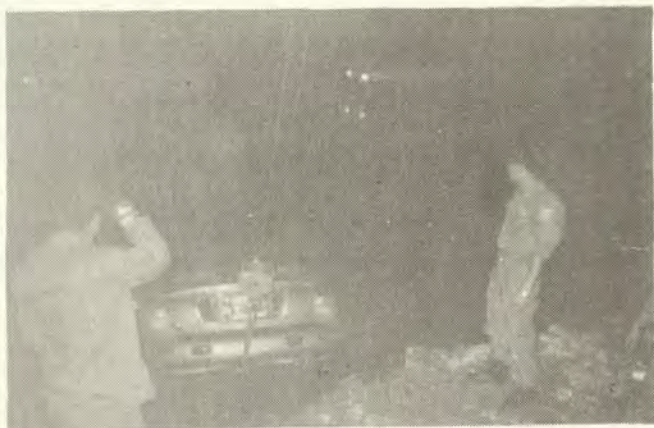
요구조자들은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물에 온몸이 젖은 상태로 오한을 호소하여 보온조치를 하였으며, 사고차량이 더 이상 하천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공작차량에 정착되어 있는 윈치의 와이어로프를 사고차량의 후미 견인고리에

다 걸어 고정시킨 후 윈치를 작동하여 사고차량을 하천 밖으로 견인하였다.

차량 견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사고 운전자에게 “빨리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사고지점은 평소에는 일반 도로나 다름이 없지만 우천시에는 하천물이 범람하여 도로가 물에 잠겨 도로 식별이 어려워 통행하는 차량들이 하천으로 자주 빠지는 곳이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청에 연락하여 사고예방대책을 세워 줄것을 당부하여 우천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고 빨리 가려고 물에 잠긴 도로를 아직도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팽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과 앞서가야 한다는 이기심이 이러한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행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겠다.



오늘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어쩌면 지난번 사고때 처럼 옥정교밑 세월교를 무심코 통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최단 시일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도 있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삶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성공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조금 늦더라도 위험한 곳은 피하여 안전하게 우회하여 운행하는 여유가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이라는 명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생활하여야만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우리 사회에 안녕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잘린 장미송이

아 산 소 방 서  
조 은 호

1998년 6월 19일

잠을 청하려고 한참을 뒤척이다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해 잠시 휴게실에 나와 담배 한모금을 깊이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를 회상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상황실로부터 방송을 통하여 “구조출동”지령이 흘러나왔다. “아산시 배방면 서부휴게소 옆 봉강교 추락사고!” 반복하여 흘러 나오는 구조상황을 멀리하고 대원들은 황급히 구조차량에 몸을 실었다.

달리는 구조차량 안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00:25분.

차창밖에는 길가에 세워 놓은 가로등도 깜박이며 졸고 있는 듯 하였으며 자정이 지난 시간임에도 자동차의 물결은 주간 시간대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차들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경음기 소리와 함께 차량의 속도가 줄어 들었다. 구조차량 전면 유리창을 향하 보이는 상황은 앞에서 달리고 있던 승용차량이 옆으로 피양을 하지 않고 천천히 자기 갈곳으로만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저 차량운전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긴급차량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고 달려 오는데도 피양하지 않는 것일까?

조급한 마음에 앞서 달리는 차량을 추월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곳에서도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냈다. 사고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지나가던 차량이 무질서하게 정차하여 구조 차량의 현장 진입을 막고 있었다.

구조대원이 차에서 내려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구조작업 범위 밖으로 이동조치 하고서야 비로서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구조대장은 사고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택시기사를 찾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사고현장인 이곳 봉강교를 지나는데 젊은남녀가 심하게 다투는 듯 했으며 이들을 스치는 순간 여자가 다리난간을 오르는 것 같아 되돌아 와 확인해 보니 현장에 있던 남자가 울면서 다리 아래를 가리키며 여자친구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여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택시 운전자로부터 이러한 현장 상황설명을 듣고 있을 때 추락한 여자의 남자친구는 대원에게 달려와 여자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대원들은 즉각 구조활동을 임했다. 구조대장의 지휘하에 대원 1명이 다리난간에 로프를 설치하고 요구조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5M 다리 아래로 먼저 내려갔으며, 구조차량에서는 크레인을 이용 대원 1명과 간호사를 안전하게 다리 아래로 하강시켰다.

요구조자 상태를 살피던 대원은 살아있다는 상황을 무선으로 보고하였고, 다리 아래에 도착한 간호사와 구급대원은 요구조자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다. 부러진 다리와 목을 고정하기 위

해 다리부목과 목, 척추보호대를 착용시켜 2차 재해방지에 주력하는 동안 구조차량에서는 환자를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바스켓 들것을 크레인 원치에 연결하여 다리 아래로 내려보냈다.

응급처치를 마친 간호사와 구급대원은 바스켓들것을 환자를 안전하게 옮겨 고정시키고 들어올릴 때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들것 양쪽에 로프를 연결 지지하였다.

환자 운반준비가 모두 끝나자 구조차량에서는 크레인을 천천히 작동시켰고 환자를 다리위로 안전하게 올렸으며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량으로 인근병원에 이송 조치하는 것으로 구조활동은 종료가 되었다.

1차 구조상황이 종료되자 구조대원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환자의 소지품을 찾아보려고 현장 주변을 탐색했으나 꺾어진 한아름의 장미꽃만 나뒹굴고 있어 대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약혼한 사이였으며 오늘이 여자친구의 생일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취기가 있었으며 의견 충돌로 다툰 듯 하였다.

구조대원은 소지품이 없음을 확인 후 현장을 철수하였다. 오늘의 사고는 이것으로 종료가 되었으나 구조대원들의 마음은 사고현장을 대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현장으로 출동을 하지만 그때마다 앞서서 달리는 차량 한 두대가 피양을 하지 않아 대원들을 난감하게 한다. 차량 1,000만대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은 어디쯤 머무르고 있나? 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출동이었다.

# 위험한 정원조과

아 산 소 방 서  
이 은 석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나른해진 몸과 마음이 작은 사고에도 자칫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즈음 안전이라는 단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날 따라 몹시 무더운 날씨로 구조대원들의 몸과 마음이 다소 풀려 있는 것을 당번반장은 출동장비 손질 등을 통하여 풀린 대원들의 마음을 죄었다.

바로 그때 구조출동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서 요구조자 19명이 승강기에 갇혀 있다는 지령이 떨어졌다. 구조대원들은 요구조자가 많은 것에 긴장하며 현장으로 향하였다. 사고내용은 아산시 온천2동 소재 ○○타워 승강기 사고로 건물의 5층과 6층 사이에 승강기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조반장은 먼저 대원들을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6층에 2조는 옥상에 있는 권상기실로 진입하여 작전을 개시하였다. 먼저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나서 6층에 도착한 1조는 승강로의 문을 열고 정지된 승강기 내의 요구조자들을 안심시키고 한편 건강상태 및 내부의 환경 등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승강기 내에는 어린이 2명과 노약자가 여러 명이 있었고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기와 신선한 공기의 부족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여러 명의 요구조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우리 구조대원들은 요구조자들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가능한 한 문에서 떨어져 있도록 경고하고 승강기 윗쪽에 있는 핸들을 약간 돌려 문을 약 5센티미터 정도를 열었다. 순간 승강기의 내부에서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확 뿔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승강기 내부에 있는 요구조자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다.

그동안 2조는 19층 위에 있는 권상기실에 진입하여 권상기를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1~5층까지 임대가 되지 않아 승강기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6층으로 끌어 올려야만 했다. 권상기의 수동조작 핸들과 지렛대를 사용하며 핸들을 돌리는 구조대원의 구조복은 땀방울로 얼룩이 졌다.

핸들을 돌리는 대원의 손에 힘이 빠지고 땀은 비오듯 하였지만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승강기가 6층에 다달았다는 1조의 무선연락을 받고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6층에서는 승강기의 문이 열리고 19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 완료하였다.

사고발생의 구체적 상황은 대강 이러하였다.

이 아파트에서 사는 어느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17인승 승강기에 19명이 한꺼번에 모두 타고 가려다가 갑자기 승강기가 멈췄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2명정도 초과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사고를 당하고 보니 어리석은 생각이였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구조대원들은 관리실에 들러 관리소장에게 승강기에 정원초과에 따른 경보장치를 달도록 하고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하고는 본대로 귀서하였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후 시간이었다. 또다시 구조출동을 알리는 방송이 이틀전 구조출동한 타워건물의 승강기에 17명이 갇혀 있다는 것이다.

순간 대원들은 구조공작차에 몸을 싣고 사고현장으로 달렸다. 승강기는 지난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5층과 6층의 사이에 정지한 사고였다. 구조대원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조로 나누어 구조작업을 하였고, 승강기에 갇혀 있는 17명의 요구조자를 모두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번과 같은 사고의 반복은 먼저 안전의식의 결핍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번 사고발생시 승강기의 점검 및 수리를 철저히 하고 중량이 초과되면 경보벨이 울릴수 있는 장치를 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우리사회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양보심의 결핍이라 할 것이다. 승강기를 타는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만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심이 결국 이번 같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발 양보하는 미덕을 기른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93년 10월 10일 서해상 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에도 설마하는 마음으로 정원을 초과하였던 선박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292명이라는 수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아직도 곳곳에서 정원초과라는 과적을 일삼고 있다. 정원초과로 거듭 발생된 승강기 사고를 바라보면서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우리에게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져오게 한 사고였다.

이 후 사무실에 돌아와 관계자에게 승강기 수리 전까지 운행을 중지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사고를 마무리하였다.

## 환 생

서 산 소 방 서  
염 갑 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산시 해미면에도 예외 없이 하천이 범람한 후 이틀사이로 하천 물은 줄어 들어가고 있었다. 소내근무를 하던 중 다급히 들어오는 한 아주머니로부터 어린아이 익수사고 신고를 직접 받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멀지도 않은 다름 아닌 대기소 바로 앞 “해미천...”

대기소 앞 상류 50m 지점에서 사고자 박지연은 혼자 제방 아래 하천공지에서 놀고 있다가 실족하여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으며 신고자는 사고지점을 가리키며 최초 사고장소 물 속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내가 보기엔 이미 하류 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둘러보았으나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류 쪽을 살피던 중 사람의 머리부분으로 예상되는 것이 두어 번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순간 익수자 입을 직감하고 약 50~60m 정도를 뛰어내려가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하천으로 입수하였다.

물은 허리춤까지 차 오르고 약 7~8m를 들어가 사고자를 신속히 구조하여 공지에 뉘어놓고 확인한 바 맥박은 미동이었 고 호흡은 멎어가는 상태로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한편 사고직전에 근간의 수해로 인한 관내 동향확인 및 근무자 위로차 대기소에 들렀던 의용소방대총무부장 길환수씨가 있었고, 마침 해미구급대차량은 천안으로 환자이송 중이었기에 인근 고북대기소로 구급차량출동지원 요청을 하라고 총무부장에게 부탁한 후 나는 계속 인공호흡을 실시한 결과, 입안에서 물을 토한 후 사고자는 의식이 약간 되돌아오면서 맥박도 느껴지고 호흡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어린아이는 서서히 새 생명으로 환생하는 듯 지켜보던 이들도 천만다행이라며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질렀으며 구급차로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나도 어린 학생을 둔 가장으로서 그날 저녁 사고환자의 상태가 궁금하여 서산의료원 응급실로 박수연의 건강상태를 물었으나 금일진료 및 치료 후 며칠 후에 퇴원시킨다고 하며 119구급대원이 아니었다면 큰 일 날 수도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뿌듯한 마음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호자 박춘식씨는 일찍 부인과 사별하고 수연이와 단둘이 살고있는 불우한 환경으로써 주변사람들은 “엄마없는 어린것이 그런일 까지 당하여 안타깝다”며 동정을 보내고...

나의 가슴속엔 못내 불우한 수연의 가정이 떠올라 씁쓸하기만 하였다.

# 재정이의 바캉스 일기

서 산 소 방 서  
장 순 조

올 여름은 유난히 수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계절이었다.

집중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피서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생명을 잃었는가 하면 지리산, 경기, 서울북부 등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방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지없이 우리관내에도 300~400mm의 폭우로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었다.

특히 당진소방파출소가 있는 당진읍내는 소방파출소는 물론 시내 전역이 침수되어 직원과 소방차량등이 대피하는 상태였으며, 몇 차례 구조출동 등 대원 전원은 밤을 지새웠다. 조바심으로 대기하던중 8월 9일 07:37분경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계곡 고립 사고가 발생하였다.

구조공작차 안에서 현장에서의 작전계획을 세우고 현장진입로에 도착한 바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어 대형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대기중인 해미 구급차에 필요장비를 옮긴 후 협소한 능선도로를 1km정도 올라갔으나 또 다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유속이 빨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원1명이 로프에 몸을 묶고 계곡 반대로 도강하여 안전로프를 묶었다. 텐트는 물살에 찢어졌고, 갖가지 도구는 떠내려

가는등 더군다  
나 계곡물을  
건너오기란 죽  
음을 자초하는  
상황이었다.

고립자 17명  
이 체온저하로  
추위에 떨고 있  
었으며 한눈을



팔 겨를도 없는 틈에 어린아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눈 팔던것  
도 잠시, 다시 로프를 요구조자가 있는 쪽으로 던져 나무에 묶도  
록 한 후 팽팽히 고정시키고 대장의 대원 2명이 슈트와 안전벨트  
를 착용하고 로프에 안전고리를 걸어 도강을 성공하였다.

1차로 어린이와 여자를 1명씩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안전  
고리를 로프에 걸어 반대편에서 대원이 잡아당기는 형태로 구  
조하고 2살난 재경이는 어머니가 품에 안아 요구조자 17명을  
무사히 구조하였다. 2차로 도로가 물 속에 잠긴 하류에서는 로  
프를 계곡 반대편에 고정시키고 대원이 로프에 한 줄로 서서  
어른들을 보조하여 건너게 하고 어린이들은 대원 2명이 번갈  
아 업어서 안전하게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

추위에 떨어있는 어린이들은 대기중인 구급차로 안전한 장소  
까지 빠져 나왔으며 다행히 한 명의 부상도 없이 안전하게 구  
조하는데 성공하였다.

구조를 마친 후 나의 시선은 재정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갔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한 사고였을 거라고 생각하니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울지도 않고 엄마품에 안겨서 건너오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웠을 뿐이다.

재정이는 아주 먼 훗날에 엄마와 함께 오늘의 사고를 웃으며 이야기 하겠지만…….

# 모래채취선의 투원스호

서 산 소 방 서  
장 남 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이라 들뜬 분위기 속에 거리가 술렁거리고 있었다. 그 동안의 구조활동을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여 유달리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대원들은 구조장비 정비를 하고 구조기술연마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1996년 12월 11일 전일 근무자와 각종 구조장비 및 업무 인수인계 등 전일에 일어났던 각종 사고활동 등을 브리핑 받고 구조대장의 근무지시를 받고 있던 중 09:05분경 “서산시 팔봉면 호리 선착장 모래 채취선 맨홀내부 추락사고”라는 출동지령이 긴박하게 들려온다. 교대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현장출동이다.

현장까지는 20여분. 벌써 마음만 바쁘다. 차량에서 각자 임무부여와 함께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생각에 잠겼다. 사고장소가 모래 채취선 내부 맨홀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맨홀 속에 가스가 차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문득 스쳐지나가며 공기호흡기를 착용토록 다시 지시하였다.

최초 발견자 황태만(남, 35세)과 신고자 해경초소 순경 유종수에게 상황을 들여보니 사고자 양성찬(남, 55세)이 모래채취선의 부유실 용접작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부유실 공간에 고여있는 바닷물을 퍼내려고 들어갔으며 채취선 관계자에게 작업을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로, 구조로프를 선택



상단 손잡이 부분에 고정시킨 후 공기호흡기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좁은 맨홀입구를 통해 5m 아래 맨홀 속에서 진입한 후 사고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니 물이

차있는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입 주위에는 거품을 물었으며 몸은 경직되어 시간이 오래 지체된 것이 분명하였다. 사고자의 가슴에 구조벨트를 착용시키고 로프에 카라비너를 고정, 대기 중이던 대원이 인양하여 시신은 경찰에 인계하였다. 작업시작을 알리고 하였더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119에 신고도 빠를 수 있었을 것을...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원망 아닌 씁쓸한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였고 이 모든 사고들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알고는 있지만 다시 반복된 오늘의 사고 또한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인재는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한 작금의 국민의식의 부재가 못내 아쉽다.

# 죽음의 생강굴

서 산 소 방 서  
정 상 수

1998년 8월 10일 구조대 사무실에서 인명탐색기를 정비하던 중 또 다시 생강굴 추락사고 구조출동을 하였다. 도착하자마자 굴 내부로 공기통을 넣어 사고자의 호흡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충남 서북부 서산, 태안, 당진 지역은 생강굴이 총 2천여개나 되며 말 그대로 생강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굴로써 해마다 추락 및 가스질식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구조장비는 사고자 보호용 공기통과 맨홀구조기구 및 전신보호용 들것 등이 사용되며 대부분이 가스에 질식되고 또 그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사고도 가스에 의한 질식사망사고로 7m아래에서 사고자는 장마에 내린 비로 고인 물속에 얼굴이 묻혀 있었다.

이러한 사고의 구조방법은 1차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를 로프에 묶어 굴 내부로 내려서 공기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대원 1명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사고자용 안전벨트를 휴대하고 내려간다. 이때 당연히 맨홀구조기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며 사고자를 끌어올린다. 마을이장에게서 사고경위를 들어보니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해 혼자 굴 안에 들어간 것 같으며 신고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혼자 굴속에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주민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어느 광고문구를 바꿔서 장난처럼 하던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자연시설을 이용한 생강굴은 전국적으로 흔하지 않은 대신 위험성 또한 많은 게 사실이다.

오르내리는 중 추락사고자가 있는가 하면, 올 봄에는 인근 야산에서 고사리를 꺾던 중 사용치 않는 생강굴 입구에 나무를 걸치고 나뭇잎 등으로 가려놓은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사고도 있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하루 햇볕에 들판의 곡식들이 여물어 가는 요즘, 얼마 있으면 또 다시 생강수확작업을 하여 굴에 저장할 시기인데 우리 119구조대원들은 수확하는 농업인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만 한다.

# 엄마는 바빠

서 산 소 방 서  
신 청 순

다른 해와는 달리 무더웠던 올 여름 '98년 7월 4일 10시 24분 경 서산시 동문동 법원 앞 ○○음식점에서 국수를 뽑는 기계 로울러에 어린이 손가락이 끼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우리 서산소방서 119구조대에서 는 매년 5~6건씩 접수·처리하여 왔으며 어린이가 놀라지 않고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구조작업을 실시하는데도 능숙하였다. 구조장비를 갖추고 국수기계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보니 국수기계 로울러에 손가락이 끼인채 앉아있었으며 사고를 당한 어린이답지 않게 당당한 얼굴에 담담한 표정의 장난기가 한껏 배어있는 아이였다.

구조대원들은 부상을 당한 5살의 어린이보다도 오히려 부모 를 안정시키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는데 어린이에게 로울 러에 낀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구조장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설 명을 미리 해주었더니 어린이는 담담하게도 “아프지 않게 해주 세요”라고 하는 바람에 대원들은 한바탕 웃을 수 밖에 없었다.

유압스프레더로 로울러 사이를 벌려 약간의 공간을 확보하고 손가락의 통증을 감소 시켜준 후 스페너 등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풀고 천천히 로울러에 낀 손가락을 빼내어 생리식염수 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확인하니 손가락 4개의 골절이 의심스

러웠다. 부목을 대고 압박 붕대로 응급처리하여 인근병원에 이송토록 하고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니 식당에서 중식영업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 5살짜리 어린이를 식당주인이 돌볼 사이가 없어 아이를 식탁에 올려놓은 사이에 호기심에 국수뽑는 기계를 만지며 놀다가 로올러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간 것이라 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귀서 후 사용장비를 정리하고 출동에 대비하며 대기하고 있는 사이 부상을 당한 어린이를 이송한 구급대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손가락이 골절은 되지않고 찰과상 정도로 뼈에는 이상이 없어 몇 일 치료를 하면 완쾌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대원들은 생각보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여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 후 바쁜 구조활동에 몇 일이 지났다. “실례합니다”하고 손님이 찾아왔다. 내다보니 몇일전 구조하여준 어린이가 손에 붕대를 감고 부모와 함께 찾아온 것이다.

사무실 안으로 안내를 한 뒤 꼬마의 부상정도를 물어보며 답소를 나누었다. 그 동안 TV로 “긴급전화 119”를 보아오며 남의 일로만 알고 시청하여 왔는데 막상 내가 사고를 당하고 보니 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부모의 말에 우리들은 누적된 피로가 말끔히 씻겨지는 기분이다.

어려운 여천과 위험 속에서도 수혜자들의 이러한 말 한마디로 힘을 얻으며 또 다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김없이 출동 대기상태이다.

## 과 속

### 서 산 소 방 서 장 남 환

1995년 12월 7일, 유난히 구조출동이 많은 날이었다. 교통 사고, 문잠김 사고, 승강기에 갇힌 사고 등 수 차례 출동을 한 후 일과를 마감하는 마음으로 23:30분경 잠시 눈을 부치기 위해 대기실에서 누워있던 중 12월 8일 01:58분경 출동벨이 선잠을 깨웠다.

가까스로 잠들려 하였던 눈을 비비며 승차하였다. 출동중 무전으로 사고자 2명이 차량 안에 갇혀있고 설상가상으로 화재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과속으로 달리던 엑셀승용차와 에스페로승용차가 정면 충돌하여 엑셀차량 엔진부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안에 사고자 채○○(남, 27세)이 갇혀있었고 에스페로 차량에도 운전자 강○○(남, 29세)가 갇힌 위기상황 이었다.

1조는 화재가 발생한 엑셀차량의 엔진부분을 유압스프레다로 전개 후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하며 2조는 신속히 유압스프레다로 운전석 문을 열고 다리가 끼여 있는 차량 앞 부분과 운전석 사이를 벌려 공간을 확보하고 사고자를 구조하고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다시 에스페로차량에 갇혀있는 사고자를 유압스프레다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

을 열고 가슴부위가 끼여있는 핸들을 절단하고 구조하여 응급처치를 하였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사고자들...

귀서하여 구급대원에게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물으니 다리골절과 가슴타박상등으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하니 속으로 안심이 되는 듯 하였다.

과속, 양보도 없고 나만의 길이라고 여기고 과속하는 운전자들...

차분하지 못한 우리국민의 생활습성은 꼭 바뀌야 하지않을까.



# 안타까운 죽음

서 산 소 방 서  
한 흥 수

'98년 5월 17일 21시 40분경 한진 앞바다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 한 후 우리 파출소에서는 수난구조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없기에 먼저 서산소방서 119구조대에 출동요청하고 가까운 당진잠수에 연락한 후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였지만 도착하는 시간만 30여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요구조자가 살아있기 힘든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지만 진술하는 목격자마다 추락지점이 달라 최초목격자 진술에 따라 그 지점을 한진지대 의소대원 및 어부들의 도움으로 어선을 이용하여 수색을 하였지만 침수한 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방법을 달리하여 어선을 일렬로 하여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였지만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30여분쯤 지나 당진잠수 및 서산소방서 119구조대가 도착하여 수색작업은 활기를 찾게 되었다.

먼저 119 구조공작차에 있는 조명으로 추락지점을 환하게 비추고 119구조대원과 당진 잠수직원들이 어선에 나뉘타 본격

적으로 장비 및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색하던 중 한진선착장 20M 떨어진 부분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여 인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요구조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신원을 확인하여 집으로 전화를 하여 사고를 알려주니,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통곡소리만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 경험을 살려서

논 산 소 방 서

김 민 규

'97. 3. 3. 아침 우리소방관에게는 비번 날 아침이면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쳤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해지고 주말을 맞이하는 기쁨마저 든다.

이날도 기상하여 청사 안팎 환경정리와 가벼운 아침운동을 동료들과 하고 있는데 소내근무자로부터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구급차에 쏙싸게 몸을 신고 구급장소로 달리면서 근무자로부터 구급발생 상황 무전이 들어왔다.

신고내용은 중국집 아저씨가 밀가루 반죽기계를 사용하다가 잘못하여 반죽기계 로라에 손가락이 끼어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 신고시간을 보니 07:16분 중국집으로서는 식사 준비가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며 차안에서 구조기법을 생각하는 사이 어느덧 중국집에 도달했다.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요 구조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반죽기계 롤러에 끼어 있었다. 아저씨의 몸이 크고 손도 커서 더욱더 아픔이 심한 것 같았다.

일단 유압스프레다를 이용하여 구조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고 수동식 쇠톱을 이용하여 롤러를 자를수도 없었다.

나는 어린아이가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있을 때 지렛대 원리를 이용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문틈에 끼인 손가락을 빼낸 생각

이나 롤러 조절 나사를 최대한 풀어 롤러를 자유롭게 하고 드라이버를 롤러 틈새에 넣고 벌리니까 아저씨가 “롤러가 벌어져요”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 나는 2차부상을 방지하면서 더 세게 벌리자 손가락이 시원하게 빠졌다.

일단 손가락을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아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야 안도의 숨을 쉴 때 그 기쁨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구조시간은 잠시 이루어 졌지만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 갔다.

구조·구급대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경영자가 되어야겠다.

# 아저씨! 팔 제가 빨게요

논 산 소 방 서  
박 연 호

새해 신년이 시작된지도 3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해가 된 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무며 덕담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심상치 않게 울렸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46km지점에서 승용차가 전복되어 사람이 차안에 갇혀있다는 다급한 전화가 긴장감을 더하게 하였다.

사고위치가 진입이 쉬운 상행선이 아니고 역으로 하행선이라는 점이 더욱더 다급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대전까지 가서 차를 돌려와야 한다는 점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환자의 상태로 봐서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순찰대의 협조를 얻어 하행선을 일시 차단하여 역주행하기로 하는 큰 모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톨게이트에서 사고지점까지는 약2km로 만약 도로가 차단이 완전히 안되면 더큰 사고를 부를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현장에 접근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엑센트승용차가 과속 및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차안에 타고있던 일가족 3명중 2명은 차에서 나오고 여자 1명이 차 지붕의 선루프에 팔이 끼어있는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선불리 차를 움직였다가는 2차부상을 우려 일단 레카의 도움을 받아 차의 앞, 뒤부분에 외이어로프를 결착하고 조심스럽게 차를 위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약30cm쯤 들어올렸을 때 요구조자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들은 요구조자의 팔에 이상이 온 것으로 직감하고 긴장을 하며 작동을 멈추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는 우리를 너무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팔 제가 뺄게요”라는 말을 하는게 아닌가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게 차가 전복되면서 탑승자 3명중 2명은 경상이고 1명은 차밑에 팔이 깔려있는 요구조자가 의식이 또렷하게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차밑에 팔이 들어가 깔려있던 요구조자 본인이 자신의 의지로 팔을 빼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를 충분히 당혹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잠시후 요구조자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면서 자신의 팔을 빼내었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나 구급차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후 병원에서 일가족 3명은 별이상이 없어 가벼운 치료만 하고 귀가하였고, 사고난 차량은 대파되어 폐차를 해야할 지경이다 참으로 “인명은 재천”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참아낸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 한밤의 날벼락

논 산 소 방 서  
황 은 익

'97. 9. 25. 01:05분경 구조 출동지령이 떨어졌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회덕분기점 33km지점에서 무소운전자 안병선(남, 38세)이 음주후 벌곡쪽에서 상행선을 하행선으로 착각 역주행 하던중 연무대에서 대전방향으로 주행하던 겔로퍼와 정면 충돌하여 3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역주행하던 안병선 ○○시청 위생과에 근무하는 모범공무원으로 4대독자이며 1남3녀를 두고 70노모와 다복한 가정생활자로 '97. 5월경 서울에 사는 누나가 무쏘 차량을 선물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사고전 자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어디론가 함께가자며 손을 잡고 갔다고 하는등 마음이 울적하여 기분전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4대독자여서 형제가 없어 더욱 쓸쓸하고 외로워 전주시내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서 불현듯 서울에 계신 70노모가 보고싶어 무의식적으로 전주톨케이트를 빠져 나와 주행하기 시작하였으나 만취된 상태로 정신이 혼미하여 역주행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윤석지(남, 35세)는 자동차 부품상회를 운영하는 자로 겔로퍼를 이용 거래처 동생과 부여에서 일을 보고 귀가하기 위하여 연무대톨케이트를 빠져 나와 호남고속도로 30km지점을 통과중에 있었으며 당시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상황실에 지나가는



행인이 핸드폰으로  
무쏘차량이 벌곡쪽  
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  
고 순찰차량이 확  
인하기 위하여 출  
동중 이었다고 하  
며, 겔로퍼 운전  
자 윤석지의 말에

의하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32km지점을 통과중 앞에서 번쩍  
하길래 처음엔 후레쉬 불빛인줄 알았으나 차량으로 확인되는  
순간 충돌하였다고 하며,

119구조대장 소방위 강방식의 4명은 구조공작차 및 구급차  
로 현장 도착한바 사고차량에서 빠져 나온 2명은 길가에 앉아  
있었으나 운전자 윤석지는 다리 및 갈비뼈가 아프다고 호소하  
여 다리부목 및 허리보호대를 이용 응급처치와 가해자 안병선  
도 응급처치후 구급차에 태우는데 피해자들이 저놈이 술먹고  
음주운전하여 사고났는데 구급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들을 설득하여 같이 태우고 이송하였다.

이사고는 미루어 보건데 마음이 울적하다고 만취상태로 고속  
도로를 역주행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고속도  
로 관계자들도 도로순찰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  
지 않았으면…….

# 낙화암의 절규

논 산 소 방 서  
이 준 표

'97. 12. 9. 18:53분경 부여읍 부소산내 낙화암과 고란사 사이에 있는 절벽에서 일어난 사고로 요구조자 정길윤(여, 73세)이 조카집에 가기위해 부소산을 오르면서 등산로가 아닌 산길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절벽으로 추락한 사고로 요구조자 정길윤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신성부락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끔 치매현상이 있는 정길윤할머니는 사고당일에도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살고있는 조카집으로 가기 위해 집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으나 치매증상으로 구룡면이 아닌 부여읍에서 내리면서 사고가 비롯됨.

당시 사고현장에서 20m떨어진 고란사 법당에서 성산스님이 참선을 하던중 갑자기 절벽쪽 뒷문이 열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참선을 중단하고 뒷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련하게 사람살려라는 소리가 고란사 옆 절벽쪽에서 들려와 절에서 일하는 아줌마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와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하여 "누구세요"라고 외치면서 확인해 보니 고란사옆 절벽 밑에서 사람살려라는 소리가 들려 손전등을 비추고 접근하려했으나 절벽이 험하고 어두워 더 이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성산스님이 고란사로 돌아와 119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한 논산소방서 부여파출소 소방사 이준표외 2명은 산악구조장비를 갖추고 부소산 후문을 통하여 부소산 정상까지 진입하였으나 더이상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대원들이 구조장비를 등에 메고 라이트를 비쳐가며 험한 등산로를 따라 진입했으며 잠시후 신고자 성산스님과 아주머니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최대한 접근을 하여 전등을 비쳐보았으나 아무도 없어 “누구없어요”라고 소리치자 약 7m정도 절벽쪽에서 희미하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눈이 쌓여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나무에 로프를 걸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후 로프를 몸을 걸고 일반레펠방법으로 진입하여 요구조자에게 전등을 비쳐보는 순간 대원들은 깜작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요구조자는 가파른 절벽중간지점에서 가로세로 약 60cm도 안되게 돌출된 바위틈에서 가느다란 나무가지를 잡고 추위와 어둠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밑에는 수십미터 절벽이다 자칫 잘못하면 수십미터 절벽 아래 백마강에 추락하게 된다.

먼저 대원들은 부상정도를 확인후 안심시키며 소방사 이준표가 요구조자를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밀착시키며 감싸안았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요구조자에게 착용시키려고 했으나 현상태로는 움직일수 없는 좁은 공간이라 착용시키지 못하고 개인로프를 이용 요구조자의 겨드랑 사이를 감싸메고 카라비나를 이용 대원이 타고 내려온 로프에 연결 시킨후 절벽위에 있는 대원과 신고자들에게 로프를 잡아 끌어올리라 하고 소방사 이준표는 밑에서 어깨로 받치며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구조후 요구조자는 추위와 공포감에 온몸이 굳어있어 대원들이 모포로 체온유지에 힘쓰면서 몸을 맛사지하여 근육을 풀면서 말을 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부상정도를 확인한 바 외상은 없는 듯하고 담배를 요구하여 건네주니 정신없이 담배를 피웠다.

어느정도 요구조자를 안심 시킨후 대원들이 부축하여 부소산 광장에 대기중인 구급차에 탑승시킨후 요구조자를 다시한번 관찰한바 별다른 외상이 없고 요구조자가 따뜻한 물을 요구하여 파출소로 데리고와 물을 주며 사고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치매로 형설수설하여 파악치 못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부여군 구룡에 사는 조카에게 연락하여 가족품에 인계한 후 우리들은 귀소하였다.



긴급구조 **119**

## 구급사례모음





# 십자가에 박혀죽는 꿈

천 안 소 방 서  
강 길 준

'97. 2. 19. 12:40분경. 어느덧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바로 어제 였다. 대자연의 순리는 어쩔 수가 없는지 이제 점심을 먹고나면 나른해지며 춘곤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고속도로 구급대 사무실 창문 너머로 톨게이트로 드나드는 차량들의 행렬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을 즈음, 요란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아연 긴장했다.

상황실로부터 목천톨게이트부근 상행선 92km지점 교통사고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우리 구급대원들은 몸에 배어 있는 재빠른 동작으로 차고를 탈출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할 즈음 11톤 화물트럭이 심하게 망가진 채로 중앙분리대에 걸쳐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 직감적으로 대형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으나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니, 2차사고(다중추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화물트럭 운전자 이희선(남, 44세)만 찌그러진 운전석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상황실에 개략적인 현장 상황을 무전기로 보고를 하고 운전자에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니, 척추에 손상에 입었는지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우리 구급대원은 우선 경추및 척추보호대를 환자의 목과 허리에 고정시킨 다음 환자의 움직임(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전신보호용 분리형 들것을 환자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Log Roll(환자를 들것 등에 옮기는 방법의 하나로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운반법)을 이용하여 들것을 옮겨 구급차로 이동한 후 병원으로 이송 도중 환자의 인적 사항 및 사고 경위를 물어 보니, 운전 도중 잠깐 졸음 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한다.

“아저씨,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 반대 차선에 다른 차량이라도 만났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만한 게 불행중 다행이죠.”라로 위로의 말을 건네니, 어제 꿈자리가 앓 좋았다는 환자의 말이 이어졌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십자가에 박혀 죽는 꿈이었다고한다”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십자가가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암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래도 대형화물트럭을 몰고 상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운전자가 줄임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었다.

소방관으로 입문하여 5년째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 사고 사례를 통하여 볼 때 대부분의 사고는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유난히도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어떤 일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나 아닌 타인에게도 불행을 초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안전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생활에 충실했으면 한다.

# 어느 졸업식 날의 사고

천 안 소 방 서  
정 해 근

'97. 2. 12. 10:00경 겨울바람이 진눈깨비와 함께 몹시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장비 교대 점검을 마치고 동료 직원과 함께 장비 점검을 하던 중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구급 출동! 구급출동! 수신면 속창리 도로상 교통사고!”

본서 상황실로부터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출동중 상황실로부터 사고 차량에 요구조자가 끼어 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 등을 생각하며 본서의 119구조대 출동 여부를 확인했다. 사고현장과 의 거리는 약 7km정도였지만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어 몹시 멀게만 느껴졌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니 봉고더블캡차량의 단독 사고로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도로변 전신주에 충돌 후 수로에 반전복된 교통사고였다.

다행히 운전자는 인근 주민들의 구조로 도로 옆으로 옮긴 상태였으며, 부상 정도는 경추 및 척추, 다리 골절이 의심되었으며, 요구조자 1명은 사고 차량에 대퇴부가 끼어 있었고, 척추 골절 및 대퇴부 복합 골절로 의심되었다.

출혈이 심한 발목의 지혈과 골절 부위에 부목을 이용 고정하고, 경추 및 척추보호대를 주민들의 도움으로 환자에게 착용시켜 분리형들것을 이용 구급차로 옮겼다.

짧은 시간에 정신없이 부상자를 응급처치하면서도 마음은 차에 끼인 요구조자에게 가 있었다. 급한 마음으로 요구조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고 차량의 유리 창문을 여는 순간 흩어진 꽃송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수선한 차안의 상태와 흩어진 꽃송이들이 순간 나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아마도 두 내외가 어느 학교 졸업식에 축하하려고 급히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상상의 날개를 펴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급박했다.

사고 현장과 본서와의 거리가 멀어 아직 구조대는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고 구급차에는 구조 장비가 실려 있지 않아 몹시도 안타까웠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견인 차량의 도움을 얻어 조심스럽게 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우선 요구조자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는 중에 구조공작차가 도착하였다.

견인 차량은 더 이상 사고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지지토록 견인차 운전자에게 구조대장이 지시하고, 구조대원과 함께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요구조자는 의식은 있었으며, 고통의 신음 소리를 토해 내고 있었다. 요구조자를 안정시키며, 유압장비 등을 이용 차량내 구조 공간을 확보후, Log Roll을 사용 환자를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골절이 심한 대퇴부 등에 부목을 이용 응급처치후 들것을 이용 구급차로 옮긴 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 환자 김근식(남, 58세)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 보니

“오늘 아들의 졸업식인데 집에서 외양간 청소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졸업식에 늦을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빨리 운전을 하다 사고 지점의 결빙 상태를 확인 못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후회했다.

“조금만 안전 운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아들의 기쁜 졸업식날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자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 이송한 후 담당 의사에게 인계후 잘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구급차에 올라 대기소 사무실로 향하던 중 한기를 느꼈다. 구급 업무를 정신없이 매달리다 보니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다. 힘든 하루 일과의 일부분이지만 오늘도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나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구급 환자를 이송하고 구조하는 구급대원의 한사람으로 모든 구급 환자는 내가족이고 형제라는 마음으로 맡은 구급 업무에 충실히 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리라 다짐해 본다.

# 지금 아이가 나와요!

천안소방서

김인기

1996. 12. 9. 06:48경. 아직 새벽의 여명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시간. 밤새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 근무에 뜬눈으로 밤을 지낸 상황실 김인태반장은 새벽의 고요한 여운을 깨는 한통의 119전화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천안소방서입니다.”라는 멘트가 나가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다급히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고통의 신음 소리를 흘린다.

순간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김반장은 신속히 수화기를 고쳐 들고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말을 이어갔다.

“여보세요. 여기는 천안소방서입니다. 안심하시고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이가...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여보세요. 아이가 나오다니요. 환자 위치를 자세히 말씀하세요.”

“구급 출동! 구급 출동! 천안시 다가동 5-34번지, 동양장여관 맞은편 ○○○씨댁 산모분만중!”

산모 분만이라는 구급 출동을 받은 구성파출소 구급 대원들은 구급차안에서 분만에 필요한 장비들을 분주히 챙기기 시작했다.

아직 미혼인 구급간호사는 경험이 없는 터라 당황은 되었지만 평소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을 되새기며 필요한 장비만을 열른 채였다.

이른 아침 산모의 남편은 아직 분만일이 며칠 남아 있음을 알고 평소대로 일찍 출근을 서둘렀다. 출근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손을 잡고 혹시 진통이 있으면 열른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말을 남기고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

남편이 출근한지 불과 몇 분도 안돼 산모는 갑자기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예정일이 이틀 정도 남아 있어 안심하고 있던 산모는 갑자기 시작된 진통에 당황해 하면서도 벌써 아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19에 전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계속되는 진통과 아이를 낳기 위해 힘을 주면서 119에 신고하려니 상황실 근무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한편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분만에 필요한 장비를 들고 현관문으로 뛰어 들었다. 산모가 산음하고 있는 방문을 여는 순간 간호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안에는 신음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집 할머니가 산파역을 맡고 있었는데 당황한 할머니는 산모를 붙들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으며, 산모는 엉겨주춤한 상태로 이미 아이를 분만한 상태였고 탯줄에 연결된 아이는 방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간호사는 우선 할머니에게 물을 데워 오도록 하고, 산모를 눕혀 안정을 취하도록 한후 탯줄을 분리하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보에  
싸서 보온 조치  
를 취하였으며,  
산모의 복부를  
맛사지하여 태  
반을 분만토록  
하고, 구급차로  
산모와 아이를  
병원에 이송하  
였다.



임무를 마치고 난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며 소방서  
에 돌아온 시간이 08:50분경, 구급일지 정리등을 마치고 동료  
간호사와 교대 근무를 하려는 순간,

“구급 출동! 구급 출동! 구성동 한방병원뒤 ○○○씨댁 산모분  
만중 구성파출소 구급대 출동!”이라는 구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방금 근무 교대를 마친 구급 대원들은 서둘러 구급차에 올랐다.

“참 오늘은 이상한 날이야”

상황실 근무자 최병무는 근무 교대를 하면서 전일근무자 김  
반장으로부터 산모출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터라 웬지  
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한편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산  
모가 현관문을 잠근 채 진통을 겪고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  
는 입장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던 구급간호사는 동료 구급대  
원들에게 현관문을 깨고 들어갈 것을 제의했고 구급반장이 현  
관문을 깨고 간호사를 집안으로 진입시켰다.

방안에 들어온 김간호사는 현장 상황을 확인한 바, 산모는 이미 아이를 낳은 상태였으며 탯줄을 먼저 분리한 후 산모의 복부맛사지를 통해 태반 분만을 유도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평소 산모가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켰다.

오후에 전일근무자와 함께 두사람의 산모에게 미역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함을 확인후 돌아오는 길에 긴장감이 풀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 첫 경험 (?)

천안소방서  
도수익

이번 출동의 경우에는 "경험"이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가져다주는지 느끼게 해준 구급활동이었다.

소방에 입문하기전 병원에서 근무할 때 분만실, 소아과 임상경험이 전혀 없어 못내 아쉬워하곤 했는데, 그것은 구급간호사는 천차만별의 환자를 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산부라는 출동신고가 있을 때면 긴장을 하고 출동 나가서 "휴우"하고 돌아오곤 했었다.

'95. 12. 31. 02:29분경. 이날의 구급출동은 수혜자가 산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에 도착했는데(천안시 구성동 화성그린빌라 301호) 3층의 베란다에서 신고자가 "산모가 지금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라는 외치는 것이 아닌가..., 아찔한 순간이었다. 학생시절 보건소 실습때 산모 분만과정을 한 번 지켜본 것이 전부였는데, 잘할 수 있을까? 아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며 3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양손에는 드레싱 상자와 구급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소독해둔 분만세트를 들고 말이다. 현관밖에는 산모가 고통스럽게 누워 있고 옆집 사람들은 주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으며, 산모는 고통스럽게 아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선, 산모를 그 차가운 바닥에서 거실로 옮긴 후, 짧은 아주머니 두분과 함께 산모를 분만할 수 있는 자세로 놓고 보니 아기의 머리부분이 나와 있었고 조금 후 아기의 몸 전체가 나오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경험이 없다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 결국은 내 차지였다.

우선 아주머니에게 아기를 목욕시킬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고, 난 아기를 거꾸로 들고 입속의 이물을 제거하고 나니 “응애 응애”하고 운다.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수건에 싸서(분만예정일이 '96. 1. 17. 이라서 출산용품이 준비 안됨) 아기를 아주머니에게 쫓겨 달라고 했다.

산모는 한참을 누워 있어서인지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주물러 주고 30여분이 지났는데 태반이 나오지 않아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태반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처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하고 물으니 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자궁수축제를 맞아야 하니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 했다.

그 후 10분 동안 관찰한 후 반응이 없어 병원으로 옮기려고 밖에 대기하고 있는 남자대원들에게 들것을 갖고 오라고 하는 순간 산모가 “탯줄이 나온 것 같아요”한다. 내가 탯줄처리를 하는 동안 아주머니들은 아기를 쫓겨 방에 눕혀 놓고 분만이 끝나면 산모가 먹을 수 있도록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산모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아들입니다.”라고 인사한 후 두툼한 이불이 깔려진 방에 아기와 나란히 눕도록 해주고 아주머니들에게는 산모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돌봐주고 이상이 있으면 119로 다시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산모를 위해 끓이는 미역국 냄새가 너무나 구수했다.

'96. 1. 3일 오전 구급출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모와 아기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여 미역을 사들고 찾아가 보니, 산모의 가족 모두의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 진심으로 처음 받아 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한다.

# 이제 어떻게 해요

천 안 소 방 서

김 명 희

1997. 2. 14. 오전 5시 20분. 새벽잠을 설치며 고속도로 상 구급출동을 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후 환자 인적 사항을 파악하던 중 상황실로부터 우리 구급차를 찾는 무전 연락이 왔다.

“구급환자 발생 장소는 두정동 ○○공장 여자 기숙사”

기숙사안에서 산모가 발생했다는 출동 지령을 받고 우리 구급대원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혼 여성이 기숙사에 기거하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급 현장을 향해 구급차는 달리고 있었고 간호사인 나는 산모에게 필요한 구급장비 등의 물품을 준비했다. 구급차는 현장에 도착했고 준비한 장비 등을 가지고 신고자가 안내하는 장소로 따라갔다.

산모는 아주 앓돼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기숙사 방구석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 왜그러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난 몰라. 난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해...”하는 소리만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다.

방안을 둘러보니 아이는 이미 출산하여 한쪽으로 아주머니가 아기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다.

우선 아기에게로 가서 탯줄을 살펴보았는데 탯줄은 이미 식당 아주머니가 자른 후여서 탯줄 자른 부위를 소독하여 아기의 몸을 수건으로 감싼 뒤 산모에게 태반이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 산모는 계속 울먹이고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 보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도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었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진통이 와서 샤워실에서 그대로 아기를 분만하였다고 한다.

순간 기가 막혔다. 산달이 다되도록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니..., 산모의 나이를 물어보니 이제 스므살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였다. 산모와 신생아를 구급차에 옮겨 병원으로 가는 도중 언젠가 긴급구조 119를 시청하던 중 교회앞에 갇난아이를 버려두고 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던 아저씨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보살피다 다음날 한 아동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긴 가슴아픈 사례가 생각이 났다.

선진국일수록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해외 입양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막 세상에 나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이 아기가 부디 엄마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아기 엄마 역시 평생 후회 없을 선택을 해 줄것을 빌며 병원 문을 나섰다.

# 개천사 가는 길

천 안 소 방 서  
윤 흠 선

1997. 1. 6. 20:27

저녁식사를 마친 후 구급차 출동점검을 한 뒤 오늘밤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한 밤이 되길 바라며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상황실에서의 차임벨 소리와 함께 순간적인 느낌으로 구급출동이구나! 하고 우리 구급대원들은 복장을 갖추는데 광덕산 골짜기의 개천사 입구 교통사고 구급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서둘러 구급차 시동을 걸고 무전기, 경광등, 사이렌 취명을 하며 사고현장 출동하는데 며칠 전부터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상태라 인적이 드문 골짜기의 조그만 '개천사'까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어렵게 사고현장 도착하니 사고차량은 계곡의 하천에 추락해 전복되어 있었고 환자가 보이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물어 보니 날씨가 추워 근처 조그만 암자에 환자를 옮겨 놓았다고 한다.

사고지점에서 암자까지는 급경사에 빙판 길로 1km지점에 있어 들것등 응급처치장비를 갖추고 구급대원들이 도보로 올라가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워 대원들은 거북이걸음을 해야만 했다. 신고자의 안내로 암자에 도착하여 환자를 찾았으나 환자가 없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중 산아래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 구급대원을 불렀다.

모두 다시 발길을 돌려 아래로 내려가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워 같이 내려가던 간호사가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나는 “우리가 환자를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환자가 되어 가겠다”는 말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환자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집에 있었으며, 외상은 없으나 차가 전복될 때 허리를 다쳤는지 움직이지 못해 경추 및 척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분리형 들것을 이용 구급차로 옮긴 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면서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 보니 서울에서 내려와 ‘개천사’에서 불공을 드리려고 골짜기를 올라가던 중, 급경사 빙판 길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였다.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빙판진 좁은 길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이 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안전 운전엔 신경 썼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 두 번째 만남

천 안 소 방 서  
강 길 준

'97. 5. 8(목), 16:48분경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이슬비가 대지를 적서 주고 있었다.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들을 바라보며 센터멘털한 기분을 느끼기보다는 통행하는 차량들의 빗길 교통사고가 우려되었다.

야간 구급출동에 대비하여 구급차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주유소에 가는 도중 상황실로부터 무전연락이 왔다.

북면 연춘리 도로상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가해차량운전자가 환자를 싣고 시내방면으로 운행중이니 중간에 환자를 인수하여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것이었다.

즉시 사고현장으로 방향을 바꿔 3~4분 정도 진행하다 보니 전방에서 젤로퍼승용차가 전조등을 밝히고 오길래 구급차에서 신호를 보내 정지할 수가 있었다.

젤로퍼차량의 뒷문을 열어 보니 교복을 입은 애띤 여학생(조주미, 14세)이 다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우선 어느 부분에 부상이 있는지 평가를 해보니, 우측하지에 골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곧바로 에어부목을 이용 응급처치후 다른부분의 2차 손상을 우려해 전신보호용 분리형들

것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환자를 구급차로 옮겼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

환자는 부상당한 다리가 걱정이 됐던지 “저 걸을 수는 있는 거죠? 혹시 병원에 가면 제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수술을 하면 많이 아프죠?” 하며 어린 학생답게 여러 가지 걱정이 교차하는 듯 많은 질문을 하였다.

내가 “괜찮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게 치료를 받으면 될 거라고 알려주니까?”

아저씨, 며칠후면 시험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걱정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시험이 문제야! 하고 꾸짖으니까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기도 하였다.

병원에 이송을 하면서 상당히 인상에 남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로부터 20여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이른 아침에 상황실로부터 구급출동 지령을 받았다.

북면의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 이었다. 신고자를 찾아 방문을 열어 보니 방에 어린 여학생이 다리에 깁스를 한채로 누워 있었다. 구급대원과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그때 이송 중에 걱정이 많았던 여학생임을 알 수가 있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지 그 여학생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 여학생의 환한 미소는 밤새 구급출동으로 지쳐 있었던 우리 구급대원들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내리는 듯 했다.

구급차로 병원에 입원하여 3주정도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다시 입원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병원으로 이송후 하루빨리 쾌유해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뒤돌아서서는 우리 구급대원의 마음은 매우 흡족하였다.

# 외로운 노년

천안소방서  
이 상 민

'97. 2. 10. 11:00경 성환파출소 119구급대원은 천안시 직산면 삼은리 시름세 육교앞 도로상에 할머니(신순임, 83세)가 쓰러져 있다는 구급출동 접수후 급히 출동하여 도로옆 갓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 할머니의 맥박과 의식을 확인한 후 신속히 보온용 담요를 꺼내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할머니를 감싸 인근의 할머니댁에 옮겨 방안에 이불을 깔고 편안히 눕혀 드렸다.

잠시후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형제도, 자식도, 의지할 곳마저 없다고 하소연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구급대원들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부엌의 꺼져가는 연탄불을 갈아드리고, 얼어붙은 수도물을 녹히고, 추위에도 얼지 않도록 수도배관 보온자재를 구입 보온조치를 해드렸다.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집조차도 할머니 소유의 집이 아니고 원래의 집주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후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을 의지할 곳 없는 이 할머니에게 기거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배려를 해주었다고 한다.

우리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겠으니 가시지요”라고 청했으

나 병원비 마저도 없는 듯 완강히 거절하시며, “잠시 술한잔 드시고 힘이 없어 집 앞에서 쓰러졌을 뿐이라고 하셨다.”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라고 물으니 밤이면 온 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특별히 죽을병이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우리의 청을 거절하셨다.

우리 구급대원들은 돌아오기 전에 할머니와 이웃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있으면 신속히 119에 연락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할머니 곁을 떠나오면서 가슴속 깊이 안타까움이 밀려와 울겨울을 할머니가 건강히 보낼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 한평생의 집

천 안 소 방 서  
강 태 풍

이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더위로 아직도 가슴깊이 남아있었다.

“여름”하면 바다를 연상케하고 그에 따른 낭만과 여유 그리고 재충전을 하는 휴가를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협을 우리는 망각하기가 쉽고 그의 후유증은 평생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두달동안 독립기념관 관내에서 2명(1명뇌사)의 생명을 앗아간 여름.

첫 번째는 목천T.G 사무실 근처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웅덩이(수심약 5m)를 파놓은 곳에 어린아이가 수영도중 익사로 숨지게 되고 두 번째는 병천면 탑원리 청소년 야영장내 수영장에서 수영중 물에 빠져 인근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 약물투여 및 C.P.R을 실시하였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대기하고 있던 구급 차량에 적재된 산소를 이용 의사는 흉부 압박 나는 인공호흡을 20분 이상을 실시하며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송도중 힘없이 뜬 아이의 눈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심정

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기분이 나를 감싸고 갔다.

우리는 미리 이송하고자하는 병원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서는 몇 명의 의사 및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C.P.R을 하며 응급실 병상에 눕히자 병원측에서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심장은 살렸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태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모습에 안타까움만 든다.

휴가철이라 해서 수영복, 물안경등 다른 것은 철저히 준비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처치도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다.

가까운 소방서에서 몇십 분의 응급처치교육만 받았어도 두생명 모두 구할 수 있었으련만……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했다. 이 한마디가 또한번 가슴을 저미게 한다.

계절별, 응급상황별 적절한 응급처치홍보도 화재예방조치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젠 시민이 우리에게 오기보다 우리가 먼저 시민 곁으로 다가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함이 또한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

# 어린 코스모스를 닮은 지훈

공 주 소 방 서

김 경 희

스산한 밤바람을 타고 들려 오는 낮은 귀뚜라미 소리에 뒤척이던 잠자리를 벗어나 바라본 창밖의 밤하늘이 유난히도 파랗게 느껴지던 가을밤!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을 열려는 분침 소리만 요란한데 아직은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은 인터폰의 구급 출동 지령! 급히 상념을 떨치며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뛰어나가는 발걸음이 오늘은 웬지 가볍지만은 않다.

“우성면 동곡리 어린이 급성질환...”

밤안개가 피어오르는 강변도로를 달려 기산초등학교 앞 가까이 접어들썸 비상등을 켜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며 환자가 실려 있음을 직감했다.

구급차를 세우고 이불에 싸여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태운 후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동공 반사 없음, 호흡 없음, 사지 강직.

이미 절망에 싸여 아이를 살려 달라며 절규하는 보호자를 옆에 두고 나는 바빠 손을 움직였다.

혹시 열로 인한 경련은 아닌지?

액와에 체온계를 꽂아 놓고 온몸에 계속 힘을 주며 분비물을 흘리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은 지훈에게 흉부에 강한 자극을 받

복하면서 기도 유지를 시키고 분비물을 제거하며 개구기를 삽입했다.

이대 목안에서 분비물이 걸리는 “크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얇지만 길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이때의 기분이란...

흡입기가 준비되지 않은 구급차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설압자만 몇개 더 만들어 삽입하고 손가락으로 분비물을 제거한후 계속 기도 유지를 시키기 위해 턱을 위로 끌어당기며 분비물이 흘러내리기 용이하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았다.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호흡이 느껴졌다.

곧바로 산소 호흡기를 연결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경련으로 기도 유지가 되지 않아 계속 턱을 위로 끌어당기고 있어야만 했다. 옆에서는 지훈이의 엄마인 국경숙(여, 35세)씨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우리 지훈이가 이래야만 되냐며 통곡을 하고 있었다.

입으로는 보호자한테 병원이 가까와 오니 괜찮다고 위로하며 한 손으로 산소 호흡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턱을 잡아 기도 유지를 시켰다.

끊임없이 보호자의 절규가 이어지는 작은 공간에서 그 어린 영혼과 힘겹게 싸우는 동안 나의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하였다.

끊임없는 보호자의 절규에 흐느끼며 몸부림치는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고 사지를 틀며 힘겹게 숨을 쉬며 누워있는 지훈에게서는 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지훈아! 제발...” 병원까지의 거리는 왜 이리도 멀기만 한지... 짧은 시간일지라도 지훈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순간이

었다. 체온 36.5도, 열로 인한 경련은 아닌것 같다.

드디어 병원도착.

그러나 뛰어들어간 응급실은 이미 다른 환자들로 인해 지훈에게 까지 의사의 손길이 닿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었다.

간이 침대에 눕힌 후 병원 측의 흡입기를 사용하여 분비물을 제거하고 나니 약하긴 하나 안정된 호흡이 있음에 안심을 하고 잠시후 당직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뒤돌아 나오는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지훈엄마의 글썽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애절한 모정에 왠지 모를 죄송함을 느껴야 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과연 나의 조그만 열성이 어린 지훈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을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아직 때문지 않은 지훈의 완쾌를 빌 수밖에 없었다.

전날의 피로로 부시시한 아침을 대했으나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지훈의 안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곧바로 대전으로 후송했음을 알리는 간호사의 전화 목소리에 힘없이 수화기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나의 바램과는 정 반대로 절망적인 상태임을 느끼며 조금씩 일상에 묻혀 지훈을 잊어가던 어느날 뜻밖의 반가움을 느꼈다.

훈련으로 인해 잠시 파출소를 비운 사이 지훈과 지훈의 엄마가 다녀갔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며 뚜렷한 병명도 없다고 모두들 포기했었지만 완쾌가 되어 퇴원하면서 제일 먼저 파출소에 들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라며, 반가운 마음에 지훈이 집에 전화를 걸어 지훈이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아직도 낡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졌다며 엄마를 바꾸어 주었다.

엄마와 통화를 하며 119에 대한 감사를 아끼지 않음에 진정나의 직업에 보람을 느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인 및 병명을 몰라 일본에 의뢰해야 할 희귀한 병마와 싸워 이긴 지훈이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훈아! 정말 고맙구나. 다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빈다.

“노지훈! 화이팅...”

## 삶은 소중한데

공주소방서  
최정순

8월초 휴가철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게릴라성 폭우로 지리산 일대에서 휴가를 즐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 또는 사망으로 우리 앞에 대중매체를 통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무렵 8월 2일 새벽 5:48분 덩동댕 “구조 및 구급 출동! 공주에서 대전 방향 박정자앞 도로상 대형 유조차와 승용차 충돌 사고! 속히 출동!”

자다 말고 구급대원 3명과 실습 나온 응급구조과 학생 3명은 후다닥 뛰어나와 신속히 구급차에 올라탔고 구조공작차와 구급차는 나란히 경광등을 켜고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새벽의 어두움을 깨우듯이 사고 발생 장소로 빠르게 진행했다.

대형 유조차와 승용차의 충돌이라면 대형 사고가 될수 있다는 짐작 하에 사고 지점에 가까이 이르자 도로는 사고로 인해 빠져 나갈 수 없는 차량들로 즐비했다.

우리는 렉카차와 정체된 차량들을 비집고 사고 장소로 진입했다.

과연 생각대로였다. 끔찍한 참사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대형 유조차는 뒤집힌 채로 기름을 바닥에 흘려 내리고 있었고 충돌한 승용차는 멀쩡이 밀려나 방향을 틀은 채로 자가용 앞부분의 형체가 양철 찌그러지듯 찌그러진 채 그 안에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사람들은 승용차 안에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자 1명이 뜯겨져 나간 상박부 살을 붙잡고 피를 뚝뚝 흘리며 다가와 응급처치를 해 달라고 했다. 상박부심부 열상과 출혈을 빼고는 그 상황하에서 그리 심각치 않은 것 같아 일단 응급구조과 실습 학생들에게 상처 세척과 붕대로 압박 지혈을 시켜 드리라 지시하고는 달려가는 구조대원들의 뒤를 따라 구급대원 3명은 장비를 챙겨들고 사고 당한 승용차 곁으로 가서 1차 상황을 파악했다.

남녀 각각 쌍쌍이 앞뒤로 탄 것을 보니 아마도 휴가철을 맞아 아침 일찍이 휴가지로 떠나던 차에 그와 같은 참사를 맞게 된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운전자는 너무도 끔찍이 고개를 꺾이운채 두개골 골절과 경추부 골절 심한 출혈과 함께 얼굴과 몸의 형태가 상당한 변형이 와 있었고, 이미 죽음이 그를 덮쳤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구조대원의 구조로 구급차에 실렸고, 뒷자석의 27세

남자는 의식은 없었지만 통증 자극에는 반응을 했기에 경추고 정대를 착용시킨 피범벅이된 그의 얼굴을 보며 한가닥 희망을 안은 채 구급차 안에서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한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혈압은 130/90. 호흡은 18회. pain sense(+). 그는 구급대원 2명과 실습생 1명의 최선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그를 소생시킬 수 있는 병원 응급실로 향해졌다.

그의 상태도 그리 양호하진 않았다. 비출혈, 이출혈로 보아 두개골 골절과 진행성 뇌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었고, 그의 오른쪽 대퇴부 또한 골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도 유지와 인공호흡이 시행되었고, 이마에서는 열상으로 출혈이 계속되었다. 그곳은 상처 세척과 지혈 및 드레싱을 위한 처치를 신속히 해주었고, 한명의 대원은 청바지를 입은 그의 오른쪽 바지를 가위로 잘라내고 있었다. 개방성 골절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흔들리는 구급차안에서 우리 대원들의 움직임은 그의 생명이 소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응급 처치를 신속히 해 나갔다. 대퇴부는 골절로 인한 변형과 부종만이 있어 신속한 부목 고정을 실행했다.

나는 그에게 통증 자극을 가해 보았다. 순간 그가 팔을 휘저었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 지간에 “아저씨, 아저씨! 힘내세요. 병원에 다왔습니다. 정신차리세요!”라고 그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의식은 반혼수 상태였지만 나는 그의 생명이 다시 소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의료진들은 그를 인계받아 상태를 체크한 후 곧바로 인투베이션을 시행하는 것 같았다. 의사들의 짧으면서도 긴박한 외침과 분주히 왔다갔다하며 수발 드는 간호사들의 빠른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고온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도 가망없던 운전자는 의사에 의해 사망 진단이 내려졌고, 곧 하얀 시트로 씌워져 어리론가 사라졌다.

# 어느 팔순 노모의 내리사랑

공 주 소 방 서

김 청 환

소방관으로서 발을 디딘지 6개월쯤 되던 때 나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던 내리사랑 이야기 한편이 있어 119구급사례 모음집에 그 이야기를 실고자 한다.

초임 발령을 받은 보령소방서에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우스개소리로 구급취약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이곳은 하루에 한 번 째은 구급신고가 꼭 들어오는 아주 단골 손님들이 많은 곳이다. 그중 팔순 노모와 전신불수의 60대 딸이 사는 곳이 있다. 딸은 과거에는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나 남편이 죽은 후 충격을 받고 지금과 같이 전신불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딸을 데리고 노모는 20여년 간이나 살아오고 있었다. 봄이면 나물을 뜯고 가을이면 품앗이를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언제부터인지 딸이 술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딸의 술값에 쓰려고 노모는 산으로 들로 나물을 뜯러 온 야산을 헤매고 있었다. 딸의 증세는 이제는 심각해져 있어서 금단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다. 출동할때마다 “할머니 술좀 주지 마세요. 할머니가 술을 자꾸 주니까 따님이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 이렇게 당부를 해도 할머니는 “저렇게 해서라도 잊게 해야지. 안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살아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동안이라도 그 불쌍한 것을 위해 해줄수 있는게 이게 전부인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하면서 흐느끼는 것이었다.

사흘이 멀다하고 신고를 해와 여간 귀찮고 짜증나는게 아니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 구급대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술은 따님한테 좋지 않은 것이니까 주셔도 조금씩만 주시고요. 언제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라고 할 수 밖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노모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난 추웠던 겨울 무사히 지내셨는지 또 따님 역시 아직 건강히 지내는지 궁금하다. 부디 건강히 지내시고 따님의 병세에 차도가 있어 앞으로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배워서 남주나?

공 주소 방 서

김 청 환

지겹게도 비가 내리던 지난 8월 중순이었다. 저녁을 먹고 월보를 위해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구급출동지령을 받았다. 조치원역전으로…….

현장에 가보니 아직 기차가 도착하지 않아 환자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후 기차가 도착하고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를 인계받았다. 환자의 얼굴을 본 순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동양계이긴 한데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런 느낌을 뒤로하고 환자의 상태파악에 나섰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 “아가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 두번씩이나 대답을 하지 않기에 이상한 기분으로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 보니 ‘어라! 외국인 이잖아!’ 순간 당황했다.

잠시 침착을 되찾으려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는 머리속으로는 ‘그렇지, 동양인이니까 영어는 나정도 밖에 모르겠지’하며 생각해낸 영어가 바로 “Can you speesk English?”였다. 그랬더니 유창한 발음으로 “Yes” 그러는 것이 아닌가! 예상외로 엉뚱한 대답이 나오자 ‘이거 야단났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음말을 있기에 더욱 당황하고 말았다.

영어반 콩글리쉬반 섞어가면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환자의

이름과 주소, 어디가 아픈지, 이유가 무엇인지 등 몇가지 기초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를 안정시킬 단어가 왜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지 창피하기가 이틀데 없었다. "Take it easy! Take it easy"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 이 말을 연발할 수 밖에…….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이었고 필리핀에서 온 아가씨였는데 아침부터 에어컨 바람을 너무 췌어서 갑자기 두통이 오고 속이 메스꺼워 진거라고 했다. 그날 얼마후 또다른 구급으로 같은 병원을 찾아갔을때 이사벨은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져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Thank You!"를 연발했다. 아마도 진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보다.

사무실로 돌아와 영한사전을 꺼내 놓고 구급차 안에서 내가 말했던 몇가지 말들을 생각하면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많이 틀리진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창피한 마음은 감출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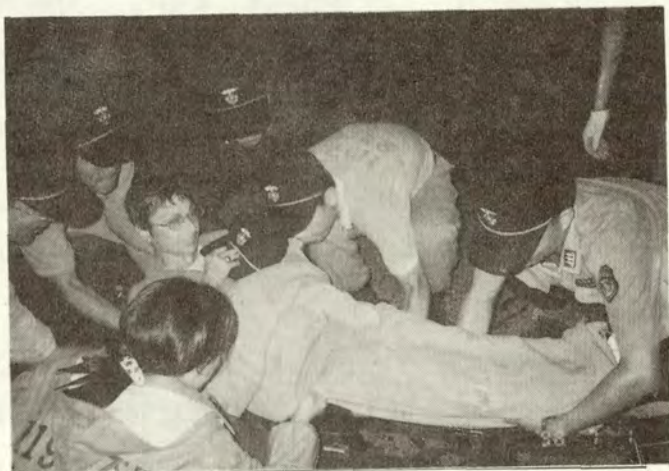
요즘들어 나는 때아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우리 119구급대를 이용할지 모르는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또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요즘 시대에 공무원들은 언제나 말 뿐이고 행동은 뒷전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날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오르지만 내게 그런 각오를 하게 해준 이사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한가지 부탁하

고자 한다. 119구급대의 홍보가 매우 잘 되어있어서 앞으로  
도 언제 어디서 외국인의 신고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에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도 저처럼 창피당하지 말고 열  
심히 외국어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사벨!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날 당신이 한말 대충은  
알아들었어!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사벨  
Thank You는 Thank You!!다.



# 한순간의 실수

공 주 소 방 서

김 주 갑

'98년 8월 3일 새벽. 긴 장마와 무더위가 한창이었고 늦은 시간이어선지 사무실 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간단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뿐이었다.

잠시후 고요함을 깨뜨리는 전화벨이 울렸다. “거기 119조. 지금 가스가 폭발하여 불이났어요”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로 보아 상황이 아주 긴박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우리 대원들은 언제 있을지 모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기에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졌고, 화재현장은 파출소와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원들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출동하면서도 신고지점 부근에 검은 연기가 보이지 않아 화재가 크지않음을 직감하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현장에는 젊은 남녀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순간적이어서 아직 아픔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구급차까지 스스로 걸어서 탑승하였다.

그들이 걸을 수는 있었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대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구급차를 병원으로 향하였고, 환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심시키는 한편 식염수로 연신 화상부위를 소독하였다.

우리는 이송중에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고발생 경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 말로는 둘이서 잠을 자고 일어나 신호철(남, 18세)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타를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였고,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불에 불이 붙자 있는 힘을 다해 불을 끄고 밖으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전 사고가 일어난 방안에서 여러개의 부탄가스통이 어지러이 나뒹굴던 방안의 모습을 떠올리고 사고경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고당사자들은 우연한 사고라고 말하였지만 우리들로서는 이들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타를 켜는 순간 일어난 사고임을 충분히 짐작케 하였다.

우리는 구급차 안에 있던 생리식염수가 전부 떨어질 즈음 공주의료원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다른 동료대원들의 구급차를 2대나 마주쳤다. 응급실 안에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여러명 있었고, 그들이 지르는 비명소리에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우리는 응급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신호철(남, 18세)에게 진통제주사를 맞히고는 곧바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전 충남대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앞으로 30분은 더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 환자들의 고통스런 신음소리. 30분은 참으로 길었다. 이송도중 신호철(남, 18세)은 호흡이 순조롭지 않아 산소소생기로 호흡을 하게하였고, 다행히도 박창선(여, 17세)은 상태가 좀 나아 구급차 안에서 머리를 숙인채 앉아있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우리는 환자를 병원에 인계후 의사에게 환자에 대해 물었고, 의사는 우리에게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만 시키고 서울로 옮길거라는 말만 남겼다.

우리는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화상에 대해 소방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때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다.

전신의 ⅓이상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송한 환자들은 거의 전신에 화상을 입었지 아니한가!

새날이 밝았다. 사건사고인지라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그들이 서울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일이 있는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 사고가 우리의 머리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을때즈음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병원으로 이송했던 그 젊은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젊은 10대들이 한때의 잠깐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어 주어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아울러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 헬멧만 착용했다라면

공 주 소 방 서

김 주 갑

청소년 시기는 몸은 성인인데 비해 정신은 완전한 성인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성인들에 비해 안전의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10대들의 오토바이폭주 문제가 심각하다.

시내에서 곡예를 하듯 자동차들 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흔히 볼 수 있다. 안전장구도 전혀 착용하지 않고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위험 천만하게 달리는 모습.

그들의 머리속엔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데만 쾌감을 느끼고 있다.

얼마전 10대들간의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있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턱대고 쾌감을 위해 달리다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과속에서 비롯한 사고임에는 틀림없었다.

사고당사자인 정연호(남, 19세)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 정연호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때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중국음식점 배달일을 하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칭 '철가방'은 긴급자동차로 착각할 정도다.

과속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온갖 사고의 위험성을 안은채 도로를 달리는 무법자이다.

정연호는 예외는 아니었다. '97. 8. 13일 수요일 그날도 정연호는 배달가방에 주문 받은 음식을 가득실은 채 시내를 질주하다 마주오던 또다른 1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둘은 모두 도로에 나뒹굴었고, 순식간에 지나가던 시민들의 인파에 사고 장소는 뺨 둘러 쌓였다. 인근 상가주민이 119로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는 둘러 쌓인 인파를 헤치고 사고지점에 다가갔다.

현장에는 오토바이 2대가 부딪혀 넘어져 있었고 정연호는 머리에 많은 출혈로 도로바닥에 넓게 피가 퍼진채로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만큼 부어올라 있었지만 다행히도 의식은 있었다.

또 다른 사고자는 우측 대퇴부가 골절된 채 도로바닥에 앉아 있었다. 다행히 골절상 외엔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아주 침착히 앉아있기에 우리는 먼저 정연호의 머리를 거즈와 압박붕대를 사용하여 지혈시키고 신속히 구급차에 태우고 이어서 다른 사고자의 대퇴부를 부목으로 고정시켰다.

그는 정연호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선지 본인은 상관말고 구급차를 빨리 병원으로 출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곁에 있던 택시기사도 그를 태우고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연호만을 태운채 병원으로 구급차를 달렸고, 곧바로 택시기사가 다른 사고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뒤따랐다.

정연호는 구급차 안에서도 의식은 있었으나 사고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자꾸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정연호의 뇌 손상이 우려가 되어 최대한 신속하게 구급차를 달려 곧바로 천안소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정연호를 의사에게 인계하였다.

그 후 정연호는 한번의 뇌 수술과 세 번의 안면부 수술을 하였고 40여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다행히 수술결과가 좋아 40여일의 입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었지만 정연호에게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정연호는 그 때의 악몽을 씻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구급대원으로서 정연호의 오토바이 사고를 보고 참으로 아쉬움이 든다.

정연호는 머리와 얼굴부분 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만약에 헬멧만 착용했었다라면 꺾지않아도 될 고통이 아니었다.

참으로 아쉬웠던 사고가 아닐 수 없다.

# 산길을 넘으며

공 주 소 방 서  
강 용 우

평소와 같이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시계를 보니 시계 바늘이 06:00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하던대로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세면실에 가서 세면을 마치고 청사내외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사무제반사항을 정리한후 차고에 내려가 구급장비 및 시동점검을 한후 사무실에 올라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오늘 날씨가 참 좋을 것만 같았다.

오늘은 아침에 퇴근하여 모처럼 아내와 아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가서 오래간만에 봄내음에 흠뻑 취해보면 한결 몸이 가벼울 것만 같았다.

이렇게 봄나들이를 생각하고 있던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다급히 전화수화기를 들어 보니 조치원 소방파출소 소방교 김태관으로부터 전의면 읍내리 산 21-2 김수락학생에게 구급 접수후 구급출동 지령이 고요하던 정막을 깨면서 급거 출동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조그만한 학생이 손짓을 하고 있었다.

학생에게 구급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니 학생이 그랬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에게 너의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 산쪽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길래 그 쪽에 집이 있냐고 물으니 산을 넘어가면 자기 집이 있다고하여 학생과 함께 산길을 따라

500M가량 걸어가보니 외딴집이 한채 있었다.

학생 집에 도착하여 보니 할머니가 집거실에 누워있었고 옆의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신지를 여쭙어 보니 아무 말이 없어 손자 김수락을 쳐다보니 손자는 할아버지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마당에 나가시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면서 마당에 쓰러져 뒹굴면서 구토하고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할머니의 얼굴을 살펴보니 창백한 채 말이 없으셨다. 할머니를 구급차까지 이송을 해야하는데 주위에는 열로하신 할아버지와 어린손자가 있어 어떻게 산을 넘어 구급차까지 이송을 해야 할지 망막했다.

왜냐하면 현재 면대기소에는 구급차운전원은 한명 밖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구급차 정원은 운전원 1명, 구급요원 2명이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환자에게 이송, 진료 및 응급처치를 병원으로 이송도중에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구급업무를 하다보면 구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할머니를 산길을 따라 산을 넘어 구급차가 있는데까지 이송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답답했다. 들것을 이용하자니 손자가 너무 어려서 들것을 이용할수 없어 할수없이 할머니를 손자와 함께 부축하여 등에 업고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니 힘들고 이마에서 구슬땀이 뺨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가는도중에 잠시 쉬었다 갈까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참고 계속 하여 걷던중 구급차가 눈에 반갑게 보인것은 처음인것 같았다.

더욱더 힘을 내어 구급차에 할머니와 손자를 태우고 손자에게 할머니의 팔, 다리를 주물러 주라고 당부하고 나는 운전석에 앉아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할머니를 이송하고 손자에게 할머니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고 구급차에 올라 전의대기소로 귀소를 하면서 왠지 몸이 가벼우면서 기분이 상쾌했다.

하늘은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게 아닌가…….

# 진정한 봉사와 희생

보령소방서  
박태영

'97. 3. 5. 15:30경. 봄기운이 대지를 녹이고 있는 3월초.

일반적인 구급 신고와는 다른 느낌의 신고를 받았다. 전혀 다급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 전화를 받는 우리가 오히려 궁금해 진다. 장기기증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 줄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독실한 신앙생활과 평소 모범적이고 봉사하는 생활로 주위의 찬사를 받고 있는 분이였다. 어느날 몸에 이상을 느껴 검진을 한 결과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고 삶을 정리하고 있는 분이였다.

일반인이라면 주어진 현실과 불행에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마치게 됐을지도 모른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했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사회를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길을 찾았다.

바로 자신의 신체의 장기를 사회에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환자를 경험했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은 처음이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동행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미안함을 나타냈다.

아마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다면 훨씬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평소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하는일이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람을 갖고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많은 길이 있다.

“봉사와 희생” 결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삶의 방식에 따라 누구든지 의미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회를 위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본다.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삼가 명복을 빈다.

## 짧은 인연의 고마움

보령소방서  
정영찬

'97년 4월 29일 17시 30분경 37세의 김세환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수욕장에 놀러가던 중 약간의 음주로 인해 나무를 들이 받는 차량사고를 당하였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아이들을 걱정하느라 자기 상처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불러댔다. “선생님, 아이들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피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시고요.” 내가 말했다.

사실 아이들 중 다섯살 먹은 동생의 얼굴만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조금씩 피가 흐르는 정도였고 형은 상처하나 없는 상태였다. 흐르는 피를 거즈로 계속 지혈을 시키고 압박붕대로 드레싱을 해 보았지만 깊숙히 패인 이마에서 나오는 피를 쉽게 막기란 역부족이었다. 결국 한 손으로 그의 이마의 피를 누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그 아이의 피를 닦아 주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병원에 이르렀고 환자를 내리는 나의 등은 이미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때까지도 그는 자신의 피붙이를 찾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괜한 눈을 들어 한쪽 벽에 기대어 있는 나를 보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병원에 다 왔단다. 의사선생님들이 아빠를 치료해 줄꺼야.”

얹전하던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어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달래야만 했다.

그 후 그때의 일을 잊고 지내던 어느 오후 한 대의 택시가 파출소 앞에 정차하더니 웬 낯선 이가 찾아왔다. 언뜻 보기에 는 길을 묻기위해 찾아온 방문객인 듯 싶었으나 고개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에서 얼마 전 사고를 당한 김세환씨임을 알았고 모자를 벗은 그의 이마 위에는 수술을 한 자국이 선명하였다.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이거 얼마 안되지만 같이 드십시오.”하며 그의 손에 들린 딸기 한 상자를 성큼 내밀었다.

그의 곁엔 고통속에서 그렇게 찾아 헤메던 아이가 있었고 여전히 천진난만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아이의 멍든 얼굴은 가시지 않고 그대로였지만 당시 겁을 먹던 그 불안함은 얼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저희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같은 상황이 닥쳤더라면 해야 했을 겁니다. 정말 그만한 게 다행입니다.”

내가 옆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자, 기송아! 이제 어떠니? 아프지 않아? 울지도 않고 참으로 기특하더구나.” 애써 가져온 딸기를 전해주고 금방 돌아가

는 그의 뒷 모습은 이미 아이의 삶에 있어서는 작은 영웅이 된  
한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비록 한때나마 작은 실수로 인해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신  
음속에서 소리쳐 부르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러  
한 오점을 씻은 듯이 잊게 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느꼈  
으리라!

진정한 사랑의 정을…….

# 폭우 속 작은 용기

보령소방서  
정영찬

서해안에도 폭우가 몰아친 한 여름, 그러니까 '98. 8. 12일 16시 55분경 지글대는 무전기 소리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순간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게 되었다.

고대도에 사는 일가족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매몰되어 극적으로 구조된 후 어선으로 급히 오고 있다는 연락이었다. “고대도라면 앞으로 약 3~40여분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한참 후 직할파출소 구급차량과 보건소 차량, 구조대 등이 도착하였고 시청직원 등 유관기관 대부분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우리 대원들은 각자 임무를 나누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임무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응급처치 기구 등을 준비하기에 바빴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배가 도착하였다. 서둘러 대원들이 갑판위로 뛰어 올랐고 주변의 사람들이 배 주위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항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었지만 대원들의 활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다름아닌 주변 사람들이었기에 이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었지만 그런것조차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얼마나 다쳤을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야 할 텐데’

여러가지 복잡  
잡한 생각들이  
순간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고  
.....

네명의 환자가  
발생한 배  
위에서 직할과  
출소 구급대가



먼저 상태가 조금은 양호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송하였고 뒤  
이어 들것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우리가 인계받아 이송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해온 사태의 심각성보다는 이송도중 할머니  
의 말쑤으로 인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저녁을 먹던  
중 집이 무너지면서 냉장고를 버팀목 삼아 침착하게 행동해온  
일가족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이 그러했다.

정말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위험했던 순간에 혼자만의 안  
전이 아닌 일가족 모두를 생각해온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게  
만 느껴졌다.

비록 폭우와 산사태로 뜻하지 않은 처지가 되었지만 어찌 사  
람의 목숨이 그런 하찮은 재물에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다시  
금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것은 어찌면,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살아있는 자의 작은 의무가 아닌가 싶다.

이송 후 돌아오는 길은, 잠시도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으며 나 자신의 경우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 비교된 생각으로 복잡하기만 하였다.

위험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비록 작은 피해가 있다 하여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혜, 어쩌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소방관에게도 꼭 필요한 현장에서의 대처방안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의무이기 보다는 하나의 작은 살아가는 용기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기는 언제나 그 숨은 진가를 발휘하는 지도 모른다.

# 농약가루를 뒤집어 쓴 아낙네

보령소방서  
복정수

'98. 6. 5.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산골마을 대치면 오룡리 김상희(남, 39세)부부는 일찌감치 아침식사를 하고 고추밭일을 하기위해 경운기에 농자재를 싣고 집을 나섰다.

IMF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고추를 보며, 오늘도 어려움을 잊고 농사일을 열중이다.

고추밭에 도착한 김씨 부부는 고추말뚝을 세우고 줄을 늘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참이 흘러 작업이 끝나고 빵에 음료수로 간식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농약을 배합하기 위해 경운기에 실려있는 약통에 물을 채우고 약을 배합후 살포 작업을 시작하였다.

약물이 다 떨어지고 다시 농약을 배합하기위해 김경숙(여, 36세)씨는 약통에 물을 채우고 물약을 넣은후 입제약(약명:후퍼수화제-고추역병치료농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위를 가져오지 않아 하는수 없이 손으로 약봉지를 찢으려는데 약봉지가 잘 찢기지 않아 힘을 세계 주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눈을 뜰수가 없었다. 힘을 너무 주어 봉지가 뜯기는 순간에 농약가루가 얼굴에 흩뿌렸던 것이다.

“여보! 여보!” 급히 부르는 소리에 남편 김상희씨는 달려와 보니 농약가루를 얼굴에 뒤집어 쓴 아내는 고통스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니 주민 김상호를 발견 119에 신고를 요청한 후, 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농약가루를 제거하며 구급대를 기다렸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 도착하여 김경숙을 인근 병원에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자칫 실명으로까지 확대될 뻔 했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경숙은 치료를 받고 이상없이 귀가하여 오늘도 평상시와 바쁜 농사일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 보람이와 구급차

보령소방서  
이 병 호

구급신고를 접하다보면 가끔은 난해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구급업무 성격상 신고자의 이송부탁을 모두 들어줄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의 사건도 긴급을 요하는 환자이송의 성격을 벗어나 있었고 신고자의 세세한 가정사를 알수 없었기에 첫신고에서 정중히 현 구급업무의 성격을 설명하고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일이 있는 몇일후 우리 파출소 구급대는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몇일전에 장거리 구급이송 신고자 전이었다.

그 환자의 이름은 정보람이고 우리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덕명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어린이였는데 만성질환인 재생불량성 악성빈혈을 앓고 있는 극빈한 가정형편상 주위에서 방치했다가는 심한 고통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할 딱한 처지였다.

대국민 최고의 서비스와 봉사를 지향하는 소방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환자임을 파악하고 서장님이하 관련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정보람이를 돕기위한 일대의 전기를 마련키 위해 파출소장이하 전직원은 이때부터 동분서주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급업무는 위급환자를 위한 이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람이와 같은 만성질환에 시도때도 없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고열을 내며 쓰러지는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되나 극빈한 가정형편상 엄두가 나지않는 일이었다.

매일이 될지도 모르는 서울까지의 장거리 이송을 서장님의 특별한 배려와 파출소 구급대의 헌신적인 살신성인의 자세로 보람이를 살리기위한 눈물나는 노력이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전일근무자와 업무 인계인수후 바로 전화벨이 울리고 보람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보람이를 위한 우리들의 일이 시작된 것이다.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보니 보람이의 파래진 얼굴위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고열로 인해 몸은 가누지도 못하고 있었다. 서울까지의 장장 왕복 320km의 거리에 이송시간만은 6시간이 넘는 장거리 이송에도 관내의 응급환자에 대한 수혜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인근 파출소와의 구급이송 협조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터라 보람이에게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쏟을 수 있었다.

보람이의 가정형편상 병원입원을 못하여 임시치료후 귀가하여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고 구급대도 항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만 했다.

보람이의 장거리 이송이 몇차례 계속되면서 우리파출소 전직원은 단순 이송에 머물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보탬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궁리 끝에 몇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보람이를 돕기 위한 지역민의 도움을 호소하기로 하였다.

유관기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노력도 적극 홍보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선 우리파출소 전직원이 작은 정성을 모아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주위에 전달되면서 지역신문에 게재되고 방송을 타면서 보람이를 돕기 위한 운동이 지역차원을 넘어서 전개되었는데 소방이 구심점 역할을 하여 이루어진 생명구하기 운동의 감동적인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지금 보람이의 병세는 많이 호전되었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당시에 여러사람들의 정성이 모아져 보람이의 병세를 호전시키는데 경제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는 알수있었다.

보람이의 이름대로 119의 봉사소방 이미지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이 사건에서 한 작은 생명을 우리 손으로 건져낸 진정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 장 애 인

## 보령소방서 나 현 규

서천소방파출소 119구급대에서 '98. 2. 5일부터 현재까지 구급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서천군 중천면 도만리 김태영(남, 80세)에 대한 사례입니다.

김태영씨는 지체 장애4급인 며느리(박명이, 45세)와 거동이 불능한 부인(지화순, 66세)과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전립선 비대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로 15일을 주기로 정기적인 검진 및 소변주머니를 교체가 필요하나 장애인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적은 월급으로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으로 입원을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거동이 어렵다보니 15일마다 병원 진료는 더욱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98. 2월 5일 구급봉사 활동을 계기로 김씨의 처지를 알게된 119구급대원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집을 정기방문하여 화재예방 및 전기, 가스시설 점검과 집 안팎을 청소를 하며, 필요한 물품 및 약품 구입 심부름도 하였다.

특히 김씨와 부인(지화순)의 건강상태가 심해 병원 중환자실(김태영 2회, 지화순 1회)에 입원 했을 때 수시로 병원에 방문하여 간호를 지극히 하였으며, 병원 입원비 또한 이들의 사비

를 모아서 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병원 진료비(15일에 한번씩)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김씨의 폐 치료를 위한 산소통 및 호흡보조기구를 구입에 애를 먹던중 서해병원 담당의사의 2명의 스폰서를 지원 받아 집에 산소통 및 호흡보조기구를 설치하여 폐 치료에 큰 효과를 주는등 경제적으로 김씨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이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김씨 부부는 T셔츠 2벌을 구입하여 고마운 뜻을 대신 전하여 구급대원과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앞으로 김태영씨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소방에도 매진 할 것이다.

# 아가의 첫 울음소리

보령소방서  
방미홍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없이 아니 아무런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리라. 갖은 고통을 겪으며 이루어진 것은 그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할 것이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결과에 대한 애착심도 클 것이다.

여자로써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경우는 출산의 순간일 것이다.

1996.12.21 아침 7시경 이른 아침에 상황실로부터 대천동, 2층 조립식 건물인 주택에 구급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데 상황실에서 몹시 급박한 진통을 호소하는 분만 임신부로서 신고자가 조속히 와달라는 신고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출동하라는 무전 연락이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도로상에 차량이 많지 않아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바 남편이 집 앞에 나와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면서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응급처치세트를 들고 2층집에 뛰어 올라가 보니 산모는 분만중이라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을 비틀고 있었다.

당황해 하는 산모에게 차분한 마음으로 몸을 바로 하고 호흡을 크게 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크게 주라고 하면서 안정을 시

켰다. 아기의 머리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로써 천천히 손으로 머리를 잡아주고 가볍게 아래로 눌러주며 잡아 빼어보니 남자 아기로써 기도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여러번 때려주니 울음과 함께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기의 체온을 유지시킬만한 옷을 입히고 타월로 감싼 뒤 이불로 보온유지하며 산모와 함께 병원에 이송했다.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경유해서 분만실로 이송해주고 의사에게 인계한 후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서 축하한다고 말하니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다음에 꼭 찾아 뵈겠다고 인사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귀소 길에 올랐다.

귀소 길에 오르는 중에 아기의 첫 울음소리 들었을 때의 기쁨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하루종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했다.

# 우리 이웃

아 산 소 방 서  
이 창 현

98년 5월 26일 20시 14분경 예산군 대술면 농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실신하였다는 구급신고를 예산 소방파출소에서 유선으로 접하고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평소 농촌지역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구급신고의 대부분이 노환으로 인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현장 인근까지는 약 5~6분만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의 집을 찾는 것이 다음의 문제였다. 신고자나 신고자 주변의 사람들이 큰 길가에 나와서 안내를 하여 준다면 구급현장의 위치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급격히 줄어든 농촌 마을의 실정이다.

길에서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구급차를 세우더니 신고자의 집은 지금 온길로 조금더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어린 여자아이 말을 듣고 차를 돌려 나와 현장에 도착하니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모여 있었고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모여 있었고 주민으로 보이는 어른 한분이 환자를 등에 업고 내려오고 있었다.

신속히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상태를 살펴보니 실신한 상태였으며 어깨를 두드려 보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호흡을 급하게 쉬고 있었다. 신속히 인공호흡기를 착용시키고 인근병원으로 옮겨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응급전문의가 진찰을 하고 나서야 팬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환자는 어린 딸 하나와 함께 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평소 간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린딸이 어머니가 실신하였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119로 신고한 어린아이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머니가 잘못되면 어린아이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가족이 당한 일처럼 걱정해 주고 도와주었기에 환자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며, 비록 뼈를 깎는 힘든 일을 통하여 몸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온정으로 넘치는 농촌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이러한 구급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생각하는 온정이 있는 한 요즘처럼 각박한 현실은 지나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일 뿐이고 앞으로는 복되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사랑해, 난 괜찮아

아 산 소 방 서

김 영 식

밤 〇시 25분, 어스름녘 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는 도로를 따라서 대원들은 귀소하고 있었다. 복통환자가 발생하여 환자를 30km떨어져 위치한 천안 〇〇병원에 이송후 귀소하는 중이었다. “응급환자 발생! 장소, 둔포면 둔포리 남서울빌라 부근 서예돈씨댁”이라는 무전연락이 전해져 왔다. 사이렌을 켜고 5분여를 달려 남서울빌라 부근에 도달한 즈음 할아버지 한 분이 손짓으로 대원들을 부르는 것이 차량의 불빛에 보였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혀를 입 밖으로 내민채 누워있었고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분이 그 옆에서 울고 있었다. 갑자기 쓰러져서 혀를 입 밖으로 내놓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를 달래고 보조들것으로 환자를 구급차에 태운 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니 좌측반신이 모두 감각이 없었으며 다행히 의식은 정상이었다.

증상으로 미루어 뇌출혈이 의심되었다. 당황한 할아버지와 아주머니에게 “곧 병원에 도착할 것이니 걱정 마세요”라고 위로를 하여 진정시켰다. 뇌출혈은 출혈반대쪽의 신체가 마비되는 것이다. 신속한 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송중 환자의 행동확보를 위해 마비증세를 일으키는 부위를 아래로 유지하면서 이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하여 숙지하고 있었다.

환자가 필기도구를 청해 비치된 종이와 볼펜을 주었더니 종이에 차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서투르게 무엇이라고 쓰는 것이었다. 아주머니가 읽어줄 것을 청해 읽어보았더니 “사랑해, 난 괜찮아”라고 아주머니를 위로하고자 쓴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쥐고 눈물을 흘렸다. 차는 달려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귀소하는 중에 여러가지 생각에 잠겼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무거운 짐을 견디기 힘들어 가정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걱정할 아내를 위해 사랑한다는 말과 괜찮다고 위로하는 서준석씨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이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참다운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귀감이라 할 것이다. 서준석씨의 병이 무사히 치료되길 빌며 구급차는 새벽의 도로를 달려 귀소하였다.

## 부부의 정

아 산 소 방 서

김 선 학

새벽 3시경 여지없이 울어대는 119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들자 전화 목소리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게만 들려오는 것이었다.

“예 무슨 일이시지요?”

“예, 저의 남편이 세상이 싫다 하면서 무슨 약을 먹었나봐요. 빨리 좀 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는 구급차량 담당기관원을 깨워서 환자가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신속하게 구급차에 올랐다.

환자발생 장소까지의 거리는 다행히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빨리 현장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환자라는 남자는 방안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정신은 있는지 뭐라고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나 다른 이상한 것은 발견하지는 못했다.

신고한 아주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그제야 아저씨가 술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병원엘 가고 싶어하는 아주머니 앞에서는 왜 술을 먹고 신고를 하셨냐고 한 마디 정도는 하고 싶었지만 그런 감정은 이내 수그러들고만 있었다.

아저씨의 상태는 아주머니가 걱정할 정도로 그리 심각한 상

태는 아니었지만 아주머니의 속마음을 생각하니 또한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아저씨를 깨워 병원에 가야하니 정신차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아저씨는 너희는 뭐 하는 것들이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만 나오고만 싶었지만 아주머니를 보자 그런 감정 또한 이내 수그러지고 말았다.

시간이 좀 흐르고 아저씨는 다시금 신음소리를 내며 몸이 괴로운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저씨를 부추겨 세워 겨우 구급차량에 탑승시킬 수 있었으며 병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술에 취한 아저씨는 내가 왜 여기엘 오냐며 아주머니에게 욕을 하며 취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고통스러워 하는 아저씨를 보다 못해 우리에게 신고했을 아주머니를 생각하며 이런것이 부부의 정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새벽의 시간은 멈추어진 듯 고요하기만 하였다. 아주머니께서는 아저씨가 저렇게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닌데 요즘에 와서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 걱정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셨다고 한다. 약이 아닌 술을 드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새벽의 시간을 풀고 힘차게 하루 일을 마감한다.

# 고마버요!

아 산 소 방 서

김 영 식

'98년 1월 7일 11시 50분경 파출소 사무실에서는 경제침체로 인한 구급신고 사례의 유형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많았던 교통사고나 사고부상은 점차 줄어들고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때 갑자기 119전화벨이 사무실을 울렸다.

신고자는 자택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행려병자가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구급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구급차량에 탑승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한 바 허름한 헛간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워 있었고 몇몇 주민들이 주위에서 어쩔줄을 몰라 발을 구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인적도 드문 산속 외딴 농장에 외국인이 누워 있을까? 하는 생각에 궁금증이 앞섰다.

구급차량에서 내려 신속히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바 환자는 발에 동상이 심하게 걸려 파랗게 변색이 되어 있었으며 싸구려 파카를 걸치고 누워 있었는데 파카 하나로 추운 겨울밤을 헛간에서 지새운 모양이었다.

대원은 우선 추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량에

태운후 담요로 몸을 감싸고 히터를 켜 후 본서 지령실로 연락하고 일단 둔포면사무소로 이송하였다.

둔포면사무소 사회복지계 직원은 행려병자를 많이 처리해 왔지만 외국인은 처음으로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면사무소 직원이 여러곳에 연락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원들은 영어로 대화를 시도, 환자는 태국인으로 이름은 수카논(Sucanon)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96년 입국평택에 소재하는 ○○산업에 근무하다가 경기한파로 실직, 오갈데곳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이런 지경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1시간여를 지나서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보건소 및 필요한 관계기관을 수배했지만 가능한 이용시설이 없으므로 난감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원들은 이전의 근무처인 ○○산업에는 외국인 동료들이 있을 것이므로 연락을 취하였던 바 ○○산업에 이송하여도 된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15:20 ○○산업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고 나오는데 수카논은 대원들에게 “고마버요”라는 말과 함께 “태국의 대사관으로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회사에서 임시로 기거할수는 있지만 해고된 직장에서 오래 기거할 수도 없고 한국 경기의 침체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도 없기에 본국으로 가는 길 외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기 때문이리라.

새로운 구급신고에 대기하여야 하는 구급대원으로서 수카논의 이야기대로 대사관에 데려다주지 못하고 귀소하는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으며, 또한 아무 대책도 없던 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시켰던 회사에서 오갈 곳 없는 그것도 발에 동상이 있는 그를 잘 치료해 줄것 같지 않아 귀소하는 대원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 아빠! 눈감으면 안돼!

아 산 소 방 서  
조 영 선

'95년 11월 30일 14:17경 아산시 용화동 남산다방 옆 주택 구급출동이라는 방송소리에 구급대원은 왠지 귀에 익은 장소라는 생각과 함께 구급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구급신고자를 만나 집으로 안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아! 그 협심증 환자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다급한 마음이 앞섰다.

환자가 치료약으로 복용하고 있는 니트로 글리세린을 가져오라고 하여 허 밑에 넣어주고 신속히 구급차에 옮겨 태운후 산소공급과 동시에 옷을 느슨하게 풀고 상체를 올려주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인근병원으로 출발했다.

환자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천안 종합병원까지 이송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종합병원까지는 45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므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환자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하는수 없이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구급차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환자 옆에는 이제 겨우 아홉살난 여자아이가 있었다. 곁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 아빠! 죽으면 안

돼! 눈감으면 안돼!”하면서 울부짖었다. 우리는 너무도 애처로워 “너 몇살이니?” 묻자 “아홉 살이에요. 학교에 갔다가 오니까 아빠가 술을 마시고 집에서 누워 가슴부위를 움켜잡고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119에 신고하려 하니 아버지는 수차에 걸려 119구급차를 이용했었기에 미안한 마음에서 인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아픔을 참고 있었다고 말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빠의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당황하여 119에 신고했다고 하며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하며 구급대원의 손을 꼭 잡고 울기 시작했다.

협심증 치료를 받는 환자는 술을 마시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술을 마셨으며 구급차를 여러번 이용하여 구급대원들을 놀라게 했던 환자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묻자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안계세요.”하며 울먹였다. 나는 여자아이를 진정시키는 한편 의식이 혼미해져가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계속 체크해 본 결과 혈압(90/50mmHg), 맥박(112회/분)을 나타내고 있었고 계속하여 가슴의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과 초조함 속에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신속히 천안종합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치료 약을 혀 밑에 넣어 주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보라고 당부한 후 입원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귀소하였다.

이번 출동으로 협심증 환자는 꾸준한 병원치료를 요하며 특히 음주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므로 절대로 금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폭음으로 나날을 보내며 치료를 소홀히 하여 병을 악화시켜온 것을 보고 달리 도움이 될 수 없음이 안타까웠을 뿐이다.

# 엄마의 의무

아 산 소 방 서  
이 상 운

어느 해 보다고 많은 양의 눈과 매섭던 추위도 봄의 기운에 밀려서 그 무섭던 맹위가 서서히 사그러 들던 2월의 오늘도 변함없이 불철주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교대 근무하기 위하여 장비점검 및 청사 환경정리를 하고 있을때.

어느 때와 같이 소내근무자의 구급출동 연락을 받고 우리 구급대는 신속히 구급신고 장소로 향하였다. 이때의 시간은 06:1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구급신고가 접수된 장소는 덕산면 신평리 1구 ○○여관 이었는데 구급차의 가쁜 싸이렌 소리에 여관주인이 길가에서 숨가쁜 표정으로 우리 구급대를 맞이하였다.

여관 직원의 안내로 신속히 분리형 들것과 구급함을 소지하여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환자가 있는 방으로 향하였다. 방에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자는 나이가 30대 정도로 보였으며, 그 사람이 응급환자임을 직감하고 먼저 여보세요 하며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유무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몹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두손으로 복부쪽을 부여잡고 신음소리와 함께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한 여자는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환자의 직장후배라 하였으며, 여관 아주머니처럼 놀란 표정으로 우리 구급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환자의 상태로 보아 산모로 복통을 호소함에 유산의 위험성을 의심하였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히 환자를 현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마음을 안정시킨 후 분리형 들것을 이용하여 구급차에 탑승시켰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산모환자의 이송상황을 알리며 병원으로 향하였다.

구급차에는 환자와 직장후배라는 여자가 동승하여 병원으로 향하였으며, 이송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고 맥박이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산소를 흡입하며 인공호흡을 겸하여 실시한 바 환자의 의식이 되돌아 왔으며, 일단 응급상황을 넘기면서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옮겨 당직의사에게 인계하고서야 우리 구급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자세한 발생경위를 알아본 결과 환자는 산모로 덕산에 여행차 왔다가 전날 후배와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으로써 한편으론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산모로써 어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병원 간호사에게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물어보니 검사결과를 보아야 알겠지만 아마 유산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 있었다.

구급현장의 일선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24시간 불  
철주야 구급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솔한 행동을 보니 몹시 안타  
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 환자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  
정이 있었겠지만 어찌하여 한 생명을 잉태한 산모가 그러한 무  
모한 행동을 하였나 마음이 아팠다.

# 내 한입만 덜어도...

아 산 소 방 서

김 연 실

'98년 3월 14일, 눈이 부시게 맑은 날이었다.

약물중독 환자발생이라는 구급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시골 길을 텅텅거리며 가는 구급대원들은 서로 말도 못한채 침묵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아수라장이라 하던가! 80대 노인분의 입에선 맹독으로 이름을 떨치는 초록색 물 그라목손이 꾸역꾸역 나오면서 온몸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60세 정도 되어보이는 아들이 그라목손을 맨 손으로 받아내며 어쩔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일단 아들에게 먼저 소리쳐 물에 깨끗이 닦으라고 이야기했으나 당황한 아들은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며 막무가내였다. 아들에게 약물의 독성에 대해 설명하고 수돗가로 데려가 씻게 하는 한편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그가 마신 약병을 확인했다. 500ml병 1/5정도만 남기고 원액을 모두 마셔버렸다는 것이다. 구급대원들도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환자를 들것으로 구급차량 내에 이송하였다.

현장을 출발하면서 환자를 옆으로 누여 계속 구토를 유도하였고, 병원에 연락을 취하여 그라목손 약물중독 환자를 이송중이니 미리 응급처치준비를 의뢰하였다.

그렇게 15분을 달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응급실에는 위 세척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환자를 병원측에 인계한 후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참으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구급활동일지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와 쟁한 하늘을 쳐다볼 때, 응급실 안에서 아들되는 사람의 통곡소리가 들렸다.

몇일 후 파출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바로 그 할아버지 아들이었다. “지난번에 오셔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말을 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약을 복용한 이유인 즉 워낙 가난한 농촌살림이었는데 특수작물을 해보려고 빚을 얻어 비닐하우스를 치고 씨앗을 심었는데 IMF가 시작되면서 기름값이 올라 그냥 얼려 죽여 빚만 더진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할아버지가 내한 입만 털어줘도 그게 어디냐 라는 말을 평소 자주 했다는 것이다. 바로 돈 때문에 귀한 목숨을 버린 것이다.

공허한 내마음은 왜이리 씁쓸한지…….

# 붉은 하천

서 산 소 방 서  
박 철 우

항상 긴장감으로 구급 업무를 하다보면 얼굴에 송이송이 땀 발울이 맺힐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습도는 높고 무더위는 짜증스럽게 하며 멀리 보이는 녹음은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며 논밭 사이로 무성한 풀은 곳곳이 서 있다. 어디를 보나 여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그러나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우가 심하여 물난리를 만들고 말았다. 교통사고 발생지령과 함께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도로상으로 출동하였다.

안개가 조금 끼인 상태로 주위는 어두워져 가고 있었으며 삼거리에서 약 50m지점 지나 트럭과 12인승 승합차량이 충돌하여 트럭탑승자 3명은 안면부 및 하지 타박상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았으나 승합차량 탑승자 11명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다. 보고싶지 않았다.

사고차량 운전석이 휴지처럼 구겨져 부서진 채로 논둑(약 3m)밑으로 사람과 함께 물에 반쯤 잠겨져 있었고 차량 안에는 상처투성이 환자로만 가득차 있다. 장마로 하천은 수심 1m정도였고 붉은피가 하천의 물과 섞여 흐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창백한 상태로 입만 벌여질 뿐, 몇몇은 차량을 흔들며 밀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구조구급대원들은 건인줄을 이용하여 사고차량과 연결한 후 물에서 언덕까지 승합차량을 끌어올려 고정시킨 다음 환자상태를 확인한바 2명은 호흡과 맥박이 있어 응급처치하여 구급차량으로 이송하였고 또 구조대원 1명과 함께 봉고차량 창문으로 내부로 진입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니 6명은 호흡과 맥박이 없고 동공이 완전히 확대되어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좌석에 하지가 끼인 환자를 구조하였다. 또한 운전자 역시 하지가 운전석 부분에 끼인 채로 의식이 없었으며 기도유지 후 구조대원들이 유압장비를 사용하여 구조하려보니 경골 및 비골이 골절된 상태로 피부가 완전히 일그러진 상태였다. 부목으로 고정하고 드레싱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인근의료원으로 이송하였다.

숨이 막힌다. 내 가슴이 답답하다.

긴장의 연속. 몸에는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4명은 중환자로 입원하게 되었다.

사체가 누워있던 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고 장마비가 부슬부슬 계속 내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여 보니 가족들의 울음소리는 통곡의 절규일 뿐.

매일 되풀이되는 교통사고...

도대체 언제나 없어지려나.

# 우리 어머니

서 산 소 방 서  
이 현 무

출근하자마자 구급출동 지령이 들렸다. '98년 7월 4일 09:00 서산시 성연 예덕리에 거주하는 김미자(여, 58세)씨가 환자였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다치고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했다. 아들 박홍태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한다. 들것과 경추 및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조심조심 응급처치를 하였다. 보잘 것 없는 농가에 허름한 살림살이.

삶에 지친듯한 그늘진 얼굴들.

고통만큼의 세월이 환자 김미자씨에게 절실한 삶의 애착을 갖게 하였는가. 우리네 부모님과 어찌그리 똑같은 모습일까.

침착하게 김미자씨의 경추와 척추를 고정시켜 구급차량으로 옮겼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내 가진 것이 없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모두 해 주고싶어진다.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아픔보다는 진료비 걱정이 먼저 앞서는 “우리의 어머니...”

늘 감사와 경애로 가득차 있는 우리는 생전의 효도로도 부족하련만, 자식이 효도를 하고자하나 기다리지 않는 다는 옛말을 거울삼아 정성으로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구급차량안에서 나의

마음을 문득 시큰하게한다.

굳어진 손마디와 거친피부, 어디 어느 곳 한 가운데라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줄 곳은 없었다. 달리는 차창밖에는 허리숙여 일손을 놀리지 않는 농부들의 모습이 하나 둘 사라지고 그들이 뿜어내는 입김이 내 몸을 후덥지근하게 한다.

아파도 아프지 않은 듯 억지로 참아내던 “미련하고 우직하기만 한” 예전의 우리 부모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누워 계신다. 힘들여 쌓아놓은 피눈물의 세월은 이제 자식에게 의지하며 고생을 끝내도 되는데 만류도 걱정도 모두 자식들의 잔소리 일 뿐.

환자는 통증을 이겨내기가 어려운지 깊은 인상을 쓰며, 불편하신지 여쭙는 내마음이 본인보다 더욱 가슴이 쓰리다.

얼마 후 ○○의료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옮겼다.

착잡해 하는 환자의 얼굴이 응급실 안에서 더욱 또렷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치료 잘 받으시라는 말을 남기고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다시 무전소리가 요란하다.

“음암면 음암마을 아파트 사고 부상환자 발생! 구급출동!”

## 짧은 만남

서 산 소 방 서  
이 찬 수

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윤봉임 할머니 “독거노인 특별 봉사활동” 중 '94년 가을 할머니와 그렇게 만났다.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도비산 너머 끝자락 백운사 아래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으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모터는 고장이 나 있고 물이 빠져나갈 하수구 마저 막혀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화장실은 대문밖에 있어 노인이 이용하기엔 더없이 불편하고 허름하기 짝이 없는 집.

할머니의 건강은 낡은 집만큼이나 쇠약해 있었다. 시력은 전혀 없었고 중풍에 손이 떨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에 의지하며 겨우 화장실에 가는 정도. 키는 작고 몸도 왜소하게 말라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을 실감케 하였다.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겁부터 났고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흐트러지고 더듬거리는 발음으로 늘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과거 고생담이었다.

만주로 일본으로 남편을 따라 떠돌다 정착한 곳이 지금 사는 이 곳이었으며 남편이 염전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지병 악화로 사망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중풍까지 겹치는 고통 속에서 육년여 세월을 사신 것이다.

근무일이 아니면 자주 할머니 댁에 들러 지하수 모터는 새것으로 교체하였고 주방 하수구도 새 파이프를 묻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장실은 면사무소에 의뢰하여 간이 화장실로 교체하였다. 그렇게 하루하루 할머니와의 정이 깊어지면서 전화사용법도 알려드렸더니 정이 그리운 할머니는 내가 근무하는 날이면 사무실에 전화를 제법 잘 하셨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 그리고 가슴 저리도록 슬픈 젊은 시절 이야기, 평생 자식하나 낳아 길러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말을 하실 때 사무실까지 전화하시는 마음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상처만 안으며 살아온 자신이 황혼녘에 나를 만난 것을 늘 감사한다 하셨다.

할머니를 만나지 두 달쯤 후,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심상치 않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채 녹지도 않은 길을 재촉하여 도착해 보니 백운사 스님이 이미와 계셨다. 그 와중에도 스님은 큰소리로 할머니를 나무라신다.

애기인 즉 눈을 수술하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듣고 고집을 부리신 모양이다. 스님은 수술이 불가능함을 이야기하였고 할머니는 극구 고집하고 계셨다.

몸도 허약하신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막무가내다.

결국 구급차로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내 등에 엮고 2층 안과 계단을 오르려니 뼈마디가 등에 닿는 것이 순간 가없다는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힘없이 등을 대고 앉아있는 초췌한 할머니 모습에서 나의 어머니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 얼마가 지나자 수술을 하면 약간의 가능성도 있으나 몸이 쇠약하여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할머니에겐 절망의 말뿐...

희망을 잃은 할머니, 앞으로의 날들은 내가 눈이 되어 드리겠노라고 위로하며 터벅터벅 병원을 나섰다.

찢겨진 상처, 한없이 무거웠던 삶. 어둡기만 했던 할머니의 지난날들은 나를 빌어 과거를 버리고 남은 생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게 한다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닐텐데. 집에 도착하자 밤 한뼘박, 대추 한 움큼, 고구마 몇 개를 비닐 봉지에 담아주신다.

눈물이 흘렀다. 거칠어진 세월의 손마디가 말하여주는 그 손수보다도 아름다운 할머니의 정성에 봉지를 받아들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던 것이다. 부둥켜 앓아주고 싶은 인고의 삶,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온 한 여인의 한...

얼굴도 모르는 나의 자식을 당신의 손자라며 갖다 주라는 말에 세태에 때문은 이유일까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점연쩍게 웃으시며 엇그제 가져온 반찬그릇에 어디서 구했는지 참쌀과 수수를 조금씩 또 담아 주신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한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할머니 댁을 찾았다. 아주머니들이 집안에서 웅성거린다.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천장을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다가 웃다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듯이 눈시울을 적셨다.

의료원... 영양실조에서 오는 증세라는 의사의 말. 하루가 지나니 점차 회복이 되었고 내 목소리도 알아들으신다. 병실에서 말없이 울먹여야 했다.

근무가 아닌 날은 대소변을 받아 드렸지만 근무일이 걱정되어 간병자를 찾고자 시청으로 재활복지센터로 가 보았지만 모두가 실망만 안겨준다.

고심 끝에 대가를 지불하고 간병인을 쓰기로 하였지만 그마저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아주머니 한분을 구했는데 저녁이면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고맙다고 머리숙여 인사하자니 가슴이 아파왔다. 하는 수 없이 오후 다섯 시부터는 마음씨 좋게 생긴 옆 환자 보호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지 선뜻 응해주셨다.

구세주를 여기서 만났다는 안도감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며칠이 지나 퇴원을 할 때 할머니는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음을 지으셨다. 그러나 그날 밤 고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날이 밝으면서 다시 입원을 했으나 병원생활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퇴원하자고 졸라 입원과 퇴원을 몇차례...

기진한 할머니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날 또 다시 밤새도록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시더니...

결국 좋아하신다던 가을도 오기전에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나와의 짧은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산중턱 화장터에 도착하여 얼마를 기다린후 할머니의 주검은 한줌의 재가되어 나왔다.

석양으로 물들어 가는 간월도 앞 바다.

한도 풀지 못하고 고뇌와 외로움으로 힘겨웠던 생이 가루로 되어 넓고 푸른 바닷물에 흩어졌고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지만 자식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의 가슴에 묻은 한을 이제라도 내가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 미 소

서 산 소 방 서  
박 명 숙

하루해가 유난히도 길던 여름을 끝으로 언제 더위가 우리곁을 왔었느냐는 듯이 벌써 잠자리들이 떼지어 날아다니고 들녘길 옆에는 간간이 코스모스도 보이는 것이 벌써 가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 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 특별 봉사 활동 대상으로 선정되어 만나 인연을 맺은지 벌써 3년째.

'98년 교통사고로 경추를 다쳐 전신마비 증세로 언어교환만 가능하고 왼쪽 팔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이다. 박종란(여, 52세)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선정되어 있다.

첫 대면부터 나에게서는 큰 충격이었다. 그 긴 세월 병마와 싸워 오면서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으로써 등에는 욕창이 하나도 없었다.

그간 가족들의 피나는 노력을 눈으로 보는 듯해 가슴이 뭉클해졌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우리가 찾아가면 항상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모습이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언의 스승과는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다.

모든 육체와  
정신이 자유롭  
지만 우리들은  
그것의 고마움  
을 너무나도 모  
르고 살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잊어



버리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인 듯하다. 그 때문인지 나는 박종란  
씨를 볼 때마다 의미가 새롭다.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박종란씨는 아마 각성제와 같은 느낌이 든다.

이번에 만나보았을 때는 차츰 가을이 다가온다는 느낌들을  
하나 둘씩 자세히 말씀드렸다.

하루종일 직장에 나간 딸과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화  
할 사람이 없으니 무척 심심할법도 한데 그런 내색하나 없이  
언제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른다.

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혈압, 맥박의 이상유무  
와 소변줄에 이상이 있나를 확인해 주고 살펴보는 것과 등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마사지를 하는것 뿐이지만 그것조차도  
매우 고마워 하신다. 오히려 나는 더욱 미안스러울 뿐인데...

그리고 이 작은 봉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마울  
뿐이다. 내가 만약 구급대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내 생활

의 안위만을 찾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그저 그것만이 전부인줄  
알면서 지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구급대원생활과 함께,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가끔나 자신을 놀랍게 한다.

# 어떤 부부

서 산 소 방 서  
이 구 용

'98년 7월 5일 밤 12시 10분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합덕별판은 우강평야와 넓게이어져 있어 차량과 인적이 드문 시간인데도 10여분이 넘게 걸렸다.

논 한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넓은 대문 양쪽으로 잘 꾸며진 화단, 넉넉히 산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안으로 들어서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밖의 풍경과는 달리 집안이 어수선하고 형클어진 머리에 피멍이든 얼굴의 아주머니는 실신한 듯 남편의 등에 얹혀 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으니, 남편은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원래 심장이 약한 편 이라서요. 우선 급하니 까 병원으로 갑시다.” 구급차에 아주머니를 눕히고 상태를 보니 사지를 떨면서 가쁜 숨을 몰아쉰다. “아저씨! 아주머니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깐요. 아저씨가 병원 도착할 때까지 좀 주물러 드려야겠습니다.” 나의 말에 아저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이 못난 사람아. 어서 말 좀 해 봐 이제 그만 장난치고, 아휴! 애간장이 다 타버릴 것 같으네.

지금 아프지 않은데 괜히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어서 일어나라니까? 응! 다시는 안 그렇게 어서 말 좀 해

봐 여보! 119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마누라는 꼭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제서야 부부싸움이 폭력으로까지 갔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우리는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고 검진을 마친 의사는 “너무 흥분하여 혈압이 올라가고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크게 위험할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간호사는 펄쩍 뛰며 “아저씨 사모님을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부부사이에 이게 웬일입니까?”하고 나무라듯 핀잔하듯 한 마디 한다.

부부가 살다보면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없기야 하랴마는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며 살아왔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아울러 혼수가 적다고 아내를 구타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가정을 저버린다면 누가 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을 지킬 것인가?

너무 쉽게 이혼까지 하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기만 한다.

# 죽음을 부른 음주운전

서 산 소 방 서  
이 상 진

겨울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는 듯 추위가 막바지에 이른 2월 24일. 모두들 잠들어있을 새벽1시 졸린 눈을 비비며 야간 소내근무를 하고 있는 내게 다급한 목소리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성방향 3km지점 교통사고 신고다. 듣고 보니 우리동네 아저씨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아저씨를 안심시키고 신속히 구조·구급대원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하니 승용차 한대가 흠물처럼 찌그러져 길가 옆 수로에 덩그러니 있었고 신고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현장에 있었다.

차안에는 두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으며 차체는 찌그러져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대원들은 익숙한 숨씨로 유압스프레더 및 절단기등 장비들을 이용하여 차체를 벌리고 안전하게 환자를 꺼냈는데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음주운전임을 짐작할 수 있게한다.

다행이도 한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상처가 심해 보이지 않았지만 동료는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 현장에서 지혈 등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량으로 인근병원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며 사용장비 정리 등 현장 뒷처리를 하고 있는데 차량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

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다가가니 차량 전복 시 튀어나왔는지 차안에 없던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신속히 인근대기소의 구급차량을 다시 불러 인근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의식은 있었으나 출혈이 심해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하며 불길한 예감을 하며 물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

‘나이가 몇 살 이에요?’

‘.....’

‘집이 어디세요?’

‘.....’

계속해서 말을 시켰으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입을 열지는 못했다. 병원으로 이송하여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귀소하려는데 말을 걸었던 그 환자가 하얀 시트로 씌워져 응급실에서 밀려나오고 있었다.

그때의 허탈감과 허무함이란...

우리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불식시키고 개개인이 조금씩 음주운전자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면 불명의 사고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 어린이날의 어른

서 산 소 방 서  
한 준 우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니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한테 “문방구 가서 애들 장난감이나 사주는 게 어때...”

점심을 먹고 난 후 식곤증으로 나른하여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있는데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침에 아내에게 한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바로 그때 구급신고가 들어왔다. 추사고택 관광지에서 족구를 하던 중 발목이 빠졌다는 것이다. 현장은 관할은 아니지만 타 관할과 경계지점으로 우리구 급대가 가깝기에 출동을 서둘렀다.

5월의 햇살은 따갑기만 하고 길가의 가로수를 따라 과수원, 들판에는 모내기 준비등에 바빠 움직이는 농부들이 보였다. 차 안에서 “어떻게 족구를 했기에 발목이 빠졌을까?” 하며 이야기하는 사이 추사고택이 시야에 들어왔다.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햇살을 즐기고 안으로 들어서니 잔디밭 광장 쪽으로 인파가 웅성거리며 모여있고 환자는 30대 후반의 남자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잔디에 누워 있었으며 옆에는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아니나다를까 발목이 쑥 빠지고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으니 “모처럼 야외에

나와 마음이 들떠 족구를 하다가 그만 발목이 빠졌지 뭐니까, 수고 많으신 구급대원에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보호자가 요구하는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의료진에게 인계한 후에 구급일지를 작성하려고 직업을 묻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원래는 회사원이었는데 연초에 실직이 되어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한숨을 쉰다.

실직으로 가뜩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울텐데, 이렇게 발목까지 다치다니 환자를 보면서 같은 국민이요, 한집안의 가장이며, 이 시대를 젊어져야 할 동반자로서 씩씩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치료 잘하시고 가시라는 말을 뒤로한 채 드넓은 벌판을 가로지르며 향긋한 봄바람과 함께 가로수 길을 따라 귀소를 서둘렀다.

# 아! 내 새끼손가락

논 산 소 방 서  
원 수 자

오늘은 싱그러운 사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다. 늘 반복되는 일상들이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교대점검을 마치고 관내에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근무를 하던중 10:05분경 상황실에서 “논산정수장 손가락 절단환자 발생 구급출동”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구급차를 출발하면서 상황실과 무선교신으로 사고내용을 접수한 바, 10시경 수질검사원인 이명용(여, 27세)이 정수장 물의 혼탁도 검사후 정화작용을 하는 소석회를 투입하기 위해 소석회 투입기에 손을 넣었다가 회전하는 톱니모양의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상황으로 봐서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한 바 평소 성격이 대담하고 차분했던 이명용은 아주 침착하게 부상당한 손을 손수건으로 지혈시키고 있었는데 단순 절단 사고가 아닌 톱날기에 절단되어 주변조직이 심하게 손상되고 인대등이 팔쪽에서부터 뿔어져 나간 흔적이 있어 여지껏본 절단사례중 상태가 아주 심한 편이었다.

상처 확인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감염 방지후 응급처치한 다음 환자를 우선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잘려나간 손가락을

찾아 병원으로 가져 갔다.

담당의사는 절단된 상태를 확인한 바 손상정도가 심하여 대전·충남 지역의 병원에서는 손가락 접합수술이 어렵다고 하며 수도권외의 종합전문병원으로 빨리 이송할 것을 권유하여, 보호자가 빠른 이송을 위하여 129구급차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송도중 잘못되어 절단부위가 악화되면 접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본인과 가족들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는 신속히 이송하여 정상적인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의논 하던중 헬기를 요청하여 이송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되어, 환자의 연고지가 경기도 수원인 것을 확인하고 본서 상황실에 연락, 헬기 요청을 하게되었다. 상황실 근무자와 본서 구조구급계직원, 소방본부 구조구급계 직원 그리고 논산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등이 노력하여 충남경찰청 헬기가 논산공설운동장에 착륙하였다.

이미 구급차는 운동장에 대기중이어서 착륙하자 곧바로 이륙하였다.

헬기에는 사고자, 보호자, 간호사 등이 탑승하여 손가락 접합수술에 정평이 있는 경기도 ○○병원으로 향하였으며 이미 병원에도 이송사실을 알렸다. 본서 상황실에서는 경기도 안산 소방서에 통보하여 헬기 착륙장소와 구급차를 대기 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헬기가 안산에 도착시 빨리 착륙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연막탄을 피워줄 것도 요청을 하여 헬기는 안산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연막탄 연기를 보고 곧바로 착륙했다.

대기중인 안산소방서 구급차에 환자를 옮겨신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였다.

숨막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귀소하는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나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느껴진다.

이송후 부상자의 소식을 들으니 이송 즉시 대기중인 수술진에 의해 수술을 받았고 정상유무는 2주정도 지난 후에 알 수 있다고 했다.

그후 절단된 손가락이 소석회에 손상 받아 수포가 생기고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끝으로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이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애쓰신 구조대원과 본서 및 본부계원님과 내일처럼 도와준 충남경찰청 관계자, 또한 헬기 이송도중 잔뜩 긴장한 부상자, 보호자, 구급대원에게 새심한 배려와 유머로 긴장을 풀어 주었던 기장, 부기장님, 안산소방서 구급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참 소방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저물어 가는 하늘을 본다.

# 술맛이 왜 이러지

논 산 소 방 서  
안 성 규

피서철을 맞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이정온(남, 49세)씨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휴가를 생각하던중 IMF시대이고 경제가 어려워 돈도 절약하고 친척도 찾아 뵈 겸해서 시골 처남이 사는 은산면 거전리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출발하였다.

시골에 도착한 가족과 인근 친인척들은 모처럼 모인 가운데 밤불을 밝히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판이었기에 또 오랜만에 만난 매형과 처남사이였기에 서로간에 술잔을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술에 만취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중 시간은 어느덧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처남 박○○(남, 42세)씨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으로 IMF이후 경제적으로 사정이 악화되어 고민하던중 문득 문득 자살을 생각했고 그때마다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중 박○○씨는 술이 취하자 평소 가다듬던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흔들려 급기야 자살을 생각하고 제초제를 창고에서 주전자에 따라 술자리로 가지고 와서 술잔에 따른 후 마시니 궁금해서 여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술이냐고 묻자 못마시게 하였다.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매형(이정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주전자에 들곤온 술이 시골에서 담은 좋은 술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빈술잔을 내밀며 한잔 따르라하고 매제 박○○은 못먹게 술을 감추었다. 매형은 귀한 술이라 장난하는 줄 알고 주전자를 빼앗아 두 모금 정도 맛을 보고 술맛이 독하고 이상하여 무슨 술맛이 이러냐고 묻자, 술을 담은적이 없는 박○○의 처도 무슨 술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술잔에 남은 술을 맛을 보았다.

이때 술맛이 이상하여 박○○의 아내가 남편한테 무엇이냐고 다그쳐 묻고 뒤늦게 제초제임을 알게되어 119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한 부여파출소에서는 부여, 홍산구급차를 출동시켜 현장에 도착하여 음독자를 이송하려고 하니 박용식은 이송을 거부하여 보호자와 우리가 설득하여 반강제적으로 탑승시켜 인근병원에 도착하여 인계했다. 며칠후 연락해보니 현재 3명 모두 무사하며 요양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음은 웬지 착잡한것은 무엇때문일까 IMF때문일까?

# 심폐소생술의 위력

논 산 소 방 서

김 성 태

연일 계속되는 폭우속에 경기도 북부지방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속에 여름은 홍수 속에서 빠져들고 중부지방 역시 기상청의 예보속에 폭우로 시달려 가면서 15일 늦은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는 새벽이 돼서야 그치기 시작해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했다.

아침 출근시간부터 손길이 바쁘기 시작해 근무교대부터 구조대는 금산군의 산사태 매몰자 구조작업으로 소방펌프차는 강경침수지역 배수작업을 떠났고 우리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익수사고와 수난사고에 대비 구급장비를 점검하던중 상황실 근무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구급출동 은진관촉사 주차장 익수사고” 신속하게 사고장소로 향하면서 매년 장마기간에는 저지대로 주차장이 물에 침수되어 차량운행이 어려웠던 장소로 기억나고 어린아이가 빠진 장소도 짐작이 간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주변에 사오십명의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며 어린아이가 빠진 장소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약 6~7분은 되었다는 것과 복개 도로가 끝나는 배수로는 현장에서 약 130m 떨어진곳에 있다며 주민들은 이미 틀렸다는 듯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사방은 침수로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수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급류가 아이를 밀어 배수로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릴뿐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안타까워만했다.

시간은 약10여분이 흐르고 아이의 어머니, 할머니는 발만동동 구를뿐 냇을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배수로를 보는 순간 아이가 배수로 밖으로 떠밀려 왔다.

간호사와 나는 아이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결과 동공은 풀리고 심장은 정지되어있고 다만 맥박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를 도로에 눕히고 불어넣기 2회 심장맛사지 5회 평소 구급교육시 익힌대로 실시했다.

마음속으로 제발 깨어나라고 외치면서 불어넣기를 두 번하는 순간 꿀꺽하며 구토와 함께 아이의 호흡이 거칠게 흘러나왔다. 순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를 방지하려고 손가락을 구강에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차에 싣고 차내의 산소소생기를 작동하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도중 아이의 엄마와 가족은 그저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만 흘릴뿐 말이 없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마치고 아이는 정밀 진단차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사고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엄마와 아들 2명과 함께 방학을 맞이하여 시골 할머니댁에 놀러왔다가 학교에서 방학숙제중 자연학습관련 숙제가 있어 마침 할머니댁 근처의 관촉사에 들러 구경하고 오던중 관촉사 입구 수로와 복개도로가 침수되어 도로

와 수로가 구분이 안되고 지리에 익숙지 못한 관계로 엄마가 아이 둘을 양손에 잡고 무릎까지 차는 도로를 무리하게 가던중 큰 아이가 발을 헛디디면서 수로에 빨려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는 즉시 관측사와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고 사고장소에 임시로 사고방지 줄을 가설하고 오는 길에 부처님의 얼굴을 보니 오늘따라 스님들의 목탁소리가 맑게 들려오고 부처님의 입가에 미소가 유달리 가슴에 와 닿는 것 같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그렇게 현현하는 듯…….

# 광란의 질주

논 산 소 방 서

김 중 현

1998. 9. 2. 17:40분경.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증산사거리 일명십자거리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10대들의 무모한 행동과 난폭한 운전이 자신들의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십자거리는 부여, 논산간 국도로서 차량소통이 빈번하고 평소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 얼마 전에도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으며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의 무모한 행동과 난폭으로 검문시 불응하고 도주중 경찰들과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로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9월 2일 이날은 무척 바쁜날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난 차량 전복사고로 구급차량은 엉망이었고 차안은 온통기름과 피투성이었다.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하고 구급장비 정리정돈을 하고 차내부는 소독하여 구급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17:40분경 창박으로 들리는 짹고도 긴소리...가 났다.

쿵소리와 무엇인가 끌리는소리 그리고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직감적으로 교통사고임을 감지하고 준비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구급신고였다. 바로 현장에 출동하니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 부서진 오토바이와 피투성이로 쓰러져있는 2명의 10대들 그리고 조각조각 부서진 검문 바리케이트... 현장주변은 행인들의 놀란 표정 등, 요구조자 경동맥 촉지를 하니 한명은 완전히 의식과 심장박동이 없으며 한명은 약간 의식이 있어 먼저 분리형 들것을 이용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를 차에 싣고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는 이동용 들것을 이용 구급차에 싣고 상태를 확인한바 여기저기 골절상과 타박상으로 출혈이 심했다. 요구조자 기도확보후 지혈등과 골절부위에 부목을 대어 응급처치후 경찰관을 동승시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가는도중 병원에 미리 환자의 상태를 연락하여 준비케하였다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병원에서는 이미 치료 대기중이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환자 한명에 의사 둘이 배치되어 응급처치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젊은 10대들의 생명을 연장코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드리웠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결과는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우리는 병원관계자로부터 2명 모두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운전했던 오토바이는 전형적인 폭주족들의 오토바이였다.

사고현장의 오토바이는 처참하게 부서져있고 그들이 충돌했

던 바리케이트는 산산이 조각이 나있었다. 맹목적 스피드를 즐기는 10대 폭주족의 광란의 질주... 이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이유로 이런 무모한 질주를 하는 것일까? 이처럼 쉽게도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일까

이사고가 그들만의 실수나 무모함으로 쉽게 잊혀질 일은 아니다.

그들은 부모나 친지들과 사고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많은 상처와 슬픔, 고통을 안겨주고 훌쩍 떠나버렸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들의 무모한 행동과 난폭운전 과속, 그리고 검문 불응...

이들은 도망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나들었고 과속으로 질주시부터 목숨을 담보 삼아 달린 것 같다. 아무쪼록 이 젊은이들의 녀이라도 편안히 잠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소리없는 공포

논 산 소 방 서  
이 준 표

'95. 1. 30. 설날 하루전날

부여소방파출소앞 ○○상가 아파트 307호에서 설음식을 장만 하던중 사고자 손경옥(여, 39세)이 목욕을 하기위해 가스보일러 급탕스위치를 누른후 나머지 음식을 장만 하던중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보일러를 장시간 가동시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일가족 4명이 질식한 사고이다.

오후 4시 40분경 화재를 진압하고 귀소한 우리들은 다음 출동을 위해 차량 및 적재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구급출동 ○○상가 307호"라고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신속하게 구급차에 몸을 싣고 구급출동을 했다. 현장이 바로 소방파출소 앞인 관계로 도착하는데 불과 1분 정도.

수퍼아줌마가 황급히 뛰어나오며 일가족 4명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아주머니의 안내로 307호에 도착하여보니 사고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쓰러져있는 일가족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나란히 쓰러져있는 사고자를 보며 가스중독이 아닐까 의심이 되어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시키고 가스렌지 주위를 확인해 보니 별이상 없다. 또한 가스냄새도 없었다. 우리는 의식이 없는 4명을 계단을 통해 구급차까지 옮기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하여 직원 4명이 금새 도착했다. 먼저 어린이를 한명씩 업고 계단을 내려와 구급차로 이송하는데 계단이 왜이리 멀게만 느껴지는지 불과 약 5분여 정도가 소요 되었는데 그 시간이 길게만 생각된다.

구급차는 부근 병원에 이송후 의식을 잃은 것이 궁금하여 다시 307호에 도착 천천히 집안을 살피던중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코가 찡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확인해보니 베란다에 설치한 가스순간온수기가 켜있었고 배기가스 냄새로 짙 차있어 냄새를 맡으니 금새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우리는 잽싸게 보일러를 끄고 중간벨브를 잠근 다음 화장실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아직까지 수돗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 수도꼭지를 잠그고 귀소 하였다. 이들은 2일에서 10일후 퇴원 했다하며, 춥다고 무심코 작동한 가스순간 온수기로 인하여 귀중한 일가족 4명이 하마터면 불상사를 당할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 영하속의 음독환자

논 산 소 방 서  
박 연 호

한파가 몰아치는 요즈음 며칠간 한 낮의 수은주가 영하를 가리키고 있다.

거리의 행인들의 옷차림은 점차 어둡고 두꺼운 것으로 변하고 발걸음도 종종걸음으로 재촉하는 모습이 눈에 쉽게 들어온다.

'96. 1. 12일 그날의 아침기온은 더 떨어져 밖에 잠시 나갔다가도 금새 몸이 얼어붙을 지경이고 계단은 얼어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오르내리곤 하였다. 오후에는 약간 내린 눈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으며 저녁에는 30여분동안 내린 눈이 뽁뽁 얼어붙어 사람들은 물론 차들도 발목이 잡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워서 교통사고가 발생할것에 대비 구급차 바퀴에 체인을 장착하고 구조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오늘도 별 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빌었다.

기상대에서는 현재 기온이 영하 6도이고 자정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아나운서의 음성이 심상치 않게 들려왔다.

온갖 만물이 깊게 잠든 새벽 01시 12분 소내근무자로부터  
구급출동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러면 그렇지 교통사고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 “성동면 월성리 음독환자 발생”이라고  
방송 소리가 들렸다.

예상은 빗나갔다 바깥은 뽕뽕 얼어붙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음독환자라니 내심 마음이 별로……,

쑥쑥한 마음을 간직한채 얼어붙은 도로를 조심조심 운전을  
하여 고귀한 생명을 구하러 운행을 시작하였다.

평소 같으면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인데 20여분이 넘게  
걸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아주머니 한 분이 애타게 우리를  
뽕뽕 얼어가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를 구급차에 동승시켜 목적지에 도착하니 구급차의  
사이렌소리를 듣고 동네사람들이 환자를 옮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주민인듯한 사람 넷  
이서 마치 돼지라도 매단 듯이 양팔과 다리를 하나씩 움켜잡고  
구급차를 향하여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신속히 차 문을 열고 환자를 태우려고 하는데 죽기를  
작정했는지 환자는 차에 안 탈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힘이 얼마나 센지 힘드려 차에 싣고 환자상태를 관찰하는데  
도 계속해서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죽어야 돼”를 연  
신 외치면서 우리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댔다.

치솟는 화를 억누르며 환자를 관찰하였다. 조금 있으니까 구토를 시작했다. 이물질 제거하여 환자가 최대한 호흡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

그 무엇이 이토록 추운 날씨에 젊은 청년을 극단상황에 까지 몰고 갔나 만감이 교차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병원까지 도착하여 의사에게 환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음독한 농약병을 인계하고 귀소하면서 환자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긴급구조 **119**

## 수혜자 감사편지





##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제는 선교회 모임 두달만의 방학이 막을 내리고 3월초 화요일마다 갖는 모임, 보고픈 얼굴들도 볼일도 있고해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나를 모실 차를 기다린다. 운전기사 권사님과 오랜만의 안부를 물으며 봄의 길을 달린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몸이 많이 불편하므로 기사님 옆자리는 나의 자리, 흰하게 뚫린 시야는 눈이 부시다.

예배가 끝나고 광고시간 “지난번 온천 좋았습니까?” “예~” “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보세요!” 정말 저같은 중증 장애인 은 대중목욕탕은 물론 온천을 가다는 것은 꿈도 못 꾀다. 열흘전 선교회에서 온천을 갔다 오면서 119 대원께 다시 감사를 느낀다.

작년 중증 장애인들이 온천을 갔다는 것은 내가 알기론 119 대원과 우리가 처음일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

우리에게 모험이었다. 약한자, 가난한 자, 죄인을 불러 하나님 의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온천을 가기까지는 기도하며 나의 콧비(숙연)이와 망설임도 없이 밀어 부쳤었다.

최상진, 김순대, 변영길 대원님에게 “아저씨! 길은요. 어찌구 저찌구~” “예! 말씀만 명령만 내리세요” 하~호 여탕에서 손이 모자라면 가발을 쓰고 등을 밀어 줄수도 있대나? 밀음, 소망, 사

량중 그중에 제일인 사랑의 힘, 관심의 힘으로 밀어주심으로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포근하고 나른한 봄 강한 척 몰아부치던 추위, 겨울도 봄 앞에 선 꼬리를 내리고 줄행랑을...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고 나의 날개 비록 휠체어에 실려 바깥 나들이가 마치 외국여행이라도 나뉜 듯 상쾌했고, 몇가지 일이 남았는데 각자 갈 집이 많아 3시도 못되어 집에 와 생각하니 시장을 못간게 못내 아쉬웠다. 이제는 만만하게 변영길대원님 "변영길씨 시장쯤 데려다 주실래요?" 그렇지않아도 종종 도움을 청하는데 서운한 마음에 한번 상상해보았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혼자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곧 나를 위해 119 고마운 분이 계신 듯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대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이제는 봄 맞을 마음의 빗장 활짝 열어야겠다. 119 대원여러분!

삶의 무게가 힘겨우십니까!

"수고하고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맡겨 보세요."

1998. 3. 5.

강경에서 연옥 드림

## 119 구급대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5월 14일 04시 10분경에 저희 연락 받으시고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산인데다가 아직 예정일을 한달하고 열흘이나 남겨 두었기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다들 놀랐기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연락 받으시고 금방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벽에 양개가 너무 심해 운전하기도 힘들셨을텐데 천안 순천향병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는데 다행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기가 아직 병원에 있어요. 조산 아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 아기만 병원에 두고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 후에도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주셔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병원에 조금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퇴원하면 아기 데리고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 뵙고 싶은 마음인데 편지로 대신해 죄송하구요.

TV에서만 봐 왔지만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알 것이지만 119구급대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는 큰 일이 생겨도 다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119구급대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기쁨인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시는데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네요. 저희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아기 퇴원하면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그날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98. 5. 25. 월요일  
보령에서 조현대·이순목 드림

##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느껴지는 오빠, 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산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이경미라고 합니다.

몸은 모두들 건강하신지요. 5월 23일경 경운기에 제동생 춘군이 떨어져 119 오빠, 언니께 도움을 받아 감사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날 동생 춘군이 경운기에서 떨어져 얼른 집으로 춘군이를 데려가 먼저 물수건으로 해주었어. 그런데 이마는 열이 가득차 은미언니가 깜짝 놀라서 어쩔줄을 모르며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은미언니는 얼마나 울던지 저까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119 구급차가 먼 길인데도 빠르게 와서 제동생 춘군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어서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어요.

119 구급대원 오빠,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가 좀 늦었더라도 이해해 주셔요. 그리고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오빠, 언니 파이팅!"

저는 오빠, 언니들께 감동적인 것을 느끼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안가졌구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오빠, 언니분들께 저는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일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빠, 언니들처럼요. 그리고 꼭 한번 소방서에 견학하고 싶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다음에 또 편지하겠습니다.

'98. 7. 1. 수요일  
보령시 미산에서 경미가.

##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119아저씨께

119 구급대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8월 5일 새벽에 풀독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이경순입니다.

새벽 2시부터 일어난 두드러기의 가려움과 메스꺼움 등으로 아침까지 참을 수 없어서 새벽 4시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이 새벽에 구급차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와 조용한 시골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네 어른들 다 놀란다며 만류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혹시나 하며 전화를 했고 사이렌 울리지 말고 조용히 마시면 한성리 마동부락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겠다는 저의 부탁을 들어 주셨습니다.

119 구급대 아저씨! 제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휴가로 인해 3박 4일 친정에서 묵게 될 계획의 마지막을 병원가는 것으로 끝냈으니깐요.

더욱 감사한 것은 치루받고 새벽 5시쯤 시골이라 버스도 없고 해서 택시를 이용해야지 했는데 가는 길이라며 태워주시겠다고 하신 장항 119 구급대 아저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땐 경황이 없어서 성함도 여쭙지 못했네요.

원래는 서천 구급대 아저씨들이 지원을 나가셔서 소속은 보령인 장항구급대 아저씨가 대신 오셨다고만 들었습니다.

구급대아저씨 덕분에 서울에 도착해서 지금도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도 공무원입니다. 과천 종합청사 교정국 기획단에서 근무합니다.

IMF와 공무원의 불신이 땅에 떨어진 지금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다하는 또한 남편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는 119 구급대아저씨께 편지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날씨도 덥고 기나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근무하시는 119 아저씨께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두서없는 글을 너무나 고마워서 띄워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98. 8. 6.

서울 영등포구 산길4동 이경순 드림

## 언제나 애쓰시는 구급대 모든분께

소방서, 파출소 119 구급대 모든 대원분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어요.

언제나 쉬는 날 없이 애쓰십니다. 저에게 안부편지를 다 해 주  
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4월 14일 저녁 8시 29분에 아들을 순조롭게 낳았습니다. 구  
급대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98년 설날지나고 119 구급대원들에게 쉴틈없이 고생하셔서  
전화로 인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박카스 한 병이  
라도 대접하려 했는데 돈이 많이 나가면 아빠한테 혼날까봐 못  
해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은 공주시 이인면 오룡리 360번지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지만, 살아 계실 때 119를 부르고 동생이 다친 날  
도 부르고 저도 질병이 있어서 심할 때 불렀지요. 우리 식구들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당뇨로 인해 합병이 많은 것도 아실거예요.

119 구급대 모든 분들 정말 1년 365일 밤낮 쉴틈없이 수고하  
십니다.

15일날이 스승의 날이지만 구급대 모든 분이 저를 가르쳐 주  
신 분으로 믿고 인정하고 인사드립니다.

그 날도 월튼없이 바쁘실줄 알지만 119 구급대 모든 분과 모든 가족에게 인사드립니다. 기쁨의 날이 되시고 더욱 더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구급대 어저씨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친 엄마의 병인데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이 정말 무척 위험하고 무서운 병인지요.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이런 것을 여쭙아서 죄송합니다.

119 구급대 모든 대원분들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4월 11일날 쓰건데 늦게 부치게 되었습니다. 시댁식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쓴거 알면 야달나요.

119 구급대 모든 아저씨와 언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비밀이에요.

저 외에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따출소, 소방서, 119 구급대 모든 분만 알고 계셔야 해요.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족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주시 의당면  
71년생 임숙자 올림

## 충청남도지사님께

충청남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군수사예하 5정비창에 근무하는 한귀석대위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이나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퇴박기간 중 3월 28일 대전소재 군 휴양소인 대전 콘도에서 2박 3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기들이 3명(딸 6세, 아들 4세 쌍둥이)이 있습니다. 그날 21:00경 갑자기 아기중 한명이 열로 인해 경기를 일으켜 무엇부터 해야하나 발란 동동 구르고 있던 중 119구조대 생각이 나서 119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0분후 119구조대가 도착해서 저의 아기를 가슴에 안고 엘리베이터가 지연되자 5층에서 비상계단을 이용 신속하게 탑승 대전병원에 도착, 응급처치를 받고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답니다.

또한 119구조대원 두분께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저에게는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수고비(3만원)로 사례를 하려 했으나 그분들은 119구조대는 무런이니 아기한테 가보라고 하면서 절대 사례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국가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곤경  
되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으나, 위급상황발생시 저도 모르게 감  
사한 마음으로 드리려 했던것이 나자신을 더욱더 부끄럽게 만들  
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현재 사회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만 아직도 때묻지 않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시는구나 정말 흐뭇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한 아기들을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제가 도지사님께 이글을 드리는 것은 보이지않는 곳에서 묵묵  
히 자기임무를 수행하시는 보령소방서 신흑파출소 소방사 임원  
균외 1명께 따뜻한 말한마디라도 저를 대신해 드렸으면 해서 염  
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힘  
내시어 도내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98. 4. 3.

대위 한귀석 올림

## 소방본부장님께

민생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저는 대전 동구 자양동에 사는 57살 박병호입니다.

지난 4월 5일(청명, 한식) 아침 8시경에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산에 3년전 교통사고로 앞서간 둘째자식놈 산소를 손보기 위해 산길 도랑(약 70~80m)을 평소같이 건너가 산일을 하고 날이 저물어 오후 6시 30분경에 도랑에 도착해 보니 물이불어 도저히 건너지 못해서 금산군 119구조대(진산의용소방대 구조부장 김용인)에 긴급구조를 요청한 바, 장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운 고생 끝에 타 지역 구조대의 모터보트를 빌려서 3시간여만인 밤 9시 40분경에 저의 가족 12명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전연 무보수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보니 고마움기 한량없어 이 일을 웃어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물려 드리오며, 바쁘신 속에서도 기회가 되시면 금산군 진산의용소방대원 및 경찰관, 소방관, 의류진 분들에게 노고의 위로말씀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저와같이 급한 민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지원해주십사 함을 말씀드리오며,

본부장님의 안녕과 건강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 4. 1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구출은혜자 박 병 호 배

## 보령소방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한산면 한산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지난 3월 23일 새벽에 저의 장인께서 이상하시다는 장모님의 급한 전화에 가장 가까이에 사는 저의 내외가 처가인 문산면으로 달려간 시각은 새벽 5시 정도였습니다.

급한 마음이라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던 차에 “119”가 생각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0여분 후에 도착한 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근 서해병원으로 후송하여 긴급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결과 뇌출혈로 판명되어 큰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사의 말에 병원 구급차를 찾았으나, 그날 새벽 서울로 환자를 이송하려 출발하고 없다는 말에 다시한번 119를 생각했고, 119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으로 익산의 원광대 부속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40여일간의 투병생활 끝에 저의 장인께서 끝내 운명하시었고, 뒷정리를 하던 중 119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천소방파출소 찾아 갔으나 한사코 거절하는 바람에 고맙다는 말씀만 드리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특별히 할 수도 없어서  
혹시 서장님께서 서천에 오시는 길이 있으시면 격려해 주셨  
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싶어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정말로 서천파출소 119 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1998. 5. 10.

서천군 한산중학교 이정환 배상

## 최반장님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국민의 재산과 아스러져가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고자 긴급구조 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반장님이하 구조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영호대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이만호입니다.

좀 더 일찍 찾아 뵙고 반장님이하 대원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도리몬줄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필을 들게되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탕정저수지에서 익사한 이주한의 아버지되는 사람입니다.

좀 더 부모의 입장에서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덕한 부모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구조대원님들의 수고를 드리게 되었고요. 항상 메스컴의 얘기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것이 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항상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에 같이 있는 구조대원님들의 고마움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밤과 낮이 따로 없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업무에 출동하시는

대원님들을 찾아 뵙고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으면서 찾아뵙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관용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119구조대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더욱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7. 16

논산군 은진면 이만호 배상

##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고 치하

무더위에도 지역재난 방지와 화재진압에 헌신하시는 서천소방  
파출소 공직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며칠 전 중천면 도량리 293번지에 거주하시는 김태영씨로부터  
장수용, 나현규 두 소방공직자들이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한다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가족처럼 주민을 돌보면서 병원 진료비까지 부담하기란 쉬운 일  
이 아닐 것입니다.

장수용, 나현규 소방공직자의 선행을 거듭 치하하면서, 주민이  
믿고 신뢰하는 서천소방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철수 소장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행정의 참모습 또한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모쪼록 서천소방파출소가 앞으로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  
길 바라면서,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98. 7. 24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드림

## 어둠과 빛

어둠이 주위를 맴돌다  
하늘과 땅 사이를 덮어 버리면  
세상은 온통 나를 덮는다.

창밖은 살을 에이는 찬 바람  
안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소리가 고요함을 깨운다.

아마도 어디선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에게  
알리기라도 하듯 은란한 사이렌소리  
어둠을 뚫고 달린다.

충청남도 천안소방서 지방소방사 이익주



**긴급구조 119**

**지금은 구조중! S.O.S**

---

1998년 12월 일 인 쇄

1998년 12월 일 발 행

발 행 :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편 집 : 방호구조과(☎ 042-254-2119)

인 쇄 : 우 정 기 획(☎ 042-634-2141)

---

(비매품)



## 이 시대의 표상으로

하루 25시를 무한 봉사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대 119 구조·구급대원들이여!  
그대들 그 숭고한 손길  
그대들 그 따뜻한 눈매가  
한 순간 방심으로 허를 찔린  
요구조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구나.  
아, 119 구조·구급대원들이여!  
그대들 오로지 사명찬 모습,  
금지로 소방을 지켜가는 모습은  
굳세고 반듯한 이 시대의 표상으로  
경이로운 신비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참 놀라운 기도의 소금이 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지방소방위 한 정 찬